사찰을 수익자로 지정이 가능한 Heungkuk 흥국생명
49재 보험 & 다비 보험
상담 문의 1522-1543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74호 HYUNBULNEWS.COM 2026년 4월 15일(음력 2월 28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금강산관광 재개 염원 담아 한 걸음씩 조계종이 4월 8일 고성 DMZ박물관에서 통일기원 미륵대불이 있는 통일전망대까지 '금강산관광 재개 발원 금강산가는 길 걷기'를 개최했다. 동참자 400여 명은 '가고 싶다 금강산, 다시 가자 금강산'을 슬로건으로 약 40분간 접경 지역을 걸으며 남북 교류 재개와 한반도 평화를 기원했다. 걷기에 앞서 조계종은 고성 DMZ박물관 대강당에서 '남북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종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남북 불교 교류 및 민간 차원의 협력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3면〉 **고성=임은호 기자**

불교 '3無 현상' 뚜렷…'생활 신행' 전환 필요

갤럽 '한국인의 종교' 조사
불자 58% "불경 읽지 않아"
"매일 기도한다" 불자는 7%

신중일 · 하성미 · 김내영 기자

기도하지 않고, 경전을 읽지 않으며, 사찰과 법회에도 방문·참여하지 않는 '3무(無) 불자'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수행의 종교'라고 자부하는 불교가 수행·신행의 밀도에서 이웃 종교보다 옅다는 게 확인된 것이어서 '생활 속 신행'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갤럽(이하 갤럽)은 3월 26일과 4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한국인의 종교:1983~2025'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1983년 시작돼 2025년까지 여섯 차례 진행돼 왔으며, 약 40년간 한국인의 종교 현황과 관련 인식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이번 조사에서는 종교인구가 소폭 증가해 탈종교화 기류에 변화가 생겼으며 불교적으로 '3무 불자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 3월부터 11월까지 전국(제주 제외)의 만 19세 이상 7647명에게 현재 믿는 종교가 있는지 물은 결과 40%가 '있다', 60%는 '없다'고 답했다. 종교를 믿는 사람(이하 종교인)은 남성(31%)보다 여성(49%)이, 연령이 높을수록(20대 24%, 60대 이상 52%) 많았다.

종교인 비율은 2024년 37%에서 2025년 40%로 모처럼 반등했다. 지난 20년간 종교인 감소의 주된 원인은 청년층에 있었다는 게 갤럽의 분석이다. 갤럽은 "2004년의 20대 중에서는 45%가 종교를 믿었지만, 2014년 20대는 33%, 2022년 20대에서는 그 비율이 19%에 그쳤다"면서 "30대의 종교인 비율 역시 2004년 49%, 2014년 41%, 2022년 24%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젊은 교인 신규 유입 감소뿐 아니라 기존 교인 이탈도 전반적 교세 약화와 종교 인구 고령화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종교인구 비율은 개신교 18%, 불교 16%, 천주교 6%며, 연령별로 보면 불교인 비율은 20·30대 5% 내외, 40대 11%, 50대 19%, 60대 이상에서 27%로 고령층에 집중돼 있다. 지역적으로는 부산·울산·경남에서 불교인 34%, 개신교인 8%로, 불교는 경남 지역에서 강세를 보였다.

비종교인의 종교 호감도에서는 불교가 15%로 가장 높았다. 천주교는 11%, 개신교는 6%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비종교인 종교 호감도는 2004년부터 시간을 거듭하면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제 2004년 당시 비종교인 종교 호감도에서 불교는 37%를 기록했지만 현재는 그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반대로 '호감 가는 종교가 없다'는 응답은 2004년 33%에서 2025년 67%로 급증했다.

종교인들의 종교활동 부문에서 불교는 긍정적인 지표를 보이지 못했다. 종교시설 방문 빈도를 묻는 질문에서 '일주일에 1회 이상 사찰에 방문한다'는 불자는 3%에 불과했다. 개신교인은 81%가 천주교인은 68%가 일주일에 1회 이상 교회와 성당에 방문했다. 이는 종교행사 금지 조치가 이뤄진 코로나19 펜데믹 이전 수준을 웃도는 것이어서 개신교, 천주교의 '집토끼 지키기' 전략이 일정 수준 이상 성공한 것으로 보여진다.

경전 독서율과 기도율 역시 처참한 수준이었다. '주 1회 이상 경전을 읽는다'는 불교인은 6%에 그쳤고, '전혀 읽지 않는다'는 불교인은 58%에 달했다. 반면 개신교인은 61%, 천주교인은 45%가 주 1회 이상 성경을 읽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현재까지 이뤄진 조사 중 최고 수치다.

매일 기도·기원율에서는 불교인의 7%만이 '하루 1회 이상 기도한다'고 답했다. 개신교인은 43%가, 천주교인은 39%가 매일 기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도와 기원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불교인은 35%나 됐지만, 개신교인과 천주교인은 8%정도였다.

'불교인의 신행 밀도 낮다'는 조사 결과는 타 기관에서 시행한 조사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된다. 실제 지난해 12월 한국리서치가 발표한 '2025년 종교인식조사: 종교인구 현황과 종교활동'에서는 종교활동의 중요성을 묻는 질문에 개신교인은 77%, 가톨릭인은 55%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불교인의 35%만이 "중요하다(매우 중요 3%·중요한 편 32%)"라고 답했다. 불교인의 경우 15%는 "종교활동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해 3대 종교 중 가장 높았다.

이에 대해 한국리서치는 "이는 불교의 특징으로도 볼 수 있지만 불교 신자 간의 유대감이나 공동체가 약화되가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일선 스님과 전문가들은 불교가 사찰을 넘어 가정과 일상으로 들어가야 함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동화사 율학승가대학원 율원장 해공 스님은 "비종교인 호감도가 높지만 정작 불자들의 신행 참여도가 떨어지는 것은 불교가 생활 속 깊숙이 파고들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이제 산중불교를 넘어 대중의 삶 속으로 찾아가는 '생활불교' '현장불교'로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종교라는 틀을 벗어던지고, 현대적인 감각의 명상과 치유 콘텐츠를 통해 청년들이 스스로 불교의 지혜를 찾게 만드는 '문턱 낮은 포교'가 필요하다"며 "경전 독서(6%)나 기도 빈도(7%)가 낮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스마트폰 앱이나 비대면 플랫폼을 활용하여 일상에서 쉽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5면에 계속

조계종 종교편향특위 "가톨릭 대회 편향 우려"

종교편향특위·국회정각회 4월 2일, 간담회 개최해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보화 스님, 이하 종교편향특위)가 '2027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을 둘러싼 종교 편향 문제를 지적하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종교편향특위는 4월 2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불자 국회의원 모임인 국회정각회(회장 이헌승)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종교편향특위 위원장 보화 스님을 비롯해 위원 탄보·수경 스님, 총무원 사회부장 진성 스님이 참석했으며, 정각회에서는 이헌승 회장을 포함해 이광희, 김병주, 김영배, 박정하, 한지아, 조지연 의원 등이 자리했다.

이날 종교편향특위는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이 실질적으로 2027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가톨릭 세계청년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우회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해당 법을 시행해 세계청년대회를 지원하려면 시행령 및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한 만큼, 특정 종교에 편향된 위헌적 법령이 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인 3건의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에 대해서도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과 종교 간 형평성에 위배되는 법안"이라며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지속적인 관심과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각회 의원들은 해당 법안의 종교 편향 문제점에 공감을 표했다. 정각회는 "소속 의원 58명이 불교 관련 현안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한목소리로 대응하고 있다"며 "불교계가 제기한 종교 편향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면담에서 제기된 내용을 바탕으로 의원들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가족과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 구독·법보시로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보시공덕 중 으뜸은 법보시이며, 이는 자기 자신과 후대를 위해 선업을 쌓는 의미있는 일입니다.
비록 한 장의 신문이지만 부처님과 새로운 인연을 맺게 하는 공덕을 쌓는 포교 실천입니다.
현대불교신문 권선은 나의 이웃과 친지에게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있는 즐거움을 주는 뜻 깊은 포교불사입니다.
불기257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현대불교신문 법보시로 희망의 연등을 밝히는 포교불사에 수희동참을 바랍니다.

월구독료 1만원 | 구독 및 법보시 문의 ☎ 02)2004-8214

선지식 7인, 봉은사서 '간화선 진수' 설한다

'평화·화합 봉은사 담선대법회'
조계종·선원수좌회, 법왕루서
4월 13~19일, 매일 오후 2시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지난해 조계종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국민을 위로했던 담선대법회가 올해는 서울 봉은사에서 펼쳐진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전국선원수좌회(상임대표 불산 스님)는 4월 13일부터 19일까지 매일 오후 2시 봉은사 법왕루에서 '세계 평화와 국민화합을 위한 봉은사 담선대법회'를 봉행한다.

담선대법회는 고려시대부터 국가에서 3년마다 개최한 법회로, 선의 지혜로 국민 대화합과 국운융성을 발원하는 대법석이다. 지난해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발원으로 서울 조계사에서 처음으로 열려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 봉은사에서 봉행되는 담선대법회는 선불교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독자적인 수행전통으로 자리잡았는지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일곱 명의 선사들이 이 땅에 간화선의 기반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어려운 시절을 수행을 통해 어떻게 이겨냈는지, 간화선이 어떻게 우리 삶에 뿌리내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는지를 설할 예정이다.

4월 13일 금아 혜국 대선사(석종사 조실)가 성철 스님을 주제로 시작해 △14일 남명 정찬 대선사(대흥사 동국선원 유나)가 서상 스님 △15일 금곡 무여 대선사(축서사 조실)가 한암 스님 △16일 월송 일수 대선사(백양사 수좌)가 서옹 스님 △17일 금산 지환 대선사(범어사 선덕)가 용성 스님 △18일 금모 불산 대선사(전국선원수좌회 상임대표)가 향곡 스님 △19일 봉정 영진 대선사(백담사 기본선원 조실)가 태고 보우 국사를 주제로 각각 법을 설한다.



법회 참석 대중은 〈자비경〉을 합송하며 세계 평화와 국민화합을 발원하는 시간을 갖는다.

조계종 미래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은 "이번 법회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잘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흐트러진 마음을 살피고 귀한 법향을 전할 수 있는 이번 담선대법회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NGO는 사회 밝히는 등불"

조계종·아름다운동행 공모사업
14개 기관에 총 1억1000만원 지원


조계종과 아름다운동행이 진행한 '2026년 지속가능! 공공가치! NGO 공모지원사업'에는 로터스월드 등 14개 기관이 선정됐다. 사진은 4월 6일 열린 증서 전달식 모습.

조계종과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이 4월 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2026년 지속가능! 공공가치! NGO 공모지원사업'에 선정된 14개 기관에 총 1억1000만원의 지원증서를 전달했다.

공모지원사업은 자비나눔 사업 일환으로, 각 기관에 500만원~1500만원이 지원된다. 올해 공모에는 △사회적 약자 역량강화 분야 23개 기관 △환경보전 및 탄소중립 분야 11개 기관 △국제개발/탈북민 인도적지원 분야 9개 기관 △미래세대 역량강화 분야 10개 기관 등 총 4개 분야에 53개 기관이 신청했다. 사업의 적합성, 타당성, 창의성, 지속성 등을 심사해 총 14곳이 최종 선정됐다.

분야별로 보면 미래세대 역량 강화 부문에서는 △가재울청소년센터 '데이터 가든' △과천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 나나극단' △자비신행회 '나르샤 토요배움학교'가 선정됐다. 사회적 약자 역량 강화 부문에서는 △서울시립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손으로 만드는 일상'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사.인.공' △안성시노인복지관 '마음채움학교' △영통장애인주간이용센터 '보이는 음악, 들리는 그림' △화성시아르딤복지관 'Safe Money 아르미'가 포함됐다.

환경보전 및 탄소중립 부문에서는 △광주동물권단체성난비건 '시민과학으로 야생조류와 공존하는 전남광주 만들기' △부산불교환경연대 '환경보살 기후학교'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에코스테이션'이 선정됐다. 국제개발/인도적 지원 부문에서는 △더프라미스 '스리랑카 사이클론 피해 지구 유치원 재건 및 교육정상화 사업' △로터스월드 '라오스 동자스님들의 발심출가를 지켜주세요' △사단법인 코인트리 '스리랑카 청각장애 아동 여학생 성장 자립을 위한 수어 직업 교육 사업'이 선정됐다.

이번 NGO 공모지원사업은 불교의 핵심 가치인 자비를 사회적 혁신으로 확장해 국내외 빈곤 계층의 자립을 돕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발굴하고자 기획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름다운동행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복지 모델을 발굴하고, 종교의 경계를 넘어선 보편적 사회공헌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진우 스님은 종단의 지원금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기원했다. 스님은 "불교의 자비는 단순한 나눔을 넘어, 고통받는 이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어야 한다"며 "이번에 선정된 단체들이 현장에서 펼치는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사회를 밝히는 큰 등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가 편안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구제해야 한다"며 "이번 지원이 각 기관 활동에 마중물이 돼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종교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자비를 실천할 때 진정한 공공가치가 실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은호 기자

진각종, '전쟁 종식' 식재서원불공 봉행

4월 6~12일, 전국 심인당서
"화합으로 갈등·대립 소멸"

진각종(통리원장 능원 정사)이 전쟁 종식과 평화를 위한 '식재서원 특별불공'을 봉행했다.

진각종은 4월 3일자로 전국 각 교구청 및 심인당, 신행단체, 산하법인 및 시설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4월 월초 불공기간인 4월 6일부터 12일까지 '전쟁 종식과 평화를 위한 진호국가 식재서원불공'을 봉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모든 진각 행자들은 특별 강도발원을 통해 식재서원불공에 동참하며,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정부와 국민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통리원장 능원 정사는 강도발원문을 통해 "말법시대 우리는 화합과 상생의 지혜를 잃어버린 채 이념과 이익의 갈등, 끝없는 대립과 충돌을 반복하면서 공멸이라는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서 "이에 간절한 마음으로 서원하오니 진각행자 모두는 진호국가불사의 으뜸 서원인 식재서원기도를 지극한 마음으로 봉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능원 정사는 "먼저 스스로를 밝히고 주변으로 그 빛을 전하여 화합과 상생의 감동을 인류가 다시 회복하고 이 땅의 갈등과 대립을 완전히 소멸하여 불법의 올바른 체로써 국가와 만생명을 제도하는 진각의 종풍을 이어갈 것을 서원한다"고 발원했다.

신중일 기자

총화종, 창종 67주년 법회 및 인권상 시상

4월 15일, 총본산 실상사서
제1회 총화인권상 수여

대한불교총화종(총무원장 혜각 스님)이 4월 15일 10시 30분 총본산인 영동 실상사 설선당에서 '창종 제67주년 기념 대법회 및 제1회 총화인권상 시상식'을 봉행한다. 법회에서는 종단의 67년 역사를 되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고 인권 신장에 기여한 이들을 기리는 총화인권상 시상도 진행된다. 총화종은 3월 20일 총화인권위원회를 발족해 종단 차원의 인권 실천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이날 제1회 총화인권상을 시상하며 인권 가치 확산에 나선다.

총무원장 혜각 스님은 "만물이 생동하는 희망의 계절을 맞아 부처님의 자비와 평안이 가정에 가득하길 기원한다"며 "정법의 가치를 세운 지 67주년을 맞아 그간의 정성과 원력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창종의 뜻을 되새기고 인권의 가치를 선양하는 자리에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연등회 알릴 글로벌 서포터즈 'LLF' 출범
연등회보존위원회는 4월 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연등회의 국제문화 홍보를 함께할 글로벌 서포터즈 '2026 LLF Friends(Lotus Lantern Festival Friends)'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2026 LLF Friends'는 총 28개국 50명으로 구성됐으며, 문화 다양성과 국제 교류의 의미를 더욱 넓히기 위해 다양한 국가의 참가자들이 함께 선발됐다.

신중일 기자

제565회 사명대사 춘계향사
일시 : 2026년 4월 23일(목) 10시 장소 : 표충사 사당
대한불교조계종
밀양 표충사
주지 진각
사부대중 일동


경남 밀양시 단장면 표충로1338 전화 055)352-1150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닫힌 남북관계, 금강산관광으로 다시 열리길”

조계종, 4월 8일 고성 DMZ박물관 ‘금강산관광 재개 발원 기원법회’ 통일전망대서 ‘금강산 가는 길 걷기’
진우 스님 “언제든 평화 외칠 용기” 불교유산조사단·순례단 방북 허용
신계사 복원 20년 행사 협력 촉구

고성=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은 4월 8일 강원 고성 DMZ박물관서 ‘금강산관광 재개 발원 남북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기원법회’를 봉행하고 남북 교류 재개와 한반도 평화를 기원했다. 사진은 민추본 집행위원 정응 스님과 선민지 대불련 중앙회장이 ‘평화통일 발원문’을 낭독하는 모습.



법회 후 사부대중 400여 명이 ‘금강산 가는 길 걷기’에 나섰다.



‘금강산 가는 길 걷기’는 미륵대불 앞에서 회향했다.

금강산관광 재개와 화합을 염원하는 불교계의 간절한 목소리가 접경지역에서 울려 퍼졌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4월 8일 강원 고성 일대에서 ‘금강산관광 재개 발원 남북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기원법회’를 봉행하고 남북 교류 재개와 한반도 평화를 기원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성행 스님)가 주관한 이날 기원법회는 DMZ박물관 대강당에서 1부 기원법회로 시작됐다. 법회는 금강산관광 재개라는 당국 간 과제와 의지를 불교계가 견인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길 염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현 정부의 대북평화 기조 및 금강산 세계유산 등재에 맞춰 금강산관광 재개를 재조명하고 공론화함으로써 남북 간 신뢰 회복과 교류 재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겼다.

봉행사에 나선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성행 스님은 “금강산은 민족의 영산이자 불교문화유산이 깃든 수행의 도량이고 금강산관광은 남과 북이 서로를 이해하고 이어온 민족화해와 교류의 상징”이라며 “단절된 금강산 길을 다시 여는 것은 단순한 관광 재개를 넘어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평화와 공존의 길로 돌려세우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강산관광은 남북 불교계가 문화유산을 함께 보존하고 교류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며 “부처님 가르침을 등불 삼아 단절된 금강산 길이 다시 열리고 남과 북이 자유롭게 오가며 평화와 공존의 시대가 이 땅 위에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서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치사에 앞서 금강산관광이 시작된 1998년 시기를 떠올렸다. 남과 북의 이산가족이 눈물의 상봉을 이뤘던 일, 남북 민간인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말과 문화를 나누며 분단의 장벽을 허물었던 일 등을 언급한 스님은 “금강산이 열리기 이전의 남북관계가 대립과 갈등, 긴장으로 이어지는 관계였다면 금강산이 열린 이후의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 평화로 이어지는 시작이었다. 금강산은 남북 교류의 터전이자 다양한 민간 교류의 장이 됐고 신계사 복원 불사도 금강산이 열렸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회고했다.

진우 스님은 “금강산 남북불교문화교류 협력을 열기 위해서도 금강산관광 재개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며 “막혀 있던 문을 열어 다시 만나고 대화하고 문화와 관광, 경제 협력이 상생의 길로 나아갈 때 분단 상처는 다시 치유될 것이고, 금강산을 함께 오르내리는 발걸음 속에서 긴장과 적대는 무너지고 공존과 상생의 깨달음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중동전쟁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진우 스님은 “전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 당장 전쟁과 살상을 멈추고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평화는 저절로 이뤄지는 것도, 우연히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인내하며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강한 의지로 언제든지 평화를 외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교계는 남북이 다시 만나고 소통하는 길을 여는 데 앞장서겠다”며 금강산 길이 다시 열려 평화와 상생의 길로 이어지길 발원했다.

이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방용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등 주요 인사들이 축사를 통해 금강산관광 재개의 필요성과 남북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년 전 노무현 정부 당시 금강산 신계사 복원 법회에 참석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정 장관은 “금강산 가는 길이 끊기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남북관계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라며 “18년 동안 다시 이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잇지 못한 것은 무능하고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제적인 관광지로 변모 중인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를 언급하며 “금강산과 원산갈마길이 이어진다면 도행의 아름다운 해안선길은 한반도를 넘어서 세계인이 찾는 평화의 명소 공간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강산을 중심으로 불교 교류의 길을 묵묵히 이어오면서 한반도 평화의 길을 다진 조계종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정부도 한반도 평화 공존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 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법회 동참자들은 금강산관광 재개 촉구문과 평화통일 발원문을 낭독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한목소리로 기원했다.

민추본 사무총장 덕유 스님은 동참자 대중을 대표해 낭독한 ‘남북평화를 위한 금강산관광 재개 촉구문’에서 남북 당국 모두에게 △유네스코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불교문화유산 연구조사단·순례단 방북 허용 △남북불교교류의 성공적 사례인 금강산 신계사 복원 20주년 행사 협력 △금강산관광과 원산갈마 관광 연계 추진 등을 촉구했다.

민추본 집행위원 정응 스님과 선민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중앙회장은 평화통일 발원문을 통해 “화해의 악수로 역사의 깊은 골을 메우고, 상생의 나무로 한반도의 푸른 숲을 가꾸고, 분단의 철책 위로 대륙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 온 누리 수승한 공간마다 통일도량을 함께 세우며 평화와 공존으로 나아갈 희망의 연꽃을 피우겠다”고 발원했다.

법회 후에는 참가자 400여 명이 ‘금강산 가는 길 걷기’에 나섰다. 이들은 DMZ박물관에서 고성통일전망대까지 40여 분간 행진하며 금강산관광 재개 의지를 다졌다. 통일전망대에 도착한 동참대중은 미륵대불 앞에서 회향하고 남북의 화해와 협력, 항구적 평화를 다시 한번 발원했다.

조계종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남북 불교 교류 및 민간 차원의 협력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강산관광은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햇볕정책 일환으로 1998년 11월 18일 시작된 대한민국 국민 대상 북한 소재 금강산관광 프로그램이다. 배와 자가용 육로 관광에 이어 여객 열차로까지 운행할 계획이었지만 관광객 피살 사건이 발생하면서 2008년 7월 13일 중단됐다. 10년간 금강산관광을 다녀온 남측 관광객은 193만 5000여 명이며 2008년 완공된 금강산 면회소에서 상봉을 이룬 이산가족은 3900여 명이다.

“제주 4·3 진상 규명이 진정한 아픔 치유”

조계종 사노위, 서울 송현광장서 희생자 극락왕생·명예회복 발원
불교 피해 진상규명·조치 요구



제주 4·3 사건 제78주년을 맞아 불교계가 서울 도심에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국가폭력의 진상규명과 책임 이행을 강하게 촉구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이하 사노위)는 4월 3일 서울 송현광장에서 ‘제주 4·3 제78주년 희생자 추모재’를 봉행했다. 이번 추모재는 제주 4·3 사건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당시 희생된 스님들과 도민들의 아픔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사노위원 스님들은 공원에 마련된 영단 앞에서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며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이날 동참자들은 제주 4·3 사건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노위원 혜찬 스님은 추모사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모든 영령들의 완전한 명예회복과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스님은 “국가는 희생자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와 유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국가폭력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제주 4·3 사건 당시 스님 16명이 희생되고 사찰이 전소되는 등 불교계 역시 큰 피해를 입었다”며 “이는 불교계에 대한 폭력뿐 아니라 제주도민의 정신적 기반을 파괴한 국가폭력”이라고 지적했다.〈사진〉

‘제주 4·3 특별법’은 2000년 제정 이후 수차례 개정됐지만 여전히 4·3을 폄훼·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역사 왜곡과 희생자 폄훼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태다. 특히 4·3 사건 당시 제주 사찰이 전소되고 스님들의 희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사노위는 “제주 4·3 특별법이 제정·개정됐지만 여전히 역사 왜곡과 희생자 폄훼가 이어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과 함께 제주불교 피해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가족과 불교계의 요구가 조속히 반영돼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제주 4·3 사건의 완전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불기2570년 ‘불자대상’ 후보자 공모

4월 17일까지, 조계종 총무부로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사회 각 분야에서 불교의 위상을 높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온 불자대상 후보자를 공모한다.

조계종은 오는 4월 17일까지 ‘불기 2570(2026)년 불자대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추천 대상은 △불법홍포 △한국불교의 위상 제고 △불자의 자긍심 고취 △종단 발전과 홍보 △국가 및 사회 발전 등에 공로가 큰 불자이며, 외국인과 고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

불자대상 추천 자격은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각 부서장 및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갖고 있다. 각 말사 주지는 교구본사 주지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각급 포교단체와 신도단체는 포교부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외의 자가 추천할 경우 사전에 총무원 총무부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출 서류는 조계종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으며, 추천서류와 공적사항 입증 서류를 작성해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55.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3층 총무부)로 제출하면 된다.

불자대상 시상식은 5월 24일 오전 10시 조계사서 봉행되는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진행된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이 수여된다. 02-2011-1706

김내영 기자

최고의 연등만을 고집해 온

대광불교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광불교
010-9446-1862 | 010-2788-7270
031)768-7270 | 031)768-7271
E-mail : hskhsg@naver.com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연등 자동 승강장치 시공



연화등 공단등

“팔만대장경 판각법 전승 체계 마련 필요”

해인사, 4월 9일 학술세미나 개최
역사·과학·예술·미래 가치 조망
전통각법 전승·활용 전략 모색

합천 해인사=성낙두 경남지사장

“팔만대장경 판각 기술은 고려시대 기술의 총체이자 예술성과 완성도를 겸비한 전통입니다. 해인사가 전통 판각법과 조판 기술, 장정 방식을 원형대로 계승·재현해 지속 가능한 전승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혜일 스님)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팔만대장경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올바른 계승 방안을 모색하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해인사가 추진 중인 팔만대장경 복각 불사의 의미를 재확인하고, 전통각법 기술의 전승과 미래 활용 전략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4월 9일 해인사 보경당에서 ‘팔만대장경, 그 찬란함’을 주제로 열린 학술세미나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총무원 문화부장 성원 스님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팔만대장경은 선조들의 간절한 서원과 불심이 일심으로 빚어낸 결정체”라며 “오늘 이 자리가 팔만대장경의 인류사적 가치를 다시금 확인하고, 그 속에 담긴 부처님의 지혜가 현대인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해인사가 4월 9일 보경당에서 ‘판만대장경, 그 찬란함’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지 혜일 스님은 기조강연에서 팔만대장경이 인류애게 주는 의미를 짚었다.

주지 혜일 스님은 기조강연에서 팔만대장경이 인류에게 주는 의미를 짚었다. 혜일 스님은 “우리 선조들이 전쟁이라는 가장 힘든 시기에 팔만대장경을 새긴 것은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와 미래에 대한 희망의 표현”이라며 “이 점에서 팔만대장경은 인간 정신의 승리를 상징하는 세계사적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팔만대장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지속가능한 가치에 대한 신념, 공동체적 연대의 힘, 정신적 가치의 회복, 위기 속 새로운 가치 창조라는 메시지를 전한다”며 “우리 또한 이 불확실한 시대에 새로운 ‘지혜의 대장경’을 써내려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미나에서는 고려시대 판각 사업의 실상을 분석한 연구와 디지털시대에 걸맞은 활용 방안을 제시한 발표가 이어졌다.

최연주 동의대 교수는 ‘경판에 새겨진 각수의 전승과 계승 발전’ 발표를 통해 팔만대장경 판각 사업이 고도의 조직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가적 프로젝트였음을 밝혔다. 최 교수는 “해인사가 전통 판각법과 조판 기술, 장정 방식을 원형대로 계승·재현해 지속 가능한 전승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상헌 상명대 교수는 ‘팔만대장경의 찬란한 미래’를 주제로 기록유산의 현대적 활용 가능성을 집중 조명했다. 김 교수는 그간 팔만대장경의 번역·전산화 등은 상당 부분 이뤄졌으나, 문헌 속에 담긴 의미와 맥락을 추출하는 ‘지능형 탐색’ 차원에서는 여전히 한계를 지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팔만대장경을 ‘지식정보 아카이브’이자 ‘헤리티지 IP’로 재개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대한 경전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활용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의 보조적 역할을 적극 도입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AI가 초안을 만들고 연구자가 이를 검증하며, 기관이 표준화와 품질 관리를 담당하는 삼중 구조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체계가 갖춰질 때 팔만대장경은 차세대 지식유산 플랫폼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세미나에서는 신은제 해인사 대장경연구원 상임연구원이 ‘팔만대장경 조성 당시 시대적 배경과 해인사의 역할’, 서정욱 충북대 교수가 ‘800여 년을 견딘 팔만대장경 판재의 과학적 특성’을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박용진 국민대 교수, 위광철 한서대 교수, 석혜영 경북대 강사, 조영훈 공주대 교수가 참여했다.

종합토론 후 참석자들은 해인사 장경도감 판각학교와 팔만대장경 DB 구축 사업 현장을 참관했다.

로터스월드·의령 연화사, 캄보디아 오지에 유치원 준공

‘리엡짜 초등학교 신축 프로젝트’
5년간 학교 재건…교육환경 개선

국제개발협력 NGO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 스님)와 의령 연화사(주지 진성 스님)가 캄보디아 농촌 지역 아동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유치원 건립을 지원했다.

로터스월드는 4월 4일 캄보디아 시엠립주 앙코르톰 지역 리엡짜 초등학교에서 유치원 준공식을 봉행했다.

이번 사업으로 신축된 유치원은 1개 동 2칸 규모로, 약 2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완공됐다. 그동안 교실 부족과 열악한 시설로 어려움을 겪던 122명의 학생들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로터스월드와 의령 연화사는 4월 4일 캄보디아 시엠립주 리엡짜 초등학교에서 유치원 준공식을 봉행했다.

특히 캄보디아의 경우 유치원 과정이 초등학교 내에서 운영되는 만큼, 이번 시설 확충은 저연령 아동들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는 데 의미를 더한다.

리엡짜 초등학교는 진성 스님의 원력으로 2022년부터 본격적인 재건이 이뤄진 곳이다. 과거 낡은 목조건물 한 동에 의존하던 학교는 비가 새는 등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운 환경이었고, 이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접한 진성 스님은 로터스월드와 협력해 학교 전면 재조성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후 2022년 교실 신축을 시작으로 놀이시설, 추가 교실, 도서관 건립이 순차적으로 이어졌고, 올해 유치원까지 완공되며 5년간 총 5개 동 10칸 규모의 교육시설이 구축됐다. 학교 측은 이러한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학교명을 ‘리엡짜-진성 초등학교’로 변경하기도 했다.

준공식에서 학생 대표는 린 소완나는 “진성 스님이 만들어준 학교는 단순히 공부하는 공간을 넘어 꿈을 키우는 소중한 장소가 됐다”며 “열심히 공부해 받은 도움을 잊지 않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용인 장경사 주지 정휴 스님과 총무 혜타 스님도 함께 해 체육용품과 간식을 전달하며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전했다.

임은호 기자

비구니회 ‘청정승가 수행결사’ 3차 입재

4월 6일, 만불전서 입재식
평등·본각 스님 등 지도



여성 출재가 수행자들이 사찰과 일상에서 책임을 다하면서도 수행자의 본분을 잊지 않고 한자리에 모여 정진하는 결사가 다시 시작됐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는 4월 6일 만불전에서 ‘2026년 청정승가공동체 수행결사 상반기 입재식’을 봉행했다.〈사진〉 입재식에는 회장 광용 스님과 원로의장 일법 스님을 비롯해 운영위원장 진명 스님, 수석부회장 수경 스님, 부회장 혜솔·혜욱 스님, 지도법사 평등 스님과 여성 재가 수행자 100여 명이 참석해 수행 의지를 다졌다.

이번 결사는 4년 수행을 목표로 출범한 전국비구니회 13대 집행부의 3년차 과정으로, 화엄·간화선 등 다양한 수행 체계를 아우르는 것이 특징이다.

상반기 수행결사는 7월 20일까지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내 삶과 마음공부, 그리고 선수행’을 주제로 지도법사 평등 스님(4월 6·20일, 6월 22일, 7월 20일), 전 비구니회장 본각 스님(5월 4·18일), 정각사 주지 정목 스님(6월 8일, 7월 6일)이 강의에 나선다.

하반기에는 비구니회 수석부회장 수경 스님이 〈선요〉와 〈서장〉을 중심으로 간화선 이론과 실참을 지도할 예정이다.

회장 광용 스님은 “수행은 나를 보호하고 사회를 정화하며 타인을 행복으로 이끄는 힘”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행을 위해 마음을 낸 자체가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좋은 것일수록 체득하기 어려운데, 수행이 그렇다”며 “그래도 이곳에 모여 있다면 스님들과 도반들과 법이 함께하니 머리를 싹 비우고, 오로지 나와 타인을 위해 수행에 집중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팔공산서 인연을…‘나는 절로 동화사’

5월 9~10일, 영남 거주 20명
4월 20일까지 재단 홈피 신청

전 국민적인 관심과 뜨거운 호응 속에 이어지고 있는 미혼남녀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가 가정의 달을 맞아 천년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대구 동화사에서 진행된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도륜 스님, 이하 재단)은 5월 9~10일 1박 2일간 대구 동화사에서 ‘나는 절로, 동화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영남권 거주자 및 연관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바쁜 일상 속에서 진중한 만남과 새로운 인연을 기다려온 이들에게 따뜻한 만남의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팔공산 자락에 위치한 동화사는 15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천년고찰이다. 통일약사여래대불을 비롯해 다수의 보물과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행과 치유가 공존하는 도량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러한 동화사의 청정한 환경 속에서 참가자들에게 깊은 울림과 새로운 인연의 의미를 전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대표이사 도륜 스님은 “천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화사는 마음을 쉬고 자신을 돌아보기에 가장 좋은 수행의 공간”이라며 “부처님오신날이 있는 5월, 따뜻한 연등을 밝히는 달인 만큼 새로운 인연과 마음을 밝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나는 절로, 동화사’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종교에 상관없이 영남에 거주하고 있거나 영남과 깊은 인연이 있는 2030 미혼남녀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4월 9일 오전 10시부터 4월 20일 오전 10시까지 조계종사회복지재단 홈페이지(www.jabinanum.or.kr) 공지사항 구글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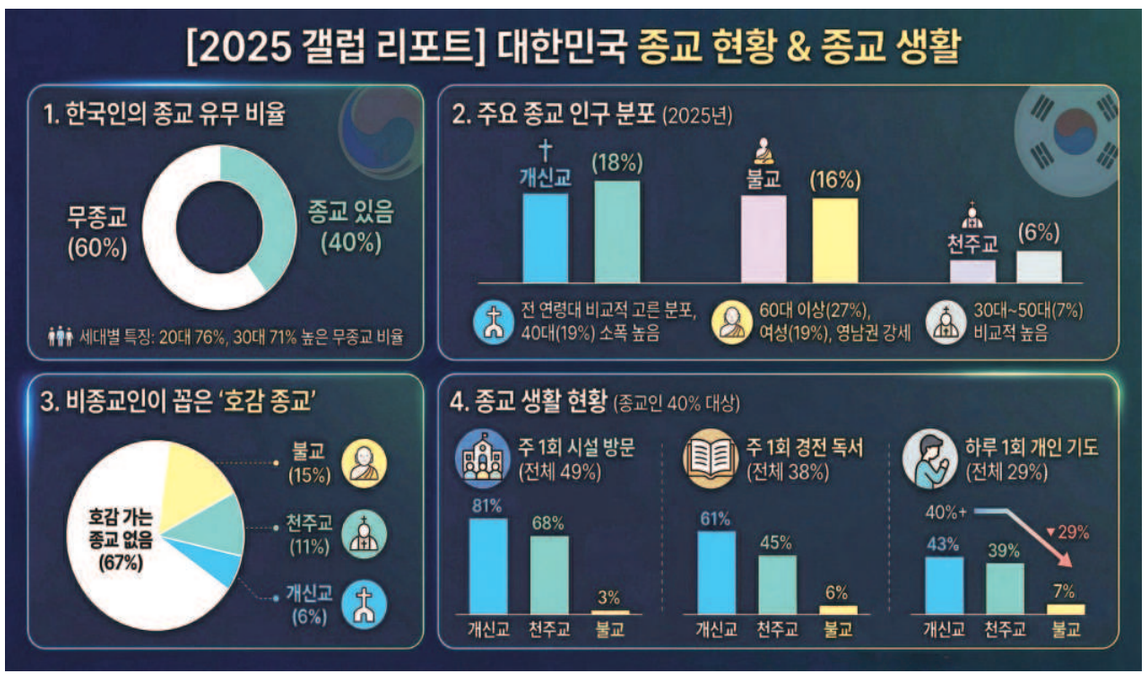
임은호 기자



“가정·일상 수행프로그램 보급을”

1면에서 이어짐

‘호감도’는 불교가 가장 높아
‘좋은 종교’지만 필요無 인식
기도·수행, 가정서 가능해야
조계종, 재가 포살법회 추진



해당 인포그래픽은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해인사 전 교수사 여운 스님은 “호감도가 높지만 참여율이 매우 낮은 역설적인 조사 결과는 불교가 긍정적인 이미지와 철학적 매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개인의 삶 속 실천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불교는 ‘좋은 종교’로는 인식되지만 정각 ‘필요한 종교’로는 작동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앞으로의 불교는 교리를 설득하는 종교가 아니라, 경험을 제공하는 수행으로 다시 자리매김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 이에 여운 스님은 “사람들은 더 이상 종교 공간을 일상적으로 찾아가려 하지 않는다. 대신 일상 속에서 적용 가능한 실천을 원한다”며 “좌선이나 법문을 사찰 안에만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감정과 관계, 노동과 갈등의 현장에서 작동하는 수행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불교는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살아지는 수행’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일상 속으로 신행과 수행을 가져오기 위한 가정법회 활성화를 주장하며 ‘불감(佛龕)’ 가정 보급 운동을 제언했다.

김 교수는 “불자 중에는 신행과 기도를 사찰에서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초하루 법회 정도만 참석하는데 1년이라 해도 12번 정도 사찰에 가는 것”이라면서 “일상 속 신행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가정법회가 활성화돼야 한다. 불감을 가정마다 보급해 매일 반야심경, 금강경 등을 독송하는 신행문화를 만든다면 불자들의 신행 밀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 포교부는 재가 불자 신행 활성화를 위해 재가자 포살법회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된 조계종 중앙종회 제237회 임시회의 종책질의에서 중앙종회의원 대진 스님은 “최근 갤럽 조사에서 불자들의 신행 참여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포교부장 정무 스님은 “수행공동체라는 방향은 변함없다”며 “올해 재가자를 대상으로 결계포살 등 수행 중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신도 5대 수행 지침을 통해 신행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가자 포살법회’는 조계종연구소가 지난해 처음 시행한 ‘종책제안서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향림 스님(봉녕사)의 ‘재가자 포살 실행 프로그램’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한 것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계율과 참회를 실천하는 수행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게 기획 목표다.

재가자 포살법회는 교구본사 등에서 우선 시범 운영되며, 하안거와 동안거 기간 보름이나 지정일에 걸쳐 연 2회 시행된다. 포살법회에서는 팔재계 계문 합송과 계율을 점검하는 재가자 포살본 독송과 108참회, 5분 선명상, 자애경 등 독송 등이 이뤄진다.

포교부는 3월 중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재가자 포살본 및 108참회문 등 프로그램을 개발을 진행해 올해 동안거부터 포살법회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신중일 · 하성미 · 김내영 기자

해외불교는 지금

달라이라마, 교황 평화 메시지에 지지 표명

3월 31일 공식 성명 발표
중동 · 우크라이나 평화 촉구



달라이라마가 공식 발표한 평화메시지.
사진 출처=달라이라마 공식사무국

세계 곳곳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티베트불교의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중동과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무력 충돌의 즉각적인 중단과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지난 4월 1일 해외불교 전문매체인 ‘부디스트도어 글로벌’ 등의 외신들은 달라이라마의 성명을 보도했다.

3월 31일 발표된 공식성명에서 달라이라마는 “역사는 폭력이 오직 또 다른 폭력을 낳을 뿐이며, 결코 평화의 지속적인 토대가 될 수 없음을 보여 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동이나 러시아-우크라이나의 분쟁을 포함한 모든 갈등의 지속 가능한 해결책은 반드시 대화와 외교, 그리고 상호 존중에 근간을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번 성명은 교황 레오 14세가 ‘주님 수난 성지 주일’ 강론에서 전쟁의 부당함을 지적한 직후 발표돼, 종교 간 화합과 평화의 메시지로 주목받고 있다. 당시 교황은 “전쟁을 거부하시는 하느님이시고, 그 누구도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용할 수 없는 하느님이시며,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물리치신다”며 전쟁과 폭력을 강력 비판했다.

이에 대해 달라이라마는 “레오 교황의 강력한 평화 메시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교황의 호소는 모든 주요 종교의 핵심 가르침”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불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 모든 영성 전통의 근본적인 메시지는 사랑과 자비, 관용, 그리고 자신을 절제함”이라며 종교적 명분이 폭력의 도구로 전락하는 현실을 경계했다.

달라이라마는 “우리는 가장 깊은 본질의 차원에서는 모두가 형제자매임을 알고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대화해야 한다”며 “폭력과 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달라이라마는 최근 건강 문제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 세계평화 등 주요 이슈에 지속적인 메시지를 내놓으며 세계인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제1회 법정 스님 학술상 논문 공모

접수는 7월 20일~8월 23일
수상자 11월 세미나서 발표
“법정 스님 사상, 학문으로”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이사장 덕조 스님)가 법정 스님의 삶과 사상을 학문적으로 조명하고 그 가르침을 오늘의 시대 속에서 새롭게 성찰하기 위해 ‘제1회 법정 스님 학술상’ 논문 공모를 실시한다.

‘법정 스님 학술상’은 무소유와 청정의 삶을 몸소 실천한 법정 스님의 사상을 학문적으로 계승하고 한국 불교사상의 현대적 의미를 넓혀가기 위해 올해 처음 제정됐다. 아울러 스님의 삶과 가르침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연구자를 발굴·지원하고 수행과 사유가 함께하는 학문적 전통을 이어가고자 마련됐다.

주제는 ‘법정 스님의 삶과 사상에 관한 자유 주제’이며 스님의 가르침에 관심 있는 석사과정 이상 연구자(대학 전임교원 제외)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7월 20일부터 8월 23일까지 대표이메일(clean94@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수상자는 9월 28일 이후 개별 통보한다. 대상 1명 500만원, 최우수상 1명 300만원, 우수상 1명 200만원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2026년 11월 8일 길상사 설법전에서 열리는 ‘제2회 법정 스님 학술세미나’에서 진행되며 수상자는 논문을 발표하게 된다. 수상 논문은 〈세계불교학연구〉 특집으로 게재될 예정이다.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이사장 덕조 스님은 “법정 스님의 삶과 사상은 물질 중심 사회 속에서 인간과 사회의 방향을 성찰하게 하는 중요한 정신적 자산”이라며 “이번 학술상이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학문적으로 계승하고 한국 불교 사상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 개최되는 학술상을 통해 무소유 사상을 비롯한 다양한 연구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논문 접수 및 자세한 사항은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www.clean94.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02-741-4696

임은호 기자

불교문예연구소 ‘불교의례’ 춘계대회

4월 24일 동방문화대학원대학 호운관서

불교의례와 수륙재의 사상적 특징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동방문화대학원대학 불교문예연구소는 4월 24일 오후 1시 10분 교내 호운관에서 ‘불교의례, 수륙재의 사상적 특징’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연다.

조계종 어산학교장 법안 스님의 ‘의례와 종교의 상관성과 그 의의’ 주제의 기조강연으로 시작을 알리는 학술대회에서는 수륙재에서 확인되는 천태·선사상 등을 살펴보는 연구 논문들이 발표된다.

이성운 동방대학원대학 교수는 ‘지반의 수륙재의문에 나타난 천태사상’을, 동방대학원대학 교수 명조 스님은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와 선사상’을, 심일종 서울대 교수는 ‘조선전기 유교와 수륙의문의 영향관계-〈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의 사례를 중심으로’를, 손인애 서울대 교수는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와 불교음악’를 각각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지혜경(연세대)·오용석(원광대)·민순이(서울대)·윤소희(동국대) 교수가 참여한다. 신중일 기자

중국 아미산,낙산대불,대족석굴 5일
보현보살의 도량 아미산과 낙산대불,
중국 4대석굴중에 하나인 대족석굴 순례
6월10일 출발~14일 도착
▶ 동참금 : 149만원

중국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 성지순례 5일
1,500년전에 조성된 운강석굴과
문수보살의 화현처 오대산 순례
6월07일 출발~6월11일 도착
▶ 동참금 : 159만원

오대산과 조주,임제선사 7일
운강석굴과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과 조주, 임제선사 순례
출발일 : 5월 27일 출발~6월 2일 도착
▶ 동참금 : 189만원

중국 실크로드 성지순례 10일
삼장법사 현장스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최고의 순례 길
6월04일 출발~6월13일 도착
■ 일정: 인천-서안(진시황병마용갱,화청지)-법문사(부처님불지사리)-천수(맥적산석굴)-난주(병령사석굴)-장액(대불사)-칠채산(일곱빛깔 무지개산)-가욕관·돈황(막고굴,명사산)-유원-투루판-우루무치(천산천지)-인천
▶ 동참금 : 349만원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대탑 5일
보로부두르 대탑은 세계최대의 불탑으로 462개의 벽면에
부처님의 생애가 조성되어 있으며 화엄경에서 선재동자가
54선지식을 찾아가는 내용도 조성한 화엄경의 성지입니다.
6월18일 출발~6월22일 도착(5일간)
▶ 동참금 : 문의

인도 히말라야 라다크 순례 8일
고색창연한 티베트 사원들과 천년벽화의 신비 알치곰파
그리고 유명한 헤미스사원 축제
6월21일 출발~6월28일 도착
■ 일정: 델리-라다크(레)-알치-라마유루-레-헤미스-판공호수-레-델리
▶ 동참금 : 369만원

티베트 순례 칭짱열차 8일
라싸-갼체-시가체-삼예-칭짱열차-서녕-서안 등
티베트 주요 성지순례 일정입니다.
6월06일 출발~6월13일 도착
▶ 동참금 : 문의

우주의 중심-
티베트 수미산 순례 16일
부처님의 탄생과 같은 말띠 해인 2026년도는
12년 만에 찾아오는 성스러운 수미산 순례의 기회입니다.
6월16일 출발~7월01일 도착
▶ 동참금 : 570만원

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9일
10월02일 출발~10일 도착
■ 일정: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영축산-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아그라-델리-인천
▶ 동참금 : 279만원

인도 관광여행 9일
10월02일 출발~10일 도착
■ 일정: 인천-델리-바라나시-카주라호-잔시고성-아그라-자이푸르-델리-인천
▶ 동참금 : 문의

백두산, 고구려유적 순례 5일
6월25일 출발~6월29일 도착
■ 일정: 인천-연길-백두산 천지(북파,서파 2곳 등정)-집안(고구려 옛수도-광개토대왕비)-심양-인천
▶ 동참금 : 159만원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마음여행사 검색

통도사, 1400년 전통 '보살계 수계산림' 연다

4월 21일~23일 설법전서 봉행
신라 자장 율사 이래 전통 이어져
대승불교 실천 윤리 '범망계' 설해
'영축장학금' 전달 인재 불사 의미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통도사는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금강계단에서 '보살계 수계산림'을 봉행한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보살계 수계산림 대법회 모습. 현대불교신문 자료사진

영축총림 통도사가 1400년 전통의 청정 계맥을 잇고 일상 속 자비 실천을 다짐하는 대규모 법석을 연다.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는 대승보살의 실천 계율을 설하고 불자들의 신심을 다지는 '불기 2570년 보살계 수계산림'을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봉행한다.

매년 음력 3월에 열리는 통도사 보살계 수계산림은 신라 자장 율사가 서기 646년 당나라에서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금란가사를 모셔와 금강계단을 축조하고 계를 설한 데서 유래한다. 통도사는 1400여 년간 이어져 온 이 전통을 바탕으로 한국불교의 계맥(戒脈)을 잇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수계산림에는 영축총림 전계사 덕문 스님을 비롯해 갈마아사리, 교수아사리 등 3사와 7증사 스님이 법좌에 올라 수계 제자들에게 대승계율의 정수인 '범망계'를 중점적으로 설한다.

3일간의 법석을 통해 설해지는 내용은 범망계의 10중계와 48경계다. 10중계는 범했을 경우 승가 공동체에서 즉시 파문을 당하게 되는 가장 엄중한 계율이며, 48경계는 '술을 마시지 말라' 등 일상에서 불자들이 지켜야 할 실천 지침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수계자들은 이타심을 바탕으로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자리이타'의 보살 정신을 일상에서 실천할 것을 서원하게 된다.

보살계산림은 4월 21일 오전 9시 30분 설법전에서 입재 불공으로 막을 올린다. 이어 오전 10시 30분 입재식을 거행한 뒤, 공양 후 오후 2시부터 본격적인 설계(說戒)가 진행된다.

둘째 날인 22일에는 오전 9시 30분 불공에 이어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설계가 이어진다. 그동안 수계자들은 과거에 지은 신·구·의 삼업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청정한 계율을 담기 위해 마음을 비우는 참회 정진을 갖는다.

회향일인 23일에는 오전 7시 계첩 배부를 시작으로 오전 8시 불공, 오전 9시 10분 수계식이 봉행된다. 특히 수계식에서는 무시이래의 죄업을 향불로 태우는 연비 의식이 진행되며, 이후 가사를 수한 대중이 일제히 금강계단을 도는 장엄한 탑돌이가 이어질 예정이다.

통도사는 보살계의 지속적인 수지와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매년 다회 동참자들을 포상하고 있다. 올해도 수계산림에 10회, 15회, 20회 동참한 불자에게는 '기념 메달'을 수여하며, 25회부터 40회까지 5회 단위로 성만한 불자에게는 '성만패'를 증정해 신심을 찬탄한다.

아울러 회향식에서는 영축총림 재적 스님들을 대상으로 우수 장학승을 선발해 '영축장학금'을 전달한다. 이는 계율 도량의 전통을 잇는 동시에 종단의 미래를 이끌 후학 양성에도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주지 현덕 스님은 "보살계 수계산림은 탐욕과 갈등으로 얼룩진 현대 사회에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 정신을 구현하겠다는 대승보살의 숭고한 서원"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원로의원 지하 대종사 49재 막재 엄수

4월 3일 부산 미타선원서
"영원한 귀감으로 남을 것"


4월 3일 부산 미타선원에서 엄수된 지하 대종사 49재 막재에는 종단 주요 대덕 스님들과 사부대중이 참석해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조계종 원로의원이자 제12·13대 중앙종회의장, 중앙승가대학교 총장을 지내며 한국 불교의 발전에 이바지하다 지난 2월 14일 원적에 든 지하당(地下堂) 법융(法融) 대종사가 49재 막재를 끝으로 영원한 적멸에 들었다.

4월 3일 부산 미타선원에서는 지하 대종사의 49재 막재가 봉행됐다. 이날 법석에는 명예원로의원 설정 대종사, 금정총림 방장 정여 대종사, 전 포교원장 혜총 대종사를 비롯해 원로의원 법타·영담 대종사, 고시위원장 수진 스님 등 종단의 주요 대덕 스님들이 참석해 대종사의 마지막 가는 길을 추모했다. 아울러 쌍계사 주지 지현 스님과 본말사 스님들, BBS부산불교방송 사장 원허 스님 등 각계 사부대중이 모여 스님의 유훈을 기렸다.

49재는 종사영반과 헌다, 헌화로 이어진 명복 의식 후, 참석자들은 생전 지하 대종사의 법문 영상을 시청하며 스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다.

설정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고인과 선방에서 탁마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지하 스님은 일평생 종단을 위해 헌신하시면서도, 수행자로서 본래면목을 찾기 위한 치열한 정진을 결코 놓지 않으셨던 분"이라고 회고했다. 이어 "생자필멸의 이치에 따라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스님이 남기신 족적은 후학들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을 것"이라며 대종사가 속히 사바세계로 돌아와 중생을 제도해 주기를 간절히 발원했다.

문도 대표 중현 스님은 "갑작스러운 입적으로 경황이 없는 가운데서도 대중 스님들의 배려로 다비와 장례를 원만히 모실 수 있었다"며 "스님을 곁에서 모시며 배운 묵직한 가르침을 평생의 지표로 삼아 쉼 없이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화엄사, 해동용궁사서 방생법회 '생명존중의 장'

4월 4일, 사부대중 800여 명
"나와 타인 동등하게 존중"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우석 스님)가 4월 4일 관음성지인 부산 해동용궁사에서 '본·말사 합동 방생법회'를 봉행하며 생명존중 사상 고취와 교구 화합의 장을 열었다.

화엄사 본사와 말사가 뜻을 모아 대규모 합동 방생법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대승불교의 핵심 가치인 자비행을 사회에 구현하겠다는 실천적 의미가 담겼다.

이날 법회는 강풍과 거센 파도가 이는 궂은 날씨 속에서 진행됐으나, 전국 각지에서 800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해 결속력을 보여줬다. 본사 화엄사를 비롯해 구례 천은사와 사성암, 여수 향일암, 광주 빛고을포교원, 경기 영응사, 울산 도솔암, 순천 정혜사 등 전국의 말사 신도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화엄사 주지 우석 스님은 법어를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타인의 생명도 동등하게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추는 것이 방생의 진정한 의미이자 기본 원칙"이라고 설했다. 이어 "이 거센 비바람 속에서도 주변 이웃들과 기꺼이 함께하겠다는 굳건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낸 우리 모두에게 스스로 큰 박수를 보내자"고 대중을 격려했다.

해동용궁사 주지 덕림 스님은 "해동용궁사에서 제19교구가 한마음으로 첫 합동 방생법회를 열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용왕 방생의 수승한 공덕으로 각 가정에 화목과 행복이 깃들고, 이웃을 향한 자비행이 널리 퍼져나가 우리 사회의 모든 일이 걸림 없이 원만히 풀리기를 발원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만오 스님 원력 이을 무료급식소 개원

약사정사 '만오밥상' 불사 회향
200석 규모…5월 1일부터 급식



진주 약사정사(주지 진여 스님)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급식소 '만오밥상' 건립 불사를 회향하고 4월 5일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주지 진여 스님은 인사말에서 "오랜 원력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공양과 나눔의 도량을 세우고자 했으나 여건상 쉽지 않았다"며 "만오 큰스님의 뜻과 신도들의 원력으로 만오밥상을 건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무료급식을 넘어 어르신 돌봄과 요양까지 이어지는 도량으로 발전시켜 지역과 함께 호흡하는 자비 실천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전 통도사 승가대학장 우진 스님은 법문에서 "나눔과 자비행이 이어질 때 지역사회가 밝아지고 불법이 생활 속에서 구현된다"며 "만오밥상이 단순한 급식소를 넘어 마음을 나누는 수행 도량으로 자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만오밥상은 59평 대지에 지상 2층 규모의 철골 구조로 건립됐다. 지난해 9월 불사를 시작해 최근 준공 승인을 받았다. 200여 명이 공양할 수 있는 규모로, 오는 5월부터 매월 1회 급식을 시작해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약사정사는 신도들의 4000일 기도 회향을 기념해 경상국립대학교 불교학생회 연화회에 장학금 300만원, 보리수동산에 후원금 300만원을 전달하며 수행의 공덕을 지역사회에 회향해 의미를 더했다.

한편, 법회 후 약사여래불 점안과 만오 스님 1주기 추모다례가 봉행돼 사부대중은 만오 스님의 원력과 수행 정신을 되새겼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빛의 도량' 울산태화가람대축제 출범

4월 3일, 울산 만디서 출범식
연등행렬 · 사찰음식축제 개최



울산불교종단연합회(회장 혜원 스님)는 4월 3일 태화복합문화공간 만디 3층 교육관에서 불기2570년 울산태화가람대축제 출범식을 봉행했다.

울산불교종단연합회장이자 봉축위원장인 혜원 스님은 출범사에서 "울산태화가람대축제는 기존 연등축제를 기반으로 전통 계승과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새로운 축제로 재정비한 것"이라며 "울산의 정신과 신라불교의 맥을 잇는 대표 문화축제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봉행위원장 혜진 스님은 "연등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고 사찰음식 나눔으로 자비를 실천하며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시민 참여형 축제로 확대했다"며 "사찰과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원만한 회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태화가람대축제는 5월 8일부터 10일까지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 둔치 일원에서 열린다. '지혜로 잇다, 자비로 짓다'를 주제로 연등의 상징성과 사찰음식 나눔의 의미를 함께 담았다. 행사는 태화강 연등축제를 중심으로 국제사찰전통음식문화축제와 태화강 낙화놀이를 결합한 불교문화 프로그램으로 꾸려진다. 특히 연등행렬은 행사장 내부 순환형으로 운영돼 시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태화강 일대를 '빛의 도량'으로 구현할 계획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부산 견강암 '짜장면 만발공양'

4월 '짜장데이' 맞아 1500인분



부산 사상구 나눔 실천 도량 견강암(주지 향공 스님)이 지역 어르신들의 입맛과 활력을 돋우는 짜장데이를 선사했다.

견강암(주지 향공 스님)은 4월 8일 고동바위 공원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짜장면 만발공양'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매월 정기적으로 시행해온 무료 급식 공양의 일환으로, 특히 4월 봄날과 짜장데이를 기념해 어르신들에게 별미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공양을 위해 견강암은 총 1500인분의 면과 소스를 준비했다. 본격적인 배식이 시작되자 모라동 일대 어르신 1000여 명이 현장을 찾아 성황을 이뤘다.

현장에는 견강암 신도회와 봉사단체 회원 30여 명이 팔을 걷어붙였다. 주지 향공 스님은 직접 짜장 소스를 담으며 대중과 소통했다.

향공 스님은 "봄철 어르신들의 기력을 보하고, 정겨운 얼굴들을 다시 마주할 수 있어 기쁘다"며 "작은 국수 한 그릇, 짜장면 한 그릇에 담긴 부처님의 자비심이 지역 사회에 널리 퍼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 원오사, 차 한잔에 담은 명상

4월 3일 원오사 경내 일대



부산 원오사(주지 정관 스님)가 4월 3일 경내에서 부산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차명상 전문가반 27명이 참여한 가운데 차명상을 실시했다. 이날 프로그램은 이론 중심 교육을 넘어 실제 수행과 체험을 결합한 현장형 교육으로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공양게송을 시작으로 솔바람 명상길 걷기명상, 대웅전 108배 명상, 다목적실에서의 차명상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체험하며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차밭 사이로 이어진 명상길과 사찰 공간을 활용한 수행 프로그램은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했다. 이어진 차명상 시간에는 원오사 차밭에서 수확한 '원오사 발효차'를 정관 스님이 직접 우려내 참가자들에게 공양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주지 정관 스님은 "차를 마시며 맑은 정신을 함양해 일상에서도 청정함을 유지하길 바란다"며 "오늘의 경험이 수행의 씨앗이 되어 보살마하살의 길로 나아가길 기원한다"고 환영 인사를 전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취봉장학회, 인재불사 장학금 전달

창원 불곡사, 4월 2일 전달식



창원 불곡사(주지 도홍 스님)는 4월 2일 관음전에서 제6회 취봉장학회 장학금 나눔 법회를 봉행했다.

취봉장학회 대표 묵암 스님은 봉행사에서 "취봉 스님 열반 24주기 추모 다례재와 장학금 전달식을 함께 봉행하게 돼 뜻깊다"며 "사부대중의 십시일반 정성으로 마련된 장학금이 청소년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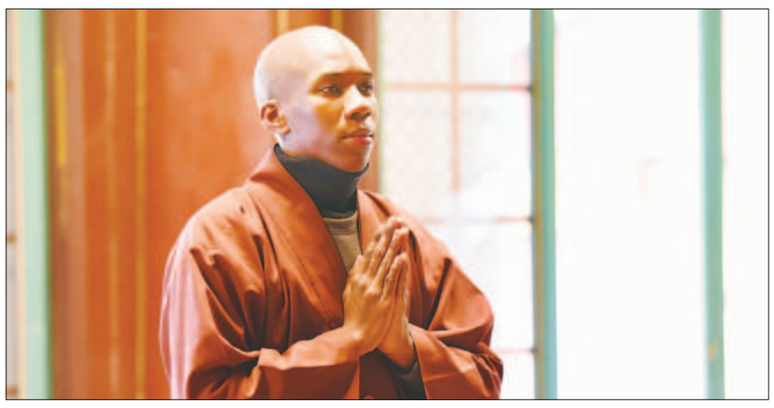
주지 도홍 스님은 인사말에서 "취봉장학회는 기금 1억원을 넘어선 지역 장학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타적 보살정신을 바탕으로 수행과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장학금은 총 550만원이 전달됐다. 동국대학교 WISE 불교학과 지홍 스님과 마산간호대학교 이선영, 마산대학교 김대윤, 대구보건대학교 박현민, 중앙대학교 한서윤 학생에게 각각 100만원이 전달됐다. 또 경남관광고등학교 김미진 학생에게는 50만원이 전달됐다. 성낙두 경남지사

탄자니아 첫 출가자, 무명초 자르다

백양사, 지미 존 행자 삭발식
탄자니아 보리가람대학 출신
한 달간 행자로 백양사 생활
"학업 마치고 정식 출가할 것"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조계종 탄자니아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의 재학생인 지미 존 므와카툼불라가 백양사에서 출가해 행자 생활을 시작했다.

조계종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불교 전법의 인연을 맺은 지 10년 만에 현지 출신 첫 출가 예정자가 나왔다.

조계종 제18교구본사 백양사(주지 무공 스님)는 4월 6일 대웅전에서 탄자니아 출신 지미 존 므와카툼불라(22)의 행자 삭발식을 봉행했다. 지미 존 행자는 조계종이 설립한 탄자니아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재학생으로, 불교에 귀의해 수행자의 길을 걷기 위해 한국을 찾아 행자 생활을 시작했다.

이날 삭발식에서 주지 무공 스님은 "오늘 출가하는 행자가 수행자의 길을 잘 걸을 수 있도록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길 바란다. 멀리 탄자니아에서 한국에 와 부처님께 귀의한 만큼 낯선 환경 속에서도 수행자의 길을 성실히 걸어 훌륭한 수행자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언어와 음식 등 여러 어려움 또한 수행의 과정으로 삼아 정진하고, 부처님과 대중 앞에 서원한 마음을 끝까지 지켜 수행자의 삶을 이어가길 기원한다"고 축원했다.

지미 존 행자는 삭발에 앞서 고국 탄자니아를 향해 부모님께 삼배를 올리며 출가를 알렸고, 이어 대중 스님들에게 삼배를 올린 뒤 삭발 의식에 임했다. 무공 스님은 삭발의 의미에 대해 "앞에서부터 깎는 것은 깨달음을 먼저 이루고 수행을 이어가는 의미를, 뒤에서부터 깎는 것은 수행을 통해 본성을 깨달아 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인연 따라 수행과 깨달음을 함께 이루어 가라는 뜻에서 중앙부터 삭발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삭발을 마친 지미 존 행자는 "행자가 되어 매우 기쁘고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 훌륭한 스님이 되고 싶다"며 "스님이 된 뒤에는 탄자니아로 돌아가 불교를 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발원했다.

지미 존 행자는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원예과 3학년에 재학 중이며, 교내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익혀 지난해 말하기대회에서 우승하며 한국을 방문한 바 있다. 이후 한국에서 불교를 접한 뒤 보다 깊이 공부하고자 출가를 결심했으며, 가족의 동의를 얻어 다시 입국했다.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3월 25일 지미 존 행자의 예방을 받고 "미래의 희망을 갖고 스님이 되기 위한 교육과 수행의 과정을 잘 이겨내기 바란다"며 "스님이 되면 많은 사람을 돕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현재 지미 존 행자는 아름다운동행 탄자니아지부 법인처장 선정 스님의 지도로 매일 새벽예불과 염불, 목탁 습의 등에 정진하고 있다. 한 달간 백양사에서 행자 수행을 이어간 뒤 탄자니아로 돌아가 학업을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정식 출가 수행을 이어갈 계획이다.

"도형 대종사 가르침, 이어가겠습니다"

대흥사서 영결 · 다비식 엄수
"평생 강맥 이은 대강백" 추모



전 대흥사 주지 계월당 도형 대종사의 영결식이 4월 8일 대흥사 보현전에서 엄수됐다.

한평생 교학과 수행으로 후학을 길러온 대강백의 마지막 길이 두륜산 자락에서 엄숙히 이어졌다.

조계종 제22교구본사 대흥사(주지 법상 스님)는 4월 8일 경내 보현전 일원에서 계월당 도형 대종사의 영결식과 다비식을 엄수했다.

이날 영결식에는 명예 원로의원 암도 스님, 조실 보선 스님, 주지 법상 스님을 비롯해 보각·월우 스님과 문도, 신도 등 사부대중이 동참해 스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주지 법상 스님은 영결사에서 "스님께서는 평생 부처님 가르침을 두루 섭렵하며 교학의 깊이를 다지셨고, 이후 강주로서 30여 년간 후학을 양성한 삶은 한국불교 교학사의 한 축을 이룬다"며 "특히 산중에 머무르지 않고 불교대학과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청년과 어린이, 재가불자들이 함께하는 도량을 구현한 것은 살아 있는 불법의 실천이었다"고 추모했다.

이어 "스님께서 남기신 가르침은 제자들의 수행과 중생을 향한 자비실천 속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실 보선 스님은 법어를 통해 "스님과의 인연은 60여 년에 이른다"며 "스님께서 산중에 머무르며 두륜산의 가풍을 바로 세워 사부대중이 수행과 정진의 길을 올바르게 걸을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두륜산의 밝은 달은 더욱 빛나고, 그 달을 따르던 이는 이제 어디에 있는가. 두륜산 마루에 다시 달이 오른다"고 애도의 뜻을 전했다.

월우 스님은 조사에서 "보현전에서 영정을 마주한 사제의 마음이 무겁기만 하다"며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스님의 가풍을 다시 한번 대중 앞에 드러내 주시기를 바란다. 제자들도 그 강맥을 이어 화합과 수행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문도대표 정상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은사의 마지막 가르침을 전했다. 정상 스님은 "스님께서는 말년에 '육자대명왕 진언을 얻은 것이 가장 큰 깨달음'이라 하시며 평생 잊지 말 것을 당부했다"며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데 대한 송구함이 크다"고 밝혔다.

영결식을 마친 뒤 법구는 인로왕번을 선두로 명정과 불번, 위패와 영정, 법주와 상좌, 장의위원, 사부대중이 뒤따르는 장엄한 행렬 속에 2km 떨어진 다비장으로 이운됐다. 이어 연화대에 안치된 법구는 거화와 함께 적멸의 길로 나아갔다.

도형 스님은 대흥사에서 천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0년 용암사에서 사미계를, 1967년 해인사에서 비구계를 수지했다. 범어사 불교전문강원과 승가대학 강주를 역임했으며 2000년부터 대흥사 강주로서 후학 양성에 매진했다. 4월 6일 원적에 들었으며 법납 67년, 세수 78세다.

해남 대흥사=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선운사 단기출가학교 2기 고불식

4월 3일 남성 7명 · 여성 4명
9박 10일간 수행자 삶 체험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는 4월 3일 대웅보전에서 '선운사 제2기 단기출가학교 쉼, 그리고 시작' 고불식을 봉행했다. 2기 과정에는 12세 청소년부터 71세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과 1쌍의 부부 등 남행자 7명, 여행자 4명 등 총 11명이 입교했다.

참가자들은 4월 12일까지 9박 10일 동안 수계 의식, 새벽예불, 사찰 예절, 부처님 생애 학습, 초발심자경문 강의, 명상, 108대참회, 참선 등 엄격한 수행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주지 경우 스님은 부주지 운천 스님이 대독한 환영사를 통해 "단기출가학교는 멈춤의 자리이자 자신을 돌아보는 수행의 시작"이라며 "부처님께서 깨달음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바라보는 데에서 시작된다고 하셨듯 이곳에서의 경험은 절대 짧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함께 수행하는 도반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길 바란다"며 "오늘 내딛는 첫 발걸음이 여러분 삶의 방향을 밝히는 소중한 전환점이 되고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그 평온함이 오래도록 이어지길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포교부장 정무 스님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출가는 익숙한 나를 부수고 진정한 나로 거듭나는 위대한 선언"이라며 "정보는 넘쳐나고 연결은 촘촘해졌지만, 영혼은 고립되고 빈곤해진 과잉의 시대에 여러분이 보여준 용기 어린 결단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운문사 명성 스님, 동국대에 1억원 쾌척

로터스관 건립 기금으로 전달
교수 스님들도 2000만원 기부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이 4월 6일 죽림헌에서 동국대 로터스관 건립 기금 1억원을 기탁했다. 동국대 동문인 운문사 교수 스님들도 뜻을 모아 2000만원을 전달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과 윤재웅 총장 등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해 운문사 대중의 귀한 정재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회주 명성 스님은 "불교의 미래는 교육과 수행의 균형 속에서 더욱 밝아질 것"이라며 "좋은 곳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동참한 교수 스님들 역시 "출가 수행자뿐 아니라 재가 불자 교육까지 아우르는 불교 교육기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정성이 불교 인재 양성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동국대가 건학 120주년을 기념해 추진 중인 '로터스관'은 2028년 8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로터스관은 본관과 별관 2개동으로 구성된다. 본관은 지하 3층 지상 3층(2422평), 별관은 지하 6층 지상 2층(5585평)으로 연면적 합계 2만6470㎡(8007평) 규모로 건립된다. 시설로는 △박물관 및 수장고 △선센터 △러닝 커먼스 △대형 교육공간 △명예의 전당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사장 돈관 스님은 "평소 비구니 승가 발전과 후학 양성에 헌신한 명성 스님의 원력 어린 보시에 깊이 감사하다"며 "스님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로터스관을 건학 이념이 구현되는 최고의 교육 도량으로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수산당 지종 대종사 부도탑비 제막

불갑사, 14주기 다례재서



영광 불갑사(주지 법상 스님)는 4월 2일 고불총림 3대 방장을 역임한 수산당 지종 대종사의 열반 14주기를 맞아 부도·부도탑비 제막 및 추모 다례재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성오 스님을 비롯해 백양사 수좌 일수 스님과 원로 진공·수인·명공·원진·정연 스님, 내소사 조실 철산 스님,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 염불원장 도성 스님 등 백양사 문도 스님들과 불갑사 주지 덕상 스님, 신도들이 동참해 대종사의 수행과 원력을 기렸다.

불갑사 주지 덕상 스님은 경과보고를 통해 "문도제자들을 중심으로 부도탑비 조성을 결의하고, 문도 스님들과 신도들의 십시일반 정성으로 원만히 회향하게 됐다"며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대종사를 모실 수 있게 되어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사리탑비는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 탑비를 모본으로 익산 황등석과 보령 운천 오석을 사용해 조성됐으며, 비문은 원각 스님이 짓고 나익환 장인이 새겼다.

수산당 지종 대종사는 조계종 원로의원을 역임하고, 불교종립 정광학원 이사장으로 인재 양성에 힘쓰는 한편 1998년 불갑사 선원을 개원해 수행도량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불갑사 복원불사와 영광 법성포 백제불교최초도래지 성역화 불사에 기여했으며, 2004년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으로 추대됐다. 2012년 3월 7일 불갑사에서 법납 73세, 세납 91세로 열반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화엄사 템플스테이 '새 단장'

리모델링 거쳐 5개월 만에 재개장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우석 스님)가 템플스테이 공간을 새롭게 단장하고 운영을 재개했다.

화엄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된 리모델링을 마치고 템플스테이를 다시 열었다"고 4월 7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머무는 이들의 체험과 감각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연수국장 연우 스님은 "눈에 보이는 변화보다 머무름의 질을 높이는 데 의미를 두었다"며 "숙소와 공용공간을 정갈하게 정비하고 동선을 개선해 이용자의 불편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소한 불편이 사라진 자리에서 고요함이 더욱 또렷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리모델링은 화엄사 고유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연과 건축,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공간 구성으로, 방문객들이 보다 깊이 있는 휴식과 성찰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롭게 문을 연 화엄사 템플스테이는 사찰음식 체험과 차담, 명상 등 전통 수행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제1회 용화사 동요대회 성료

4월 3일 10개 어린이집 참가



청주 용화사(주지 각연 스님)의 만개한 벚꽃 아래 천진불들의 합창이 울려 퍼졌다.

용화문화교육원은 4월 3일 용화사 특설무대에서 '2026년 무심천 용화사 벚꽃축제와 힐링콘서트' 일환으로 '제1회 어린이 동요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는 지역 10개 어린이집이 참가한 가운데 원아와 학부모, 교사 등 160여 명이 함께했다.

범성 스님은 주지 각연 스님을 대신한 환영사에서 "이 자리는 경쟁보다 어린이들이 준비한 무대를 마음껏 펼치는 자리"라며 "즐겁게 노래하며 좋은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연에서는 10개 어린이집 다양한 동요 무대를 선보였다. 심사 결과 대상은 보리수어린이집, 최우수상은 365열린어린이집, 우수상은 시립율량3어린이집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인기상은 용정어린이집, 장려상은 선광키즈어린이집·롯데캐슬키즈어린이집·서청주어린이집·목령어린이집·서광어린이집·용암어린이집 등 6개 팀이 수상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문경 대승사, 아미타여래좌상 불사 회향

4월 5일, 극락전서 점안식



문경 대승사(주지 효원 스님)는 4월 5일 극락전에서 금동아미타여래좌상(보물) 중수·복장·개금불사를 원만 회향하고 점안식을 봉행했다. 법회에는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해 불사의 원만 성취를 찬탄하고 공덕 회향의 뜻을 함께했다.

금동아미타여래좌상은 대승사를 대표하는 성보로, 오랜 세월 금박층 마모와 균열, 칠층 내부의 기포와 들뜸 현상이 나타나 보존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전 주지 일균 스님이 2024년 보존처리 불사를 시작했다.

이날 점안식에는 수좌 의성 스님을 비롯해 보각·월우 스님과 문도, 신도 등 사부대중

5만명 참여로 '선명상' 관심 입증…"이젠 전국으로"

2026 서울 국제선명상대회 성료

4월 3~5일, 서울 봉은사 일대서
진우 스님 "마음 평화 찾아가길"
사경 · 선태극권 등 41개 프로그램
20~30대 55.9%…전국 9곳 개최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AI시대, 현대인들의 불안과 스트레스 등 정신적 문제를 회복하기 위한 마음 평안의 방안으로 선명상을 제시하는 국제선명상대회가 5만여 명의 방문으로 높은 관심을 입증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4월 3일부터 5일까지 서울 봉은사 일대에서 '2026 서울 국제선명상대회'를 성료했다. 'AI시대의 선명상'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선명상이 지닌 치유와 수행의 가치를 조명했다.

4월 3일 봉은문화회관에서 열린 개막식에서 진우 스님은 환경, 생명, 건강의 가치가 중요해진 현시대에 선명상은 세계 인류의 삶을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잡았다고 평가했다. 스님은 "첨단과학의 발전은 편의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을 해소하지 못한 채 새로운 과제를 남겼다"며 "선명상은 우리 안에 본래 갖춰져 있는 맑고 고요한 본성을 회복하는 정신문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진우 스님은 "2026 국제선명상대회에서는 움직임과 소리, 맛과 향 등 다양한 방편으로 오감을 깨우는 수행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체험의 모습은 다양할지라도 결국 그 본질은 건강과 행복, 깨달음을 회복하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회를 통해 선명상의 지혜가 널리 퍼져 현대인들이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자비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랐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선명상의 방향성을 짚었다. 스님은 "명상의 방향이 없다면 그건 그저 '멍 때리기'일 뿐"이라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개인의 깨달음과 중생의 행복을 위한 수행으로 선명상을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경 스님은 전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문제도 언급했다. 스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나라가 안전하려면 다른 나라의 안전도 지켜줘야 한다"며 "대회를 통해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보는 시간도 가져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4월 3일 열린 '2026 국제선명상대회' 개막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주요 내빈들이 삼귀의례를 하고 있다.



진우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선명상으로 현대인들이 평화를 되찾길 기원했다.


진우 스님과 불산 스님 등이 선명상 실참을 이끌고 있다.



미산 스님과 차지호 의원의 선명상 포럼 모습.


선명상축제에서는 41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등운 스님(고운사 주지)은 전국 9개 지역에서 펼쳐질 선명상 축제가 사회 전체를 환히 비추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다.

전국선원수좌회 상임대표 불산 스님은 "간화선은 우리 수좌들이 수천 년간 지켜온 치열한 구도의 전통"이라며 "이번 대회가 선의 지혜가 산문을 넘어 세상 속으로 흘러 들어가서 우리 사회의 갈등과 고통이 자비와 평온으로 바뀌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대회의 역할과 가능성에 기대를 드러냈다.

이헌승 국회정각회장은 "조계종 주관으로 매년 개최되는 국제선명상대회는 불교의 전통적 선 수행을 현대사회에 맞게 재해석하고 명상의 가치를 일상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끊임없는 경쟁 속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중심을 세우는 선명상의 가치 더욱 중요하다"고 소개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대신해 김도형 문체부 종무실장은 "선명상은 몸과 마음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훈련"이라며 "정신문화의 보물인 선명상이 세계인에게 영감을 주고 K-컬처의 기반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불산 스님, 카이스트 명상과학연구소장 미산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 민병덕 국회의원, 에밀리아 가토 이탈리아 주한 외국대사, 어해용 암치유 전문의가 단상에 올라 각기 다른 선명상법을 소개하고 대중과 함께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AI시대 인간의 정신건강 문제를 학술·정책적으로 조망하는 선명상 포럼도 열렸다. 포럼에서는 카이스트 명상과학연구소장 미산 스님이 'AI 도반 진공묘유, 그대는 무엇인가요'를 주제로 선명상의 핵심 교리와 비전, 과학적 실천 대안 등을 제시했다.

미래학 전공자 차지호 국회의원은 '마음 없는 지능, 지능 너머 마음 : AI시대의 선명상'을 주제로 지능의 시대 마음의 문명이라는 관점에서 존재와 자각의 문제를 탐구하며 인류가 함께 진입하고 있는 AI시대의 마음·관계·책임의 의미를 분석했다.

개막식과 포럼에 이어 본격적으로 진행된 선명상축제에서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41개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며, 5만여 명이 현장을 찾아 선명상에 대한 관심을 보여줬다. 특히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 가운데 20~30대가 55.9%를 차지해 청년층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이는 선명상이 스트레스와 불안에 직면한 청년 세대에게 실질적인 치유 방안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된다.

프로그램은 사전 접수 단계에서 전석 매진됐고, 현장 접수 역시 조기 종료되며 총 8500여 명이 참여했다. 요가·사경·선태극권·공 사운드 배스는 물론 사찰음식 명장 선재 스님의 '우리 아이 채소' 프로그램도 가족 단위 참가자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펫로스(Pet Loss) 경험 반려인을 대상으로 한 명상도 운영돼 참여자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법왕루에서 진행된 수불 스님의 간화선 법문에는 500여 명이 몰려 좌석이 부족할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다. 일부 참가자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서서 법문을 들을 정도로 전통 수행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현대적 가능성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행사 기간 가장 큰 인기를 끈 프로그램은 '마음처방전'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인공지능(AI)이 참가자의 마음 상태를 분석해 맞춤형 명상법과 차, 향을 제안하고, 이후 스님과의 상담으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중앙승가대 상담 전공 스님들이 참여해 짧은 시간 동안 깊이 있는 상담을 진행했으며, 참가자들은 눈물을 보이거나 감사의 뜻을 전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서울 행사를 마친 이번 선명상축제는 전국으로 이어진다. 공주, 울산, 세종, 부산, 대구, 영암, 영덕, 장성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지역 특색을 살린 선명상축제를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AI시대 인간의 마음'이라는 화두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각국 대사도 동참
선명상대회 취지 공감

이탈리아 등 14개국서
선명상·사찰음식 체험

각국 대사들이 선명상과 사찰음식을 체험하며 국제선명상대회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조계종은 4월 3일 서울 봉은사에서 '2026 국제선명상대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4개국 주한 외국 대사와 배우자를 초청해 선명상과 사찰음식을 체험하는 문화교류 행사를 진행했다.

외국 대사들은 먼저 봉은사 수월관 대방에서 선명상위원 혜주 스님의 지도로 선명상을 실참한 뒤, 보우당으로 자리를 옮겨 사찰음식 명장 선재 스님이 준비한 사찰음식을 공양하며 한국 불교문화를 체험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짧은 시간이지만 이 자리가 작은 고요와 여유를 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이 경험을 각국에 전한다면 많은 이들의 마음에도 평안과 안정이 함께 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에밀리아 가토 이탈리아 대사는 "한국불교의 깊은 역사와 전통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 뜻깊다"고 했고, 미즈시마 코이치 일본 대사는 "명상이 고통을 견디는 수행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위한 것임을 새롭게 느꼈다"며 일상 속 실천 의지를 밝혔다.

스리랑카·인도·라오스 등 불교권 국가 대사들도 "각국의 명상 전통과 닮은 점이 많다"며 공감을 표하고, "이번 체험이 마음의 안정과 국가 간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선재 스님은 "'공양'은 나와 이웃, 그리고 자연의 생명이 함께하면서 '자연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나눔의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김내영 기자


사찰음식 인증샷을 찍고 있는 이탈리아 대사.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마가복열매,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주환
재료명 :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노안, 안구건조증,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애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고혈압 잡는 방법은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 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반려견과 함께 걷는 이 순간이 수행”

서울 선명상축제 현장

‘반려견 걷기 선명상’ 45팀 참가
봉은사 선명상길 걸으며 ‘호흡’
덕운 스님 “현재 집중하는 연습”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4월 5일 서울 봉은사에서 ‘2026 서울 선명상축제’ 일환으로 덕운 스님과 함께하는 ‘반려견 걷기 선명상’이 진행됐다.



봉은사 선명상길을 산책하는 참가자들과 반려견들.

홍매화와 벚꽃이 만개한 서울 봉은사 선명상길에 조금 특별한 발길이 이어졌다. 13살 ‘크리미’와 까만 털이 멋진 ‘염소’, 회색 조끼를 차려입은 ‘아토’ 등 반려견들과 선명상을 체험하기 위해 봉은사를 찾은 이들이다.

‘2026 서울 선명상축제’ 이틀째인 4월 5일, 덕운 스님(서울 충정사 주지)과 함께하는 ‘반려견 걷기 선명상’에는 총 45팀이 참가해 도심 속 사찰에서 색다른 명상의 시간을 나눴다.

덕운 스님은 출발에 앞서 “오늘은 우리가 이끄는 산책이 아니라, 반려동물들이 이끄는 걸음을 따라가는 시간”이라며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명상가는 바로 여러분 곁의 반려견들이다. 이들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목줄의 긴장을 조금 늦추고, 평소보다 느린 걸음으로 선명상길을 걸었다. 빠르게 지나치던 길 위의 풍경도, 반려견의 작은 몸짓도 이날만큼은 또렷하게 다가왔다. 이따금 멈춰서서 주변을 살피는 개, 낯선 친구에게 다가가려다 머뭇거리는 개, 주인을 올려다보며 걸음을 맞추는 개들의 모습을 천천히 살피며 걸음을 옮겼다.

걷는 중간 덕운 스님은 다시 한번 마음을 환기시켰다. “흔히 주인인 내가 반려동물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나 자신조차 온전히 알지 못한다”며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규정짓기보다, 반려동물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젠가 있을 이별에 힘들어 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지금 이 순간의 동행이 가장 소중하다”며 펫로스에 대한 두려움 또한 ‘현재를 사는 마음’으로 전환할 것을 당부했다.

유기견 ‘오투리’와 함께한 참가자는 “다리가 불편한데도 끝까지 잘 걸어줘서 고맙고 뿌듯하다”며 “‘강아지는 현재를 산다’는 스님의 말씀이 깊이 와닿았다. 나 역시 현재에 집중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반려견 ‘조아’를 키우는 참가자는 “산책이 의무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오늘은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느꼈다”며 “강아지 덕분에 오히려 내가 치유받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다.

40여 분간의 산책을 마친 뒤 짧은 명상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반려견을 품에 안은 채 눈을 감았다. 덕운 스님은 선명상을 이끌며 “오늘 경험한 무조건적인 수용과 평온함이 일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음처방전’으로 들여다본 내면의 풍경

수습기자의 ‘마음처방’ 체험기

AI로 마음 분석·맞춤 명상법 제시
스님 상담에 위로…선명상 안내도



박지운 수습기자가 ‘2026 선명상축제’의 ‘마음처방전’ 체험존에서 스님에게 상담받는 모습.

“스님을 보자마자 눈물이 났습니다.”

4월 5일 서울 봉은사에서 열린 ‘2026 선명상축제’의 ‘마음처방전’ 체험존에서 50대 여성 참가자 A씨가 처음 꺼낸 말이다. A씨는 별다른 기대 없이 부스에 들어갔다가, 스님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자신도 몰랐던 감정이 터져 나왔다고 말했다.

궁금증이 생겨 대기 행렬에 합류했다. 안내에 따라 QR코드에 접속해 진단을 시작했다. 먼저 MBTI를 입력하자 ‘요즘 나의 고민’을 입력하는 창이 나왔다. 최근 힘든 일을 겪는 친구가 떠올라 ‘인간관계’를 선택했다. 곧 AI가 진단한 ‘맞춤형 마음처방전’이 발급됐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흘린 눈물’이라는 나만의 화두 문구와 자비명상, 로즈힙티, 장미 인센스가 처방됐다. 현장에서 처방전을 출력해 바로 옆 ‘마음 약국’에 제출하자 로즈힙티 티백과 서원 쪽지, 화두 쪽지가 든 약봉투가 건네졌다.

약 봉투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물처럼 흘러갑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뭉클해졌다.

다음으로 선명상 어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앱에서 제공되는 명상 안내음원 하나를 골라 들었다. 주위가 소란스럽고 여러 생각이 들었지만 잠시 후 호흡에 집중하게 됐다. 나의 감정을 더 알고 싶어 스님 상담을 받아봤다. 상담은 중앙승가대 대학원에서 상담을 전공하는 16명이 스님이 담당했다. 처방전을 살펴본 스님은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라고 물었다. “요즘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만 있으려는 친구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스님은 “그저 기다려 주라”며 상대를 위해 무언가를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실은 나를 위한 것일 수도 있음을 일깨웠다.

상담이 진행될수록 상대의 반응을 통제하려는 나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스님은 “짧게라도 매일 앉아 명상을 실천해 볼 것”을 권했다. 3분간의 상담을 마친 후 서원 쪽지에 친구의 행복을 염원하는 문구를 적어 체험 부스 옆에 걸었다.

현장을 나서며 부스를 돌아봤다. 누군가는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고, 누군가는 한참을 앉아 명상에 잠겨 있었다. 부스 관계자는 “열린 공간에서 이뤄지는 3분이라는 짧은 상담이지만, 스님과 참가자들 간에 깊은 교감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축제 기간 큰 호응을 얻은 ‘마음처방전’은 앞으로 이어질 지역 선명상축제에서도 선보일 예정이다. 박지운 수습기자

음악+명상으로 마음 치유

4월 4일 서울 봉은문화회관서
주석 스님 사회·박기영 등 공연



바쁜 현대인들에게 쉼과 치유를 전하는 ‘선명상 콘서트’가 열렸다. 관람객들은 일상에서 벗어나 오로지 음악에 집중하며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4월 4일 서울 봉은사 봉은문화회관에서 열린 ‘선명상 콘서트’는 ‘2026 서울 선명상축제’의 일환으로, 음악에 집중하며 자연스럽게 명상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콘서트는 주석 스님(쿠무다문화재단 이사장)의 사회로 명상 안내와 가수 박기영, 피아니스트 조윤성의 공연이 결합된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석 스님은 먼저 명상의 의미에 대해 “어지러운 마음을 고요히 해주는 일종의 ‘마음의 소화’ 같은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면의 상태를 한 발치 떨어져 볼 수 있는 관찰자 자세를 강조했다. 주석 스님은 “내 마음을 들여다볼 때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며 “자신의 내면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을 때 참된 나를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본격적인 공연에 앞서 관람객들은 피아노 선율에 맞춰 눈을 감고 잠시 호흡에 집중했다. 이어 공연은 ‘넬라 판타지아’ ‘시작’ ‘블루스카이’ 등으로 채워졌다. 공연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관람객들은 소리에 몰입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주석 스님과 명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다. 피아니스트 조윤성 씨는 “차를 마시거나 물을 끓이는 일상적인 행위도 명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수 박기영 씨는 명상을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라 정의하며 “결국 타인을 돌볼 수 있게 되는 마음으로 연결되는 것이 명상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주석 스님은 “음악과 명상은 따로 분리될 수 없는 요소”라며 “이번 콘서트를 통해 일상에서도 명상을 실천해 마음의 평화가 확장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관람객들은 공연을 통해 명상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정은(37) 씨는 “정식으로 명상을 하려 하면 졸린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콘서트는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어 좋았다”고 전했다. 이현희 수습기자

선명상 가치 알릴 앰버서더 35명 위촉

조계종 미래본부, 위촉장 수여
선명상대회 홍보·운영 이끌어



선명상의 가치와 역할을 알리고 전국에서 펼쳐질 국제선명상대회 홍보와 운영을 이끌 ‘선명상 앰버서더’가 공식 출범했다.

조계종 미래본부(사무총장 일감 스님)는 4월 3일 서울 봉은문화회관에서 ‘선명상 앰버서더 발대식’을 열고 명상지도자 3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올해 앰버서더 모집에는 전국에서 111명이 지원해 3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글로벌 웰니스 전문가 한이경 작가 등이 심사에 참여해 명상 지도 경력과 프로그램 운영 경험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선발했다.

이들은 향후 서울과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국제선명상대회 프로그램을 직접 이끌며, 요가·싱잉볼·아트명상 등의 콘텐츠를 통해 선명상 대중화에 나설 계획이다.

일감 스님은 “불교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을 주는 가르침인 만큼, 선명상과 불교의 공통된 가치를 널리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앰버서더들은 “불안 속에 앞만 보고 살아가는 청년 세대의 마음 치유에 앞장서겠다”며 “모두에게 이로운 선명상을 널리 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내영 기자



셰익스피어부터 토니 모리슨까지!
불교에 심취한 서양 작가들
저명한 서양 작가 22명의 작품에서 불교적 가르침을 찾아내 “불교는 어렵고 고리타분하다”는 편견과 “고전 문학은 지루하다”는 선입견을 동시에 깨부순다.
딘 슬루이터 지음, 양윤희 옮김/신국판/544쪽/값 32,000원

불교란 무엇인가?
초심자를 위한 군더더기 없는 불교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복잡한 교리 대신 명료한 설명과 실제적인 예시로 불교의 핵심을 안내하는, 불교를 처음 만나는 이들을 위한 입문서이자 실천서!
노아 라세타 지음, 백귀순 옮김/국판변형/184쪽/값 15,000원

누구나 쉽게! 실용적인 명상 안내서!
10일 마음챙김 명상 워크북
하루에 한 가지씩 10일 동안 10가지 명상을 체험해봄으로써, 나에게 알맞은 명상법을 찾아내 이를 자신의 일상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벤자민 W. 데커 지음, 이혜진 옮김/국판/184쪽/값 15,8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봉정사 괘불 속 영산회상 法悅 만난다

국립중앙박물관 불교회화실
4월 7일부터 6월 21일까지
부처님오신날 맞아 전시돼
화승 도문 그린 마지막 작품
예술 역량 집대성된 대표작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화승 중 한 명이 도문 스님의 마지막 불화인 '안동 영산회 괘불도'를 만날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유홍준)은 "불기2570년(2026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보물 '안동 봉정사 영산회 괘불'을 소개하는 전시인 '깨달음으로 이끄는 부처, 안동 봉정사 괘불'을 4월 7일부터 6월 21일까지 상설전시실 2층 서화관 불교회화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괘불은 부처님오신날과 같은 특별한 날, 야외의식에서 거는 대형불화로 평소에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작품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의 괘불전은 매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전국 사찰에서 전승되는 한국 불교 특유 대형불화인 괘불의 역사·문화·예술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2006년부터 이어져왔으며 올해로 스무 번째를 맞았다.


국립중앙박물관에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전시되는 보물 '안동 봉정사 영산회괘불도'.

'봉정사 괘불'은 1710년(숙종 36) 제작되었으며 높이 821.6cm, 폭 620.1cm에 달하는 대작이다. 비단 16폭을 옆으로 이어 만든 화폭에는 석가모니 부처가 인도 영취산에서 가장 뛰어난 가르침을 펼친 영산회상(靈山會上) 장면이 담다. 커다란 화면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여덟 보살과 열 명의 제자를 좌우 대칭으로 비중 있게 구성해 영산회상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괘불을 제작한 18세기 경북 화승 집단에 대해서도 주목할 만하다. 괘불 제작에는 도문(道文)·설잠(雪岑)·승순(勝淳)·계순(戒淳)·해영(海英)·종열(宗悅)·성은(聖誾) 스님 등 7명의 화승이 참여했다.

특히 도문 스님을 비롯한 일부는 의성 고운사 '아미타회상도'(1701), 보물 예천 용문사 '천불도'와 '팔상도'(1709) 제작에도 참여하고 있어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초반까지 경상북도 북부 지역을 거점으로 활발히 활동한 화승 집단의 존재를 보여준다.

'봉정사 괘불'은 현재까지 확인된 도문 스님의 마지막 불화 작품으로 스님의 화풍과 예술적 역량이 집약된 대표작으로 평가된다.

화면 하단의 화기에는 '봉정사 괘불'의 조성 과정과 참여 인물, 후원 양상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데, 총 166명이 불사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여성 후원자인 '명월사당 묘정(明月舍堂 妙淨)'의 존재가 눈길을 끈다. 한양에 거주한 묘정의 불사 후원은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활약하는 화승 도문 일행의 활동과도 맞물려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봉정사 괘불'은 특정 화승 집단과 이들을 후원하는 시주 계층의 유기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불교사와 불교미술사 연구에 있어 큰 의의를 지닌다"면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조선 후기 화승들의 활동을 조명하는 데에도 중요한 자료로서 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강조했다.

천태종, 예술·사진 공모전 잇달아

11회 천태예술대전 9월 16~17일 접수
8회 천태사진공모전 8월 10~21일 공모

천태종(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4월 8일 '제11회 천태예술공모대전'과 '제8회 천태사진공모전' 공모 요강을 발표했다.

제11회 천태예술공모대전 지원 분야는 △전통불화 △현대불화 △조각·공예 △민화 4개 부문이며, 1인 3점 이하 출품이 가능하다.

전통·현대불화와 민화 작품의 규격은 200호 미만, 가로×세로 합 400cm 이하(높이 210cm 이하)이어야 하며, 표구(액자, 판넬, 족자)한 완성작을 출품해야 한다. 민화 중 병풍은 12폭 이하여야 한다.

접수 기간은 9월 16~17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접수 장소는 서울 우면동 관문사 2층이다. 접수 시 작품과 출품원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공모 요강과 출품원서는 7월부터 금강신문 홈페이지(www.ggbn.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1명에는 상금 2000만원이 수여되며 작품은 천태종에 귀속된다. 최우수상(국가유산청장) 1명에는 상금 700만원, 우수상 4명에는 상금 각 200만원, 장려상 4명에는 상금 각 50만원, 특선 약간 명에는 소정의 상품, 입선 약간 명에는 상장, 특별상에는 기념패를 수여한다. 수상작은 11월 25~30일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전시한다. 시상식은 전시 기간 중 개최할 예정이다.

제8회 천태사진공모전은 소백산국립공원, 단양 자연 풍경, 사찰, 불교 정신을 주제로 진행되며 천태종 관련 사진을 우대한다. 작품 규격은 장별 3000픽셀, 해상도 300dpi, 용량 10MB 이상 JPEG파일로 작품의 파일명은 반드시 '작가명-작품명.jpg'로 해야 한다.

출품방법은 작품명, 성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가 기록된 파일을 첨부해 E메일(cheontaecmb2@kakao.com)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8월 10~21일이다.

심사는 9월에 진행되며 시상식과 전시회는 11월 중 열릴 예정이다.

02-723-1559 신중일 기자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언어와 논리를 넘어선 세계

㊲ 직지인심(直指人心)

直 指 人 心

불립문자(不立文字)와 직지인심(直指人心).

선종의 이 두 가르침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숲에 갇힌 오늘의 우리에게 매서운 죽비처럼 울린다. 당나라 보리달마의 가르침을 정리한 〈소실육문(少室六門)〉과 육조 혜능의 〈단경(壇經)〉에서 거듭 강조된 이 정신은, 바깥으로 향하는 시선을 거두어 자기 마음을 곧장 대면하라는 엄중한 요청이다.

우리는 정보의 풍요 속에 살지만, 정작 '자기'는 빈곤하다. 손가락 하나로 세계의 지식을 불러오고, AI는 취향마저 예측한다. 그러나 깨달음은 이성적 추론이나 정교한 개념, 과학적 논증으로 도달할 수 없다. 지도는 지형이 아니며, 아무리 정밀한 수치도 한 인간의 고유한 영혼을 담아낼 수 없다.

"강물에 달이 비치면 물이 달을 품은 듯하나, 물이 흐른다고 달까지 흐르지는 않는다."

이성적 사유와 학문 체계는 진리에 이르는 방편(方便)에 불과하다. 강을 건넜다면 뗏목을 버려야 하듯, 지식에 매달려 그 안의 생명력을 놓쳐서는 안 된다. '불립문자'는 지식의 과잉이 오히려 시야를 가리는 이 시대에 더욱 절실하다.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에 전하는 '교외별전(教外別傳)' 또한 같은 뜻을 가리킨다. 진리는 경전의 문자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살아 있는 체험 속에 있다. 우리는 수많은 '글자'에 파묻혀 자기 마음의 미세한 울림을 듣지 못한다. 분석과 분류에는 능숙하지만, 대상을 있는 그대로 꿰뚫는 직관은 점점 퇴화한다.

결국 핵심은 직지인심(直指人心)이다. 자기 마음을 곧바로 통찰할 때 공성(空性)과 불성(佛性)은 드러난다.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통념, 과학적 인과율이라는 두꺼운 안경을 벗고, 가공되지 않은 마음을 마주할 용기가 필요하다. 무엇에 기쁘고 무엇에 아픈지, 마음의 근원을 돌아볼 때 비로소 지식은 살아 있는 앎이 된다.

추사 김정희는 "가슴속에 오천 권의 문자가 있어야 그것이 넘쳐 글과 그림이 된다"라고 했다. 그러나 그 문자 또한 '나'라는 용광로 속에서 녹아들어 지혜로 변해야 한다. 견성(見性)하여 성불(成佛)한다는 말은 신비한 체험이 아니다. 그것은 개념과 분석의 과잉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마음의 실상을 직면하는 일이다.

자기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타인이 설계한 알고리즘의 각본을 연기하는 배우로 남는다. "차라리 천고에 자취를 감춘 학이 될지언정, 봄날에 말 잘하는 앵무새는 되지 않겠다." 한암 스님(186~1951)의 이 말이 지금 더욱 깊고 맑게 울린다.

〈화순 불암사 주지〉

불교방송 다큐 휴스턴 영화제 2관왕

다큐 · 영상 제작 2개 부문서
차, 와인 통해 종교철학 조명



북미 3대 영상 페스티벌인 '휴스턴 영화제'에서 BBS불교방송(사장 서진영)의 다큐멘터리가 2개 부문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BBS는 "특집 다큐멘터리 '종교를 품은 잔(盞)-커피, 차 그리고 와인'이 세계적 권위의 영상 시상식인 제59회 휴스턴 국제영화제(WorldFest-Houston)에서 '레미상(Remi Award)' 2관왕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1961년 시작된 휴스턴 국제영화제는 샌프란시스코 영화제, 뉴욕 영화제와 함께 북미 3대 영상 페스티벌로 손꼽히는 권위 있는 시상식이다.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5000여 편의 작품이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인 이번 시상식에서 BBS의 다큐멘터리 '종교를 품은 잔'은 △다큐멘터리 부문과 △영화 및 영상 제작 부문을 동시에 석권하는 저력을 과시했다. 최종 수상 등급은 4월 말 휴스턴 국제영화제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수상작인 '종교를 품은 잔'은 불교의 '차(茶)', 가톨릭의 '와인', 이슬람의 '커피'가 각 종교의 의례와 수행을 지탱해온 핵심적 요소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번 작품을 기획·연출한 김정은PD는 해남 대흥사 일지암의 초의 선사 다례재부터 튀르키예의 모스크와 커피하우스, 이탈리아 수도원의 미사 현장까지 세계 각지의 성지를 누비며, 한 잔의 음료 속에 담긴 깊은 종교적 철학을 수려한 영상미로 담아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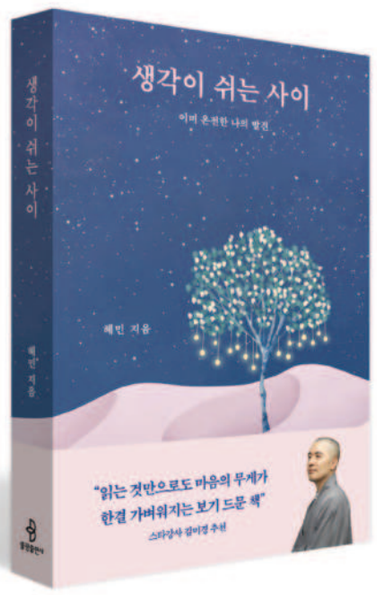
신중일 기자

"읽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진다"

나를 괴롭히는 '내 해석'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지혜
이미 고요하고 온전한 자신을 지금 여기서 만나다!



생각이 쉬는 사이



혜민 지음 | 336쪽 | 19,800원

이 책에 대한 찬사

"단순한 힐링이 아니라 지혜를 통한 진정한 치유"
- 김미경 MKTV 대표(『김미경의 딥마인드』 저자)

"나라는 존재를 차분히 들여다보는 성찰"
- 곽정은 한양대 상담심리대학원 교수(『어웨어니스』 저자)

이 책의 인세는 스님의 뜻에 따라 국내 노숙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음식 나눔에 전액 기부됩니다.

생각이 많아 잠 못 드는 당신에게

"애써 붙잡고 있던 생각이
잠깐 멈추는 순간,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조용한 자리가 드러납니다."

- 혜민 두 손 모아

ⓒ조세현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4/8~4/14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불교에 관한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물음49	장웅연	담앤북스
2	큰 활자본 지장경	김현준	효림
3	법구경-담마파다(쿳다까니까야)빠알리대장경	전재성 역주	한국빠알리성전협회
4	불교입문(2017년 개정판)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5	대승기신론 강해	한자경	불광출판사
6	정토삼부경(무량수경,관무량수경,아미타경)	석청화/문선우	불교서원
7	불교영어-초급1(개정판)	불학연구소	조계종출판사
8	고광 스님의 불교 도장 깨기	고광	불광출판사
9	마음글밭	원영	불광출판사
10	화엄경(불교경전1)	김지견 역	민족사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과경 엮음	불광
2	요가디피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3	불교사의 이해	이만 외	조계종출판사
4	초기불교 입문	각묵스님 지음	초기불전연구원
5	법구경	식카와띠 위뿔라나니	담마디빠
6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김원수 지음	바른법연구원
7	동종요법 미네랄 가이드북	유이 토라코	햇무리
8	화:마음의 불꽃을 식히는 지혜	틱낫한/허우서,허주형	운주사
9	법구경 이야기(1)	무념,응진 역	옛길
10	10일 마음챙김 명상 워크북	벤자민 데커	운주사

수덕사의 역사를 기록하다



수덕유사
덕숭총림 수덕사 기획
설정 스님 구술
김광식 지음
도서출판 중도
3만원

2년간 설정 스님 구술 채록
덕숭총림 가풍·선지식 일화
10·27법난-94년 종단개혁도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1700여 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선지식이 머물며 수행과 교화를 이어온 도량 덕숭총림 수덕사의 역사를 담은 책이 출간됐다.

덕숭문중을 이끌었던 경허·만공 스님뿐 아니라 혜암·벽초·원담 스님, 정혜사에서 수행한 금봉·춘성·전강·금오·동산 스님, 견성암에서 수행한 비구니 스님에 관한 전승 이야기가 담겨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과 덕숭총림 방장, 수덕사 주지를 역임한 설정 스님이 지난 2년간 수덕사와 관련된 정사, 비사, 증언, 가풍, 정체성 등을 구술한 내용을 김광식 전 동국대 특임교수가 정리했다.

기존에 출간된 〈경허집〉, 〈만공법어〉 등에 담지 못한 생생한 수행 현장과 비사, 수행자들의 인간적인 고뇌와 원력까지 담아내 관련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 '덕숭산의 큰스님'에서는 경허 스님을 중심으로 근대 선불교의 부흥 과정을 조명한다. 선풍이 끊어질 위기에 놓였던 시대에 혜성처럼 등장해 법등을 다시 밝힌 경허 스님의 행적과 그 법맥을 이어받은 만공 스님의 치열한 수행·교화 과정이 상세히 그려진다. 이어 혜암, 벽초, 원담 스님에 이르기까지 덕숭선맥을 계승한 스님들의 수행 이력과 가풍이 한 흐름으로 정리되어 있다.

2부 '덕숭산과 인연을 맺은 스님'에서는 수덕사와 정혜사, 견성암에서 정진한 스님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금봉·춘성·동산·경봉 스님과 그간 기록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았던 중은 스님, 법희·일엽·선복·선경·수연 스님 등 비구니 스님들의 삶도 함께 조명했다.

3부 '수덕사의 현대사'에서는 한국전쟁이라는 비극적 상황에서 법맥을 지켜낸 이야기, 선학원의 역사, 10·27법난과 94년 종단개혁 등 현대 불교사의 중요한 장면들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특히 설정 스님이 겪은 10·27법난의 생생한 증언도 담겼다. 1980년 5월 수덕사 주지에 취임한 스님은 그해 10월 27일 새벽 대전 보안사로 끌려가 11일간 고초를 겪었다. 설정 스님은 "정신적 고문을 받은 것이 배를 칼로 찌르는 것보다 더 아픈 치욕이었다"고 회고하며 "법난은 전 불교도를 향한 탄압이고, 정신적인 살인이었다"고 평가했다.

또 94년 종단개혁에 참여하게 된 계기와 경과, 종회의장에 출마하게 된 이유 등을 술회하고, 2017년 총무원장 선거 과정도 허심탄회하게 밝혔다. 설정 스님은 "94년 종단개혁은 실패한 것이기에, 성찰하는 차원에서 종단을 바르게 되돌려 놓으려고 총무원장에 출마했다"며 "종단개혁을 하려고 나갔다가, 도리어 내가 은처자라는 중상모략을 받고 말도 안 되는 것에 몰려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수덕사의 역사, 가풍, 정신을 찾아내 정리하고자 한다. 그러면서 종단 전체의 문제도 고민하려 한다"는 말로 회고를 마무리했다.

설정 스님은 간행사에서 "기록이 없으면 아무리 위대한 삶과 업적도 세월 속에 묻히고 만다"며 "수덕사 스님들이 출가해 입적하기까지 수행과 정진, 불사, 중생 교화 등 수많은 업적과 경험을 기록으로 남겨 후학들에게 지침과 귀감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에 〈수덕유사〉를 구상했다"고 밝혔다.

보경 스님 '고양이 3부작' 유럽 간다





고양이를 통해 불교의 가르침을 전한 보경 스님. 사진 제공=불광출판사

불광출판사 3종, 9개 언어권에
선인세 5억원…K-불교 새 지평
고양이로 풀어낸 선적 사유 '주목'

보경 스님(보조사상연구원 이사장)의 '고양이 에세이 3부작'이 유럽 주요 출판시장에 진출하며 한국불교 콘텐츠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불광출판사(대표이사 류지호)는 최근 보경 스님의 대표작인 〈어느 날 고양이가 내게로 왔다〉, 〈고양이를 읽는 시간〉, 〈고양이가 주는 행복, 기쁘게 유쾌하게〉 등 3부작 시리즈의 판권을 영국, 독일, 스페인 등 유럽 9개 언어권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선인세 5억원 규모로, 종교·에세이 장르 단일 시리즈로서는 이례적인 성과다. 특히 영국 프로파일 북스(Profile Books), 독일 드로머 크나우르(Droemer Knaur) 등 각국의 대표 출판사들과 동시에 계약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불광출판사는 이 같은 성과를 '기획력'과 '저자 브랜드화'의 결과로 분석했다. 책의 타깃 독자를 불교 신자에 국한하지 않고 인문·에세이 독자로 확장해 기획·편집하고, 수행과 깨달음이라는 주제를 일상의 언어와 감성으로 풀어내 문턱을 낮춘 전략이 주효했다는 것이다. 또 '고양이'를 주제로 시리즈화함으로써 책과 저자의 브랜드를 성장시킨 점도 흥행을 견인한 요소다.

'고양이 에세이 3부작'은 보경 스님이 산중 암자에서 우연히 만난 고양이와의 인연을 통해 인간의 삶과 마음을 성찰한 철학적 산문이다. '최선을 다해 대충 살아가는' 고양이의 모습에서 길어 올린 통찰은 현대인들의 과도한 경쟁과 관계 속 불안을 돌아보게 한다. 왜 우리는 지나치게 애쓰는지, 왜 관계에서 조바심을 내는지, 왜 행복을 밖에서 찾는지를 성찰하게 하는 스님의 글은 종교와 문화를 넘어 보편적 공감을 끌어냈다.

이러한 콘텐츠의 힘은 2020년과 2022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나눔 도서 선정, 2022년 서울국제도서전 '여름 첫 책' 선정 등으로 입증된 바 있다.

보경 스님은 "고양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로 불교의 가르침을 보여주고자 한 점이 기존 에세이들과 차별화된 요소가 아니었나 생각한다"며 "사계절의 흐름 속에서 사유가 확장되는 연작 형식으로 완성한 점도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밝혔다

이어 "불교의 선적 언어와 직관적 표현은 사람을 각성시키는 힘이 있고 문학적으로도 매우 강렬한데, 그 가치를 충분히 전하지 못하는 점이 늘 아쉬웠다"며 "책에서는 고양이라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존재를 통해 그 정신을 자연스럽게 풀어내고 싶었다"고 집필 배경을 설명했다.

스님은 "고양이 이야기를 쓰기 시작한 지 10년 가까이 흐르면서 제 자신도 많이 변화했다"며 "그 이후의 사유를 담은 속편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불교를 인문학적으로 해석해 쉽게 전달하는 작업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수령 기자

여섯 글자에 담긴 삶의 귀의



나무아미타불
야나기 무네요시 지음
김호성 옮김
조계종출판사
2만2000원

'무심의 염불' 본질 조명
김호성 교수 주해 보강

일본 민예학자 야나기 무네요시가 만년에 남긴 사상적 결실이자, 여섯 자 명호의 의미를 풀어낸 〈나무아미타불〉의 개정증보판이 출간됐다. 1955년 일본에서 처음 간행된 이 책은 특정 종파의 교리를 넘어, 염불이라는 행위가 지닌 존재론적 울림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하고자 한 저작이다.

책의 핵심은 '나무아미타불' 여섯 글자에 담긴 의미를 밝히는 데 있다. '나무(南無)'는 귀의, 즉 온전히 맡기고 의지한다는 의미이고 '아미타불(阿彌陀佛)'은 무량한 생명과 빛을 상징하는 부처를 가리킨다. 결국 '나무아미타불'은 "무량수 부처님께 귀의합니다"라는 서원이자, 인간 존재의 근원적 의탁을 드러내는 언어다. 저자는 이 문장에 인간 삶 전체가 담겨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생활의 미'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했듯, 염불 또한 어떤 목적이나 공덕을 계산하는 행위가 아니라 '무심(無心)'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한다고 말한다. 의도와 욕망이 개입된 염불은 이미 순수성을 잃기 때문이다. 반대로 아무런 기대 없이 그저 부르는 '나무아미타불'에는 탐진치가 스며들 여지가 없다. 저자는 염불이 이미 주어진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행위이며, 타력에 자신을 맡기는 존재론적 결단이라는 사실을 거듭 일깨운다.

이번 개정증보판은 김호성 동국대 명예교수의 오랜 연구와 번역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치밀한 주해와 교감이 더해졌다.

2017년 초판 번역본을 펴낸 김호성 교수는 그간의 연구를 토대로 기존 번역의 오류를 바로잡고, 일본 고어 표현까지 원전과 대조해 세밀하게 다듬었다.

대폭 보강된 역주도 책의 이해를 돕는다. 김 교수는 "일본불교 특유의 사상적 배경과 문화적 맥락은 한국 독자에게 낯설 수밖에 없기에, 불교 용어에 대한 해설과 자세한 설명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이기심을 버리라는 말은 틀렸다"
문제는 욕망이 아니다

욕망을 없애지 말고, 깨어 있으라

라오스 숲속 사찰에서 수행 중인 쿠바 탐디 스님은
자신을 "이기심을 안고 사는 수행자"라고 고백한다.
이 책은 욕망을 억누르라는 대신,
통찰하라고 말하는 인문 수행서다.

나는 이기적 스님이다
쿠바 탐디 | 400쪽 | 23,000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25년간 청년들을 만나며 그들의 오늘의 삶을 고민해 왔다. 자유를 찾아 욕망이 지배하는 도시를 떠나 라오스 푸딘댕청소년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냈고 출가한 수행자이지만 여전히 갈애와 집착, 어리석음을 안고 사는 한 인간이다. 홀로 서는 자유를 꿈꾸며 출가했으나 인간은 끝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배웠다. 삶의 진실은 세상에서 벗어난 곳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현실의 한복판에 있었다. 완성된 스님이 아니라, 길 위에 선 초보 수행자로서 수행의 길을 걷는 중이다.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삶 품은 사찰에 신뢰 세우는 토대

금강스님의 계율 이야기

④ 율 조문에 나타난 중매와 포교 제언

yo pana bhikkhu sañcarittaṃ samāpajjeyye itthiyā vā purisamatiṃ purisassa vā purisamatiṃ vā itthīmatiṃ jāyattanevā jārattane vā antamaso taṃ khaṇikāya' pi, saṅghādiseso.

若比丘往來彼此媒嫁 持男意語女 持女意語男 若爲成婦事 若爲私通乃至須臾頃 僧伽婆尸沙.

어떠한 비구라고 할지라도 남녀의 중매를 하되, 남자의 뜻을 여자에게 전달하거나 여자의 뜻을 남자에게 전달하여 결혼 혹은 사통을 성사시키려 한다면, 비록 그것이 찰나의 순간일지라도 승잔죄에 해당한다.

– 비구계 승잔(僧殘)법 제5조 매가(媒嫁) –



출가자들이 계를 받을 때 비구는 250가지 조문을, 비구니는 348가지 조문을 받고 지킬 것을 서원하며 다짐한다. 이 가운데 중매 관련 조문은 중매자에게 쏟아지는 비난이 승가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주의하라는 것이다. 사진은 지난해 9월 9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봉행된 조계종 제69기 사미·사미니 수계교육 고불식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나는 절로', 중매 아닌 포교 일환일 뿐

불교의 출가는 다른 사람의 지시나 명령에 따라 선택되고 결정된 것이 아니다. 출가는 출가자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하여 결정한 것이다. 주변에 의한 명령이나 강제적 출가는 출가생활을 견딜 수 없고, 더욱이 율 조문의 실천에 대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동반하게 된다. 그런 까닭에 출가의 선택은 자발적일 수밖에 없다. 출가자에게 있어서 율의 실천은 처벌이나 징계가 두려워 피하거나, 율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경우는 매우 적다. 오히려 붓다의 말씀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실천하며 수행하는 것이 출가자의 올바른 생활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출가자들은 붓다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때로는 현실적 상황으로 인해서 붓다의 가르침과 대치가 되는 경우도 많이 생겨난다. 이러한 경우 계를 실천할 것인지, 범할 것이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기도 한다.

최근 유행처럼 생겨난 '나는 절로'라는 포교 프로그램이 있다. '나는 절로'는 TV 프로그램 중에서 미혼 남녀의 연애와 커플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인 '나는 SOLO'의 불교판 포교 프로그램이다. '나는 절로'는 MZ세대를 대상으로 포교하는 종단의 최신 포교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으며, 각지의 사찰에서 템플스테이와 연계하여 진행되고 있다. '나는 절로'는 전국 각지의 유명한 사찰에서 이루어지며,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중간자의 역할로 스님들이 관여돼 있기도 하다. 포교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지만, 출가자들이 계를 어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기도 한다. 물론 포교 프로그램에 있어서 출가자가 직접 두 사람을 이어주기 위한 중매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참가자들 사이의 관계에 출가자가 개입하는 순간 자칫 중매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조금 넓은 의미에서 율의 조문과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매, 바라이죄 다음의 승잔죄에 해당

출가자들이 수계(受戒) 시 비구는 250가지 조문을, 비구니는 348가지 조문을 받고 지킬 것을 서원하며 다짐한다. 수계한 조문을 출가자가 범(犯)하게 되면 재가자들은 파계승으로 생각하고, 승가에서 추방돼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수계한 하나의 조문이라도 범하면 파계승이 되고, 이것은 곧 승가에서 추방돼야 하는 것으로 불교 신자들은 많이 이해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붓다께서는 출가자가 조문을 범했다고 해서 그 처벌로 승가에서 무조건 추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율의 조문을 제정하지는 않았다. 승가 구성원의 처벌이 기록된 율장은 출가자의 잘못된 행위의 범계 유무를 설명하고, 그에 따라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여 징계를 결정한다. 율장에 근거해 출가자의 범계 행위에 따라 무겁고 가벼운 징계의 기준을 정하였다.

율장에서 가장 무거운 징계는 승가에서 추방이 되는 바라이죄가 있다. 바라이죄는 출가자가 범하는 순간 바로 승가에서 추방이 되는 가장 무거운 죄이다.

바라이죄 다음으로 무거운 죄는 승잔죄이다. 승잔죄는 승가에 남아서 근신 처분을 받는 죄인데, 오늘 이야기 주제인 중매가 중죄인 승잔에 포함이 된다. 승잔죄 다음으로는 가벼운 처벌의 죄로서 범계한 비구는 다른 비구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고 진심으로 참회하면 용서가 되며, 청정한 출가자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

MZ세대 포교 프로그램 '나는 절로'
출가자 개입 중매로 오인 소지 있어
승가 전체 비난 확대 막고자 계율로
재가 믿음·존경 일으키는 지계 실천 要

승가 권위 실추 막기 위한 조문 제정

사람들과의 인연을 이어주는 중매가 출가자들에게 있어서 중죄가 된 까닭은 조문 제정의 인연담에 잘 나타난다. 제정 인연을 살펴보면, 우다이(Udāyi)라는 비구의 중매를 통해 혼인하여 결혼생활을 이어가던 부부가 불화로 인해 이혼하게 되었다. 이들은 상대방 집안을 비난하면서 최후에는 중매자인 우다이 비구를 비난했다.



지난해 10월 김천 직지사에서 열린 '나는 절로'에서 참가자들이 차담 데이트를 하는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우다이의 중매를 통해 결혼했다가 이혼한 이들이 우다이뿐만 아니라 승가를 비난했지만, 행복하게 잘 사는 이들은 우다이 비구를 지지하게 되면서 붓다는 비구들에게 중매를 금하는 학처(學處, sikkhāpada)를 제정하게 된다. 이는 붓다와 불교가 결혼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매자에게 쏟아지는 비난이 승가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주의하라는 것이다. 즉, 붓다는 승가의 권위가 실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계율을 제정하셨다.

nanu mayā moghapurisa anekapariyāyena virāgāya dhammo desito no sarāgāya visaṃyogāya dhammo desito no saṃyogāya anupādānāya dhammo desito no saupādānāya.

何以故 我無數方便說斷欲法 斷於欲想滅欲念 除散欲熱越度愛結.

이 어리석은 사람아, 실로 나는 많은 방법으로 탐욕의 여읨을 위해 법을 설한 것이지 탐욕을 취하라고 설한 것은 아니다. 결박의 여읨을 위해 법을 설한 것이지 결박을 취하라고 설한 것은 아니다. 집착의 여읨을 위해 법을 설한 것이지 집착을 취하라고 설한 것은 아니다.

출가자 개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승가 전체가 비난을 받을 경우, 붓다께서는 바른 수행자들이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제시하시며 출가자들을 경책하신다. 붓다께서 출가자들을 경책하는 까닭은 승가의 권위는 출가자 개인의 위의(威儀)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 계율에 의해 위의를 지니고 수행하는 출가자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존경하고 믿음을 내기 때문이다. 출가자의 위의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마승비구를 통해 지혜제일 사리불이 불교에 귀의한 것과 같이 출가자의 행동 하나하나는 세상의 존경과 귀의를 받을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출가자는 재가자의 비난으로부터 주의하며 위의를 지키며 생활한다.

세간 관심보다 깨달음 방향 보여야

포교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이 혹여 잘못된 결과로 이어질 경우 불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다. 사회에서 주목받는 프로그램을 인용하여 포교라는 이름으로 진행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불교는 재가자들에게 관심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닌 생사윤회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보여줘야 한다. 자칫 출가자 한 명에게 쏟아진 비난이 승가 전체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시대에 맞는 새로운 포교 대안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가자들이 지계와 범계의 경계에서 벗어나 더 많은 인연이 불교와 맺어질 수 있도록 MZ세대들의 작은 결혼식을 추진하는 방법이다. 둘째, 생로병사의 가르침을 회향할 수 있는 생전 장례식을 위한 공간으로 사찰을 활용해 포교하는 방법이다. 셋째, 출가자가 계율을 지키고 당당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해 계율에 관해 널리 알리는 것 역시 그 자체가 재가자들에게 믿음과 존경을 주는 최고의 포교 방법이다.

사찰은 붓다의 가르침이 상주하는 공간으로 새로운 시작의 축복과 삶의 정리를 위한 위로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간소한 의례를 통해 붓다의 가르침을 설하고, 출가자의 지계 실천과 여법한 모습을 통해 재가자들로 하여금 믿음과 존경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계의 테두리 안에서 여법한 출가자의 모습을 지켜가는 것, 지계의 노력은 결국 재가 신자들로부터 믿음과 존경을 일으키는 바탕이 될 것이다.



금강 스님
해인총림율학승가대학원
대학원장 직무대행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02-578-1708 / 010-7384-1708

평안한 하루 휴심침향

침향의 향기는 예로부터 향로에 피우는 것만으로도 천지인의 기감을 깨닫는 묘약이라고 하여 정신세계를 맑게 하며 상기된 신체의 이완과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비사 '휴심침향'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전 확인을 받았습니다. 휴심침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 천연재료를 숙성하여 수작업으로 제조한 제품입니다.
법당, 기도처, 요가·명상처, 가정,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피울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증제품 : 코드번호 FB22-12-0233



종합향

■ 문의전화 : 033-375-2100
010-8563-2356
■ 주 소 : 강원 영월군 주천면 황산벌길 157-6
■ 홈페이지 : ok114.co.kr/0333752100
■ 계좌번호 : 농협 351-1101-8874-03

• 종 합 향 : 100.000원
• 선향 大 : 70.000원
• 불 향 : 80.000원
• 선향 小 : 30.000원
• 가루향(도향) : 70.000원
• 침향비누 : 15.000원


종합향


선향


불향


가루향 & 침향비누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굿즈 탐방기

깨닫다!



바반투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불교굿즈들을 살펴보고 있다.





한 관람객이 힙부즈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비건 사료를 선보인 양경수 작가(위 사진 오른쪽)의 견심사와 해탈컴퍼니의 굿즈를 살펴보는 관람객들(아래).



양경수 작가의 작품을 굿즈화한 붓다랜드 부스.

Hip한 불교굿즈, 불교박람회 '연속 흥행' 견인

글=신중일 기자 · 사진=정승채 PD

결국 '콘텐츠'의 힘이었다. 개막 3일차인 4월 4일 서울국제불교박람회(이하 박람회)가 열리는 서울 코엑스B홀은 주말을 맞아 관람 인파가 '인산인해'를 이뤘다.

4월 2~3일 인스타그램, X(트위터) 등 SNS에는 박람회 후기들과 인기몰이 중인 굿즈들이 올라왔고 이를 보고 참여하려는 관람객들이 대거 몰렸다. 지난해 역대급 대박을 견인했던 세대가 MZ세대였다면 올해에는 중장년 비율도 대폭 증가했다. 부모님과 함께 박람회장을 찾은 2030세대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고,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박람회장을 찾아 불교문화를 체험하기도 했다.

이 같은 폭발적 인기로 박람회 사무국은 이날 정오 '현장 등록 조기 마감'을 선언했다. 폐막이 하루 남았음에도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인파가 대거 몰리면서 생길 수 있는 안전 문제에 따른 것이다.

'불교굿즈 3대장' 인기 명불허전

'힙불교' 인기를 견인했던 '불교굿즈 3대장'의 인기는 이번 박람회에서도 명불허전이었다. 이들 업체들은 규모나 제품 라인업 등 모든 면에서 각자만의 콘텐츠로 대중과 소통했다. 이는 '1~2시간 웨이팅은 기본'이라는 결과로 확인됐다.

소위 'RM 티셔츠·바지'로 MZ세대들에게 인지도를 높인 '바반투(BHAVANTU)'는 제품 라인업을 기존 티셔츠, 후드, 와이드 팬츠 등 '라이프 웨어'에서 불상, 인센트, 싱잉볼, 카라비너 등 '불교적 라이프 스타일'로 확장했다. 부스 콘셉트도 '붓다의 방'으로 잡았다. 이는 "'부처님은 어느 곳이든 계시는 존재'임을 제품을 통해 알리고 싶다"는 대표의 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김서현 바반투 대표는 "'부처님이 계신 방은 내 안의 방'이라는 콘셉트의 전시를 해보고 싶었다"면서 "다양한 불상들을 제작했는데 중장년층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구입도 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바반투가 선보이는 라이프 웨어들도 인기가 많다. 3일차인데 2000장 이상 팔린 것 같다"면서 "박람회 이후에는 백화점 및 단독 팝업으로 불교 철학적 가치와 명상의 메시지를 담은 굿즈와 웨어들을 선보이고 싶다"고 밝혔다.

불교적 밈(meme)을 활용해 다양한 굿즈를 선보이며 '불교굿즈 열풍'의 시작을 알린 '해탈컴퍼니'는 더욱 크고 강렬하게 돌아왔다. 부스만 지난해 4배 규모로 키운 해탈컴퍼니는 '밈'을 활용한 다양한 굿즈 이외에도 올해에는 '데님 승복바지'라는 신개념 의류로 대박이 났다. 박람회를 위해 300여 장의 데님 승복바지를 준비해 매일 50장을 판매하는데 오픈 10분 만에 완판되는 상황이다.

주여진 해탈컴퍼니 대표는 "평소 스님들께서 보여주시는 수행의 멋을 좋아했었는데 이를 의류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해왔다"면서 "마침 직원 중 한 명이 '승복 바지를 재해석한 제품을 만들어보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저 역시 '데님으로 만들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핏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너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라고 전했다.

'레이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해탈컴퍼니는 다양한 브랜드를 확장하며 자신만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다. 재치 있으면서도 진중한 메시지가 담긴 굿즈를 선보이는 '나사랑 클럽', 실담범자 관련 굿즈를 만드는 '복꼽들'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주 대표는 "해탈컴퍼니는 자체적인 축제와 다양한 행사들을 준비 중"이라며 이를 위해 가치관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레이블과 브랜드를 확장하며 그 시너지를 키우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양한 소품 불교굿즈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아미울'은 자체 제작 굿즈 라인업을 더해 더 귀엽게 돌아왔다. 특히 1000원 굿즈들에는 관람객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신현정 아미울 매니저는 "올해에는 액막이 명태, 불교 염서 등 자체 제작 굿즈를 더해 박람회에 참여했다"면서 "가격대가 있는 굿즈에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은 1000원 굿즈를 선호하는데 '다이소' 느낌으로 굿즈들을 구매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혁신적 라인업으로 더 강해지다

올해 굿즈 부스 중 가장 혁신적인 변화를 이룬 곳은 '영천목탁'이다. 영천목탁은 지난해까지 불구(佛具)인 '목탁'만을 전시·판매하는 전통 공예 부스였지만 올해는 제품군을 아예 '굿즈'로 혁신했다.

영천목탁은 목탁을 기반으로 한 캐릭터 '목이'와 '탁이'를 제작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굿즈들을 선보였다. 특히 목탁으로 디자인된 키캡은 1000개를 준비했지만 3일차가 되기 전에 완판돼 현재는 스토어에서 사전 예약으로 구매가 가능할 정도다.

더불어 전통 매듭과 미니미탁키링을 접목한 굿즈, 박람회 전통문화우수상품 공모전(2021)에서 대상을 받은 '현대적 목탁'을 변주한 오방색 '사각목탁 키링', 지역 소상공인들과 함께한 '번뇌싹싹'이라는 때수건 굿즈도 인기를 끌었다.

안진석 영천목탁 대표는 "목탁은 불구로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엄숙한 이미지가 강했다. 그러다 보니 박람회에서도 한번 쳐보고는 그냥 돌아서는 분들이 많았다"며 "젊은 사람들이 목탁을 두드리며 심신을 안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여러 굿즈들을 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체 디자인으로 다양한 굿즈를 선보이는 '붓다컬쳐 보살'은 새로운 캐릭터 '무타(MOOTTA)'를 선보였다. 무념무상에 빠진 귀여운 부처 캐릭터인 '무타' 관련 굿즈들은 현재 거의 완판된 상황이다.

김홍준 붓다컬쳐 보살 대표는 "무타는 무상(無常)의 무(無)와 불타(佛陀)의 타(陀)를 합친 것이기도 하고 '없을 무'와 '많을 다(多)'의 합성어이기도 하다"면서 "명상을 하면 비워지며 비워짐이 많아지면 내적으로 충만해짐을 알았으면 해서 제작된 캐릭터"라고 설명했다.

코엑스 입구부터 박람회 인파
2030부터 중장년까지 '다양'
현장 등록 조기 마감 공지도

바반투, 해탈컴퍼니, 아미울
'B굿즈 3대장' 부스 인산인해

목탁 굿즈화 영천목탁 '혁신'
보살, 캐릭터 '무타' 선보여
동국대 GCS 열반급행 '눈길'

예상희 · 양경수 등 작가들도
불교굿즈 제작해 호응 높아
종교 넘어 '佛며드는' 현장

이어 "많은 젊은이들이 격하게 안 하고 싶고 쉬고 싶다고 하는데 이런 캐릭터를 통해 쉽게 불교에 접근하고 힘들었을 때 불교를 찾게 되는 인연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동국대 학생들로 이뤄진 프로젝트팀도 많은 호응을 얻었다. 동국대 GCS(Graphic Communication Science) 전공이 선보인 '열반급행'은 일상 속 지하철을 깨달음의 공간으로 재정의한 콘셉트로 부스를 꾸몄다. 이들은 자체 디자인한 프리미엄 티셔츠부터 1구 키캡키링, 경단 인형, 마우스 패드, 노트북 스티커 등의 굿즈로 대중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무엇보다 지역 사업체와 복지관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된 것이어서 의미를 더했다.

한수민(동국대 예술대학 한국화 전공 3학년)씨는 "GCS는 디자인과 프린팅, 패키징을 연계해 배우는 전공으로 동국대가 이번 박람회에 크게 참여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는 취지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며 "전공 관련한 제품들을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다는 점에서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성 작가, 굿즈 시장에 뛰어들다

올해 박람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현상 중 하나는 불교미술 작가들의 굿즈 시장 진출이다. 애초 작가 자신만의 IP(지식재산권)가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한 굿즈들을 선보였다.

10여 년 전 '힙한 불교'의 서막을 알린 일러스트 작품 '팔상도'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양경수 작가는 '붓다랜드'와 '견심사'를 선보였다. '붓다랜드'는 자신의 IP를 활용한 굿즈를 선보이는 브랜드이며 '견심사'는 비건 사료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브랜드다.

이에 대해 양 작가는 "붓다랜드의 경우 수년 전 붓다아트페어에서 공개한 작품들로 지난해 대구, 부산박람회에서 앞서 대중들에게 굿즈 형식으로 선보였다"고 소개했다.

'견심사'에 대해서는 "반려견인 루피가 고기를 먹지 못해 비건 사료를 먹이는데 이를 불교적으로 해석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루피의 주치의 선생님과 의기투합하게 됐다"면서 "반려견 인구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강아지와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사찰들이 많아졌으면 해 '견심사'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강아지와 함께하는 '멍상', '독파민' 등의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남편과 함께 '채이담'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예상희 작가는 동료인 조선화 작가와 함께 부스를 꾸렸다. 예 작가는 2025년도 천태예술대전에서 '금니석가삼존오백나한도'로 대상을 수상한 실력파다. 그 역시 올해에는 단청 마스킹 테이프, 그립톡, 단청 스탬프, 자체 디자인 맨투맨 티셔츠 등 다양한 제품군을 선보였다.

예 작가는 "이전 박람회의 붓다아트페어에는 꾸준히 참가하고 있었는데 트렌드가 변화하는 것이 보였다. 지난해 2~3개 정도의 제품군으로 참여했는데 반응이 있어 올해에는 라인업을 확대했다"면서 "주말 영향인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매해주고 있다. 카드기도 처음 써보는데 얼떨떨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불화 자체가 워낙 고가라 일반인들은 구입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작은 소품 형식으로 굿즈화를 하니 구매하는 분들이 많다. 이 역시 새로운 포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굿즈, '佛며들게 하다'

이제 '불교굿즈'는 산업적으로는 거대한 시장이면서 젊은 세대에게는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매김했다. 라이프 웨어부터 명상 오브제, 문구류, 키링 등 소품까지 다양한 제품군을 젊은 세대가 열광적으로 소비하는 것은 제품에 담긴 불교적 메시지 때문이다. 이는 종교를 넘어 불교를 '스며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바반투 부스를 찾은 김소연(24·서울 마포구) 씨는 "불자는 아닌데 평소 불교문화를 좋아해 친구들과 템플스테이를 자주 다닌다. 불교 관련 제품들을 파는 바반투 브랜드도 좋아해 박람회를 찾았다"면서 "본래 108배 모자를 사려 했는데 품절이라서 뭘 살지 고민중이다. 바반투 제품은 종교와 관계없이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이라서 선호한다"고 밝혔다.

영천목탁 부스에서 만난 어지원(29·서울 노원구) 씨는 목탁의 매력에 푹 빠졌다. "지난해부터 박람회가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들어 올해는 친구들과 참석하게 됐다"고 밝힌 어 씨는 "목탁을 만져보는 것도 마주하는 것도 처음"이라며 "목탁을 쳐보니 손끝부터 맑음이 퍼져나오는 느낌이다. 소리도 너무 좋다. 사람들이 왜 목탁을 치면서 힐링을 하는지 알겠다"고 감탄했다.

개신교인임에도 불교문화가 좋아 알바를 자청한 사람도 있었다. 해탈컴퍼니 부스 아르바이트생 정민주(23·경기도 안산) 씨는 "SNS를 통해 처음 해탈컴퍼니를 보고 'MZ스럽다'고 생각했는데 불교 관련 메시지들이 담겨 있었고 이내 흥미를 갖게 됐다"면서 "그간 해탈컴퍼니를 SNS를 통해 응원해오다가 이번에 아르바이트를 지원·합격해 박람회에 함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개신교를 믿으면서 힘들었던 것이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간다'는 등 강제적인 부분들이었다"면서 "하지만 불교는 정치적 이념, 종교적 가치 등과 상관없이 모두가 잘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지향한다고 생각한다. 불교를 신앙하지는 않더라도 가르침에 대해서는 공부해 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현장에서 만난 구미 대둔사 주지 서원 스님(직지사 문화국장)은 "일각에서는 박람회가 너무 굿즈 등의 소비에 치중돼 있다고 걱정하는데 반대로 굿즈로 인해 젊은이들이 불교에 관심을 갖고 찾고 있다. 이는 지역으로도 확대되고 있고 이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불교는 곧 생활"이라고 강조한 스님은 "젊은이들이 회사를 창립해 불교굿즈를 만들어 대중에게 선보이는 것만으로 정말 대견하다"면서 "이 같은 트렌드를 연결해 불교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스님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6년 4월 15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574호 | 14 | 전면광고

술 먹고 남의 방에 들어가거나 도박과
광대놀이 좋아하면서 나쁜 벗 사귀고
게으른 이는 훌륭한 사람에게 칭찬 못 받네.



부처님 말씀 읽기 - 《선생자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포교원 건물 급매
- 대지 : 200평
- 4층 포교원, 5개층, 산 밑 근린
- 생활시설, 현6000/700만수익
- 시세 70억 매가 : 45억
- 위치 : 경남 사찰
- 부지 : 20000평
- 대웅전 70평 외 전각 다수
- 산 밑 버스진입 및 주차
- 급매가 : 20억

주차가, 매수완료 시 수익1000~1300만가능

※5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전국전통, 사찰, 암자, 땅, 다량보유, 창건주승계,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양도, 양수, 전통사찰지정, 신행, 출가,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스님유품정리. 골동품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시 세검정 (광화문까지 자동차 10분)
- 대지 84평/국유지 50평(사용가) 법당/요사채 76평
-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 (불상, 불화 등)
- 가액 : 9억5천만원

010-6325-5112

포교원 안내

- 경남 밀양시, 5층 중에 2층, 70평
- 삼존불, 인등, 원불, 영가위패인등, 산신인등, 각방 에어컨, 방 4개, 냉장고, 세탁기 등 시설완비 (시설비 1억 7천만원)
- 무료 주차장 약 50대, 병원, 은행, 마트 1분 거리, 사주 하시는 분 강력 추천, 비품대 확실히 잘 해드리겠습니다.
- 보 5백만원, 월 43만원, 시설비 2천 5백만원

010-9424-477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사찰
- 대지 : 120평
- 건물 : 건물외 부속건물 약 30평
- 난방 : 태양열 시설이 되어있음
- 가격 : 1억원 (절충가능)

010-5436-5801

사 찰 안 내

- 위치 : 청통와촌IC에서 7분거리
- 아주 고요하고 조용한 사찰
- 총 평수 453평, 현대식 건물 3동 1층 요사30평, 14평, 산신각 2평 2층 법당28평
- 건물 대지 종교건물
- 가액 : 3억 8000만원

010-5804-5100

사찰(급)안내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울진군 후포면 만산길 320 청명사
- 가액 : 2억 7천 만원
- 총 토지 면적 : 520평 / 법당 : 19평 요사채A동 : 19평 / 요사채B동 : 17평 삼성각 : 2.5평 / 주지 : 연공스님
- 건물 및 토지 일괄 매매, 즉시 입주 가능 노스님께서 건강 악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사찰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010-5275-1373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공주시에서 20분
- 총면적 840평 대웅전 21평(목조), 산신각5.5평 요사채 31평(황토벽돌)
- 야외 화장실, 공양간
- 가격 : 6억5천

010-2333-300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 대지 : 1000평, 건물 : 60평(건축6년)
- 대웅전 공양간 요사채 베란다 40평
- 도량에 진신사리 10층석탑, 약사불 포대화상, 12지신, 조경, CCTV완비
- 주차장 500평(하천부지), 저온창고 6평
- 건강 악화 부득이 정리, 모든 집기류 인계
- 가액 : 12억원(절충가능)

010-2857-2811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마산 가포동
- 임야 2000평, 주방 2, 요사체 2, 실내화장실 2, 각각 20평씩
- 약사여래좌상, 5층석탑1개
- 시내8분거리 / 노스님 몸이 아픔
- 사찰 아래 아파트 단지 조성중
- 자연석굴 산신당
- 금액 : 1억6천 (가격 절충)

010-4192-0334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내
- 대지 : 108평
- 대웅전, 삼성각, 요사채 몸만 오시면 바로 법회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 1층은 세를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 가액 : 5억6천

010-3868-821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서구 시약로 반야암
- 법당 포함 38평
- 가액 : 5000만원

010-9154-665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시 안강읍
- 대지 : 300평, 법당 23평, 종무소 10평, 요사채 40평
- 마애불, 법당4평, 산신각, 용왕전
- 태양광-태양열 설비 완비
- 가액 : 3억 3500만원

010-5097-5289

현대불교신문 지면광고시 무료영상 게재

NO.1 사찰 매매 정보 채널

좋은 인연 사찰 안내

사찰 복덕방

www.youtube.com/@사찰복덕방

사찰복덕방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 동국대병원10분
- 대지 : 250평
- 법당 : 30평, 요사채3동, 정남
- 2차선 버스정류장에서 100m
- 가액 : 3억, 조정 무

010-9388-0215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 북구 동대로 43(호계동) 3층 상가건물 3층
- 148.5㎡ 방3, 보 2,000만
- 월 90만
- 시물권 없음, 법당시설완료
- 포교지로 철학관 무속인 적합

010-9110-3301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서울 불광동 전철역 옆
- 보증금 500만원/월세 40만원
- 법당 30평, 방 2개

스님 이민관계로 시설비 천만원에 법당 에어컨, 냉장고 일체 드리고 갑니다

010-5399-1225

사 찰 안 내

- 위치 : 산청군 생비량면 선운암
- 종교용지 : 약 247평
- 전통기와 법당 : 약25평. 단청, 탱화, 삼존불을 모시고, 상단, 신중단, 영가단으로 구성
- 요사채 : 약 30평, 방 3개, 식당 1, 화장실 2개, 창고 2개 / 약15평
- 사찰 접경 임야 : 약 577평
- 부도탑2, 사찰경내 석조미륵좌상 1개, 탑1개, 돌탑4개, 주차장 포함
- 가액 : 7억 5천만원

010-2351-301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통영시
- 규모 : 380평 (법당 30평 및 요사채 공양간)
- 가액 : 2억 8000만원

010-5316-5669

사 찰 안 내

- 위치 : 영천시 고경면 논실리 82번지
- 대지 : 230평
- 법당. 산신각
- 주차 5대 가능
- 공양간 약 20평
- 금액 : 2억3천답사후절충가능

010-9389-7457

토 굴 안 내

- 대지 : 약 2천평
- 법당1개 산소자리 명당
- 6m 약사여래불 5층 탑 2개/3존불 모셔져 있음(용궁전)/석불 대형 산신불 1개/요사채 2동(소 우사도 있음)
- 가액 : 6억 5천 급매매(스님 연세)
- 충남서천군 문산면 판문로 378번길 48의 47호 약수암

010-3922-7778

사찰(급)안내

- 위치 : 김해시 지내동 (지내역 5분거리) 활천중학교옆
- 건평 : 대지 270평
- 창건 30년
- 가액 : 4억 9000만원 (융자 3억 가능)

010-3198-173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고성 (창원시 경계지역)
- 규모 : 토지 350평
- 사용면적 : 약1,000평 법당. 종각. 삼성각. 요사채. 공양실 스님 몸만 오시면됩니다
- 법당 법구일체 냉장고.세탁기등 모두 보시하겠습니다
- 가액 : 2억5천만원

010-9227-4387

토 지 안 내

- 위치 : 연천군 왕징면 무등리 산5-1
- 매매금 : 3억원
- 2000평 규모, 대지 600평 건축허가 취득
- 수목장 및 납골당, 반려동물 화장장 등 최적지

010-4727-6065

사 찰 안 내

- 위치 : 산청군 시천면 지리산 청학동 주위 해발700고지 청학동 15분거리
- 명당자리(풍수지리)/ 공양간(수각) -자연공간으로 계곡물 사용(신선하고 넓음)
- 주위에 계곡 및 실내에서 본 전망 정말 좋음
- 종교용지 427평(임야90평)
- 법당20평, 요사체80평, 거실20평, 황토방7개. 공양간(수각), 요사체 위 법당있음(종교용지)
- 주차 20대가능
- 금액: 상담후 결정



010-5204-0050

좋은인연 대출안내

- [x]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x]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x]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159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부동산 모든문제(사찰)를 해결해 드립니다

못파는 부동산(사찰)을 팔아드립니다. (무료상담)
못사는 부동산(사찰)을 사드립니다. (무료상담)
(사찰 : 5천만, 9천만, 2억, 5억, 9억, 12억, 15억, 30억, 75억 매물보유)
정성 부동산문제해결연구원 원장 행정학박사 정 용

정용 원장 약력

부동산평론가 (전국최초), 부동산 중개경력 40년 / 영남대학교 부설 글로벌평생교육원 부동산경영최고위과정 책임교수 / 대구과학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겸임교수(역임), 방송인 / 경일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 겸임교수 (역임), 영남일보객원기자(역임)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광역시 9대 지부장, 대구광역시 7대 시의원

대구 동구 제27140-2021-00097호

정용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010-2512-7777

아주 아주 특별한 사찰부지 안내

천하명당입니다. 500억원 불사 중 중단상태

- 금목서, 동백, 반송, 매실, 연상홍 등 다량식재
- 계곡에는 천년수림, 편백과 소나무 치유의 숲
- 요사채(주거동), 사무동 여러 채 수석 등 있음
- 거제시 둔덕면 시목리377번지 외 23필지 8천명
- 급매 : 대출12억, 개인10억 책임지고해결 몽땅27억

토요일 외 현장상주 안내

010-6574-5044 김실장

2026년 4월 15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574호 | 15 | 전면광고

항상 새벽처럼 깨어 있어라.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을 즐겨라. 자기의 마음을 지켜라. 자기를 위험한 곳에서 구출하라. 진흙에 빠진 코끼리가 자신을 끌어내듯.



부처님 말씀 읽기 -《법구경》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바라·작법 전승학인 모집

1. 의식 염불, 사물 (49재·천도재·점안 각행사)
2. 천수바라·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문화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전수장학생 한시적 등록추천)
만득동 447-4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미륵암 '지평대사' (12불 수기)
99% 완치, 말기암 환자 1개월 내 치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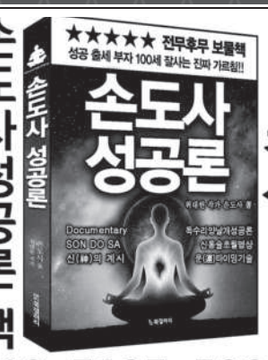
320년간 수기받음 / 교도소, 오지 등 전국방문 가능
즉시 영가 천도 / 불교-무교인 상담환영
집이나 땅 매매 안되는 분 성불 시켜드립니다
공항장애, 간질 등 몸이 안좋으신분 치유해드립니다
지평대사는 법문 대신 설법을 합니다
친견상담비 30분 330만원 / 완치 3000만원부터 시작

010-4804-2309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부전스님 모십니다

010-2078-9595

손도사성공론 책 꼭 읽어봐주세요



책이름 검색 해보세요
010-5105-5000

승가 유품정리 안내

스님 일반인 유품정리
사찰 법당 철거 해드립니다
최대한 정성껏 최소의 비용으로 부담없이 해드립니다
주소 : 부산시 동래구 동래로 159번길 58-7 동호(A) 309호

010-5507-7080 이주현

(운치있고, 5년간 자리잡은)
쌍화차 전문 찻집 운영하실
비구니스님을 모십니다

• 종목 : 소문난 쌍화차 전문 외 수제차, 커피, 팥빙수 등
• 규모 : 대지 300평, 건평 1,2층 50평 씩(100평)
• 보증금 : 2000/160, 3000/150 1층만 사용, 조정가능
• 권리금 : 상화차 및 시설 등 조정가능
• 특징 : 천년고찰 및 대형주차장 무료사용

010-2626-5155

대원불교미술원(청동 불상 전문업체)

청동 불상, 목 불상 특수 불상 조성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및 사찰에서 필요한 모든 불사 상담 환영합니다(법당이전 및 철거)
사찰법당 무속인 법당 철거하여 모셔다가 정성껏 파불하여 드립니다.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대원 임영달 lyd5798@naver.com 010-7171-2636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향로용 유리알 수정모사(향운정주)



▣ 상품명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1kg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1kg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전화 02-732-1520 , 팩스 02-737-0696
▣ 계 좌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바이넥스 / 원산지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국제결혼 인연맺어 드립니다

010-9260-1672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사찰토지보상 전문

JMY토지보상(감정평가)

덮어놓고 보상 삼보정재 손실
원가보상 철퇴! 사찰땅 가치인정

보상상담 도우미 010-2701-9500

해썹(HACCP) 인증업체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국내산 진짜 흑염소 진액 100%

(흑염소 높은 함량38%, 정제수 49%, 전통약재 13%)



2박스 (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지장보살 영옥함



지장보살 좌대에 영옥으로 봉안

사찰 납골의 혁신

• 유골이 보석화 되어 깨끗하고 변질이 없습니다.
• 납골의 곰팡이, 변질, 벌레 발생 근본적 해결함.
• 친숙한 사리 형상으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모시는 환경과 장소에 구속 받지 않고 경제적
• 관리가 어려워진 산소 정리 후 개장 유골도 가능
• 변질되어 악취 발생 및 물이 찬 유골도 가능함

• 고인별로 영옥의 색상이 다르게 발현됨
• 22년간 기술을 발전시켜 고인 고유의 아름다운
• 색상을 발현시키는 기술이 검증된 원조 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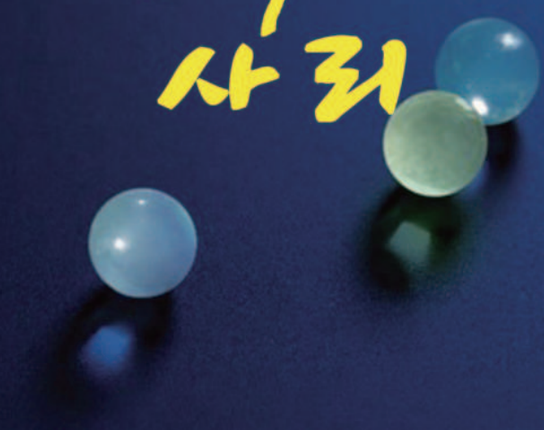
• 생성 소요 시간 60분 소요
• 납골을 모셔오고 생성 후 모셔 드리는 서비스 있음
• 영옥의 색상과 량은 고인 별로 다르게 발현됩니다.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직통상담 010-5235-2677
홈페이지 www.holytec.com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영옥(靈玉) 사리



SINCE 2002
오리지널 유골보석 전문업체
주식회사 본 향

NAVER 영옥사리 검색

비아냥 굴레 벗기고 본뜻 되돌려야

언어로 읽는 불교의 풍경

④ 속담 속 '중'은 왜 늘 시험대에 올랐을까
: '안전한 타자' 향한 언어적 투사와
그 이면의 중생심



속담 속 '중'은 수백 년 동안 우리 안의 지독한 중생심을 묵묵히 받아낸 거대한 심리적 배출구였다. 이제 사람들의 결핍과 위선을 대신 짊어진 채 기꺼이 웃음의 과녁이 되어 비아냥을 받아온 이 글자에 본래 이름을 돌려주어야 할 때다. 이미지 출처=Gemini 생성 이미지

우리말 속담에서 '중'은 가장 바쁜 주인공 중 한 명이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비 맞은 중처럼 중얼거린다", "중노릇도 못한다", "중을 잡아먹었나" 등 여러 표현에 수시로 등장한다. 그런데 '중'이 들어간 속담 치고 좋은 뜻을 가진 표현은 찾기가 어렵다. 이 세계에서 '중'은 무능하거나 쓸모없는 존재의 상징이자 조롱의 대상이며, 세속적 욕망을 버리지 못한 가장 못난 인간 군상을 총체적으로 대변하는 인물로 자리 잡고 있다.

왜 유독 '중'은 이토록 가혹하게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려야 했을까. 단순히 불교가 억압받던 시대의 편견 때문만은 아닌 듯하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대중들이 자기 욕망을 '중'에게 덮어씌우고 그를 비웃으며 위안을 찾았던 것은 아닌지, 그 조롱의 행간에 숨은 심리적 지도를 한번 펼쳐보려 한다.

'무리'→'개인', 의미 축소가 부른 조롱의 틈새

'중'의 어원은 그 뿌리가 어디인지 단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투명하다. 다만 여러 학설 가운데 자주 거론되는 것은 불교의 승가 '무리'를 뜻하는 한자 '중(衆)'에서 기원했다는 설이다. 즉, '중'은 여러 수행자가 화합하여 이룬 공동체 그 자체를 의미하는 말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단어는 한국어의 역사 속에서 큰 변화를 겪었다고 볼 수 있다. 한자어로서의 정체성이 점차 희박해지면서, 현대 국어사전에는 아예 한자 기원에 대한 정보 없이 오로지 고유어로만 소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단어의 뿌리가 잊힌 사건이 아니다. 거대한 정신적 가치를 공유하던 '집단'의 의미는 희미해지고, 삭발한 '특정한 개인'을 가리키는 말로 그 범위가 쪼그라들었다.

이렇게 공동체라는 보호막이 제거된 자리에 조롱과 비하의 뉘앙스가 침투하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조선의 억불 정책은 이러한 언어적 격하를 가속화했고, '승(僧)'은 '중'으로, 다시 '중놈'으로 낮잡아 불리며 풍자라는 도마 위에서 요리하기 좋은 재료로 전락했다.

탈춤과 속담, '안전한 타자' 향한 거침없는 웃음

속담 속 '중'의 이미지는 탈춤이나 판소리 속 인물들과 겹쳐지면서 더 또렷한 얼굴을 갖게 된다. 봉산탈춤이나 산대놀이에 등장하는 '노장'과 '목중'이 바로 그런 인물들이다. 특히 노장은 수행을 오래 한 고승으로 등장하지만, 유혹 앞에서는 너무도 쉽게 무너진다. 관객이 기다리는 건 그의 고결함이 아니라, 그가 무너지는 순간이다. 바로 그 장면에서 웃음이 터진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다. 탈춤은 양반도, 중도 모두 풍자의 대상으로 삼지만, 다루는 방식은 꽤 다르다는 사실이다. 양반 역시 허세 많고 무능한 존재로 자주 비웃음거리가 되지만, 그 조롱에는 어딘가 선을 넘지 않는 느낌이 있다. 아무리 망가져 보여도 양반은 여전히 현실의 권력을 쥔 기득권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을 비웃는 데는 늘 불편한 긴장이 뒤따랐다.

반면 중은 달랐다. 세속의 권력도, 집안의 배경도 스스로 끊고 나온 존재였다. 쉽게 말해, 뒤를 봐줄 사람이 없는, 만만한 대상인 셈이다. 그래서 노장이 욕망에 휘둘리며 망가지는 모습은 훨씬 더 거침없이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때로는 몸짓과 상황을 과장해 가며 웃음의 수위를 직설적이고 파격적으로 끌어올린다.

관객들은 아무런 위협 없이 깔깔거리며 그 모습을 즐겼다. 이런 분위기는 속담에도 그대로 남아 있다. 양반을 비꼬는 말보다 중을 향한 속담이 훨씬 노골적이고 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집단 의미 퇴색되자 조롱·비하 가속화
보호막 없어 노골적 풍자의 대상 전락
수행 흉보기 통해 욕망 정당화 수단 돼
'무능 결정체' 박제해 결점 은폐 도구로
세속 허물 받아낸 포용의 또 다른 얼굴

금기 가진 자만 줄 수 있는 역설적 카타르시스

역사적 배경에 더해 '중'을 가혹한 시험대의 주인공으로 만든 결정적 이유는 그가 '금기를 스스로 짊어진 존재'라는 사실이다. 중이 지닌 금기는 역설적이게도 대중의 조롱에 최적화된 조건을 제공했다. 대중은 수행자가 설정한 도덕적 문턱을 그가 얼마나 위태롭게 넘나드는지 감시하며 그 틈새에서 짜릿한 즐거움을 찾았다.



봉산탈춤 중 노장춤 장면. 사진=국가유산포털

첫 번째 시험대는 외형이다. 불교에서 삭발은 번뇌를 끊겠다는 숭고한 서원이지만, 유교 질서 안에서는 '불효'의 극치로 해석되는 파격이었다. 머리카락 하나 자르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했던 시대에 매끄러운 대머리는 그 자체로 구경거리였다. "중 나라에 가서 빗 찾는다"와 "중의 상투" 같은 속담은 이질적인 외형에 대한 호기심과 거부감을 동시에 보여준다. 머리카락을 포기한 순간 그는 어디서든 눈에 띄는 타자가 되었고, 대중은 그를 보며 정말 세속의 번뇌를 끊었는지 끊임없이 확인하려 들었다.

두 번째 시험대는 본능적인 욕망이다. "중이 고기 맛을 알면 절에 빈대가 안 남는다"거나 "중이 젓갈 맛을 알면 불상을 팔아 치운다"는 속담은 섬뜩하기까지 하다. 일반인이 욕망을 탐하는 것은 이야깃거리가 되지 않지만, 금욕을 선언한 수행자가 금기를 깨는 순간 그것은 거대한 구경거리가 된다. "중이 염불은 안 하고 잿밥만 밝힌다"는 표현 역시 본질보다 부차적 이익에 집착하는 인간의 탐욕을 '중'이라는 거울에 비추어 조롱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다. 일종의 자기합리화에 가깝다. 수행자조차 결국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속물적 본능의 힘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그러면서 '저런 수행자조차 무너지는데 나 같은 범인이 욕망을 좇는 것은 당연하지 않으냐'는 안도감을 경험했을 것이다. 결국 사람들은 중을 흉보는 동안, 자기 욕망을 조금은 정당화해 줄 핑계를 얻었던 셈이다.

실패의 바닥선이 된 무능의 아이콘

이러한 뒤탈 없는 만만함은 급기야 대상을 '무능함'의 틀 속에 가두는 방식으로 진화했다. 속담 속에서 중은 흔히 사회적 능력의 최저 기준선, 혹은 의존적 집단을 대표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속담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조차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 상황을 대표하며, 결정적으로 "중노릇도 못할 놈"이라는 표현은 중이라는 존재를 사회적 신분 사다리의 마지막 칸이자, 누구나 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조차 감당 못 하는 무능의 결정체로 낙인찍는다.

이 지점에서 대중의 비겁한 위안이 작동한다. 관리의 타락은 국가의 근간을 흔들지만, 생산과 권력 바깥에 놓인 중의 무능은 공동체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지 않는다. 그렇기에 중은 '아무리 비웃어도 공동체의 질서가 위태로워지지 않는 가장 안전한 실패의 바닥선'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렇게 사회는 집단적인 자기 성찰 대신 모든 무능의 서사를 '중'에게 몰아주었다. 그를 무능의 아이콘으로 박제함으로써 스스로의 결점은 은폐하고,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다'라는 비루한 우월감을 챙기려 했던 것이다.

'중(衆)'의 복권: 조롱의 거울을 닦으며

결국 속담 속 '중'은 수백 년 동안 우리 안의 지독한 중생심을 묵묵히 받아낸 거대한 심리적 배출구였다. 사람들은 그를 조롱의 시험대에 올려놓고 자신의 위선과 결핍을 덜어냈으며, '중'은 기꺼이 웃음의 과녁이 되어 세속의 비루함을 대신 짊어져 왔다. 조롱이라는 형식을 빌려 드러난 이 풍경은, 어쩌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세속의 허물을 받아낸 불교적 포용의 또 다른 얼굴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무리 넓은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의 못난 중생심을 받아주었다 하더라도, 수백 년이나 이런 조롱을 견뎌왔다면 이제는 정말 충분하지 않은가.

이제 그에게 씌워진 비아냥의 굴레를 벗기고, 본래의 이름을 오롯이 돌려주어야 할 때다. 조롱의 대상이 된 초라한 한 개인이 아니라, 서로를 덮어주며 함께 나아가는 화합의 공동체라는 그 본래의 의미 말이다. 그 본래의 의미를 되살리는 일은 오랫동안 시험대 위에서 고초를 겪어온 이 단어를 따뜻하게 위로하는 길이자, 동시에 타인을 깎아내리며 비겁한 위안을 얻던 우리 안의 '중생심(衆生心)의 언어'를 내려놓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김지오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조교수



수행자의 이상적 인격, 사군자에 담다

사찰벽화 명작순례

⑦ 창녕 관룡사 약사전 화조도 벽화

법당장엄에 성리학적 문인화 등장

조선 후기 전통사찰 법당장엄에서 수묵화도 중요한 소재 중의 하나로 수용됐다. 조선시대 법당장엄 벽화의 흐름을 큰 시선으로 살펴보면 불보살의 불교장엄 중심→수묵산수화와 조사 및 고사인물도→민화풍의 화조도로 이행해 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순천 선암사의 불전들이나 영광 불갑사 대웅전, 공주 마곡사 대광보전, 고흥 금탑사 극락전, 김천 청암사 보광전, 순천 송광사 관음전 등에선 수묵화나 사군자, 화조도 등을 법당장엄의 중심 소재로 활용하는 뚜렷한 경향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창녕 관룡사 약사전의 경우 한 칸 규모의 작은 법당 안팎에 사군자, 화조도, 묵매도, 소나무 그림 등 법당장엄에 유가적 경향의 소재 일색이라 눈길을 끈다. 법당장엄에 왜 선비 문화의 정수라 할 수 있는 성리학적 문인화, 곧 사군자나 수묵화가 등장하는 것일까?

조선 후기에 이르러 사찰벽화 장엄에 사군자나 수묵산수화 등 유가의 성리학적 화풍을 수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매난국죽 사군자나 수묵산수화는 은일과 절의, 지조, 청정, 고결의 이미지로서 죽림에 묻힌 은일 군자의 상징으로 해석됐다.

동양철학에선 자연 형상을 통해 사람의 내면이 추구하는 정신세계를 표현하는 '이형사신(以形寫神)'의 태도를 견지했다. 예컨대 한겨울의 추위 속에서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소나무 한 그루나 추운 겨울에 꽃을 피운 고매한 그루는 선비의 고아한 절의의 상징으로 감정 이입됐다. 그런 자연 이미지는 불교 선 수행자가 견지해야 할 계율과 청정의 덕목과도 겹쳤다. 선과 문인화의 결합은 서로 내면적으로 통하는 데가 있다. 소박하고 간결하며 직관적이고 내면의 고요한 마음과 정신성을 강조하는 측면 등에서 상통한다.

진리의 아름다움에 이르는 미학적 추구 방향도 다르지 않다. 법당을 사군자 벽화로 장엄함으로써 내면의 청정함을 닦는 수행정진 공간의 의미도 살려냈다. 사군자 중심의 수묵화나 화조도는 수행자의 이상적 인격을 시각화한 문인화풍 상징 벽화로 적극 수용된 산물로 해석 가능하다.

상층엔 53불벽화, 하층엔 수묵화풍

관룡사 약사전 내부의 벽화장엄은 뚜렷한 두 개의 층위를 보여준다. 벽면의 상인방 위는 부처의 세계로, 상인방 아래는 문인화풍 사군자와 민화풍 화조도로 장엄했다. 상인방 위에 조성한 벽화는 놀랍게도 대단히 희귀한 53불 벽화다.


창녕 관룡사 약사전 내부 동측 면 벽화(사군자).


창녕 관룡사 약사전 내부 서측 면 벽화(화조도).


창녕 관룡사 약사전 내부 53불벽화 중 북측 면 부분.

북측 면	4개 화면			
	매화도			
동측 면	매화도	난초도	국화도	대나무도
	백매+새1	난초+백로2	국화+나비2	대나무+새1
서측 면	국화도	연화도	포도도	국화도
	국화+나비2	연화+새1+갈대	포도+새1+토끼1	국화+나비4

53불 벽화는 두 곳에만 현존한다. 안동 봉황사 대웅전과 관룡사 약사전 두 곳뿐이다. 53불은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불모다. 과거·현재·미래, 삼세의 모든 부처님들이 53불을 지극히 예경한 인연 공덕으로 부처가 되셨다고 〈관약왕약상이보살경〉은 밝히고 있다.

동서남북 사방 상벽에 그린 53불 벽화는 종이에 그린 후 벽면에 붙인 독특한 첩부벽화다. 53불의 본질은 청정이다. 모든 부처님은 청정한 마음에서 나투셨다. 하층의 벽화도 청정한 무위의 자연 세계다. 상층의 53불 벽화와 하층의 수묵화풍 화조도가 중층적 평행우주를 이룬다. 두 층위의 장엄세계는 이질적이지만 청정의 본질에선 둘이 아니다. 상인방 아래 벽화의 중심 소재는 사군자와 화조도, 그리고 묵매도다. 북측면과 동서 측면에 걸쳐 동북서 삼면에 그려 뒀다. 삼면의 각 면은 활짝 펼친 4폭 병풍 형상이다. 동측 면 4폭 벽화 크기는 세로 172㎝×가로 240㎝에 이르고, 서측 면의 4폭 벽화는 171×230㎝, 북측 면의 4폭 벽화는 161×280㎝ 크기다. 세 화면은 동측 면에 매난국죽의 사군자를, 서측 면에 민화풍의 화조도와 포도도를, 북측 면에 단순 간결한 묵매도를 중심 소재로 삼았다. 동서 양 측면의 수묵화풍 사군자와 화조도가 단연 탁월하다. 두 화면을 연결하면 하나의 8폭 화조도 병풍을 이룬다. 한국 산사에 장엄한 수묵화풍의 벽화 중에 구성이나 크기, 채색, 표현력, 예술성취도 등에서 비교 불가로 단연 뛰어난 수작이다. 단순히 공간을 장식하기 위한 소비적 벽화가 아니라 대단히 목적의식적으로 조성한 진채수목화 사찰벽화로서 특별한 위상을 가진다.

채색 원리에서는 묵의 농담으로 자연 대상을 표현한 수묵화풍에 드문드문 진채를 베풀었다. 수묵화의 담묵은 대상이 지닌 특성을 깊이 내면화시키는 미묘한 힘이 있다. 진채는 감정이 보다 직관적이다. 벽화에선 감정을 들뜨게 하지 않기 위해 색채 사용을 대단히 절제하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약사전의 수묵화풍 벽화 구성은 다음과 같다.

사찰벽화에서 선비 문인화의 대표격인 사군자의 목적의식적 조성은 희귀하다. 울산 백양사 칠성각에서처럼 포벽 등에 분산해서 그려 둔 사례는 간혹 있지만 관룡사 약사전처럼 바탕 마감에서부터 대칭적 구성까지 대형 화면을 기획하여 조성한 사례는 유일하다고 봐야 한다.

형상에 정신 담은 '이형사신'의 태도
동벽엔 사군자, 서벽엔 민화풍 화조도
동서벽면 화조도는 하나의 8폭 병풍
목적의식적 최대 규모의 대형 화조도

성리학적 선비들의 그림인 사군자 문인화도 민화풍의 화조도적 성격으로 재해석하여 그려서 더욱 인상적이다. 모든 꽃과 나무에 새나 학, 나비를 그려 넣었다. 사군자와 연꽃, 포도 등의 중심 소재는 모두 수묵화풍으로 그렸다. 붓질이 대단히 능숙하고 사실적이며 자연스럽다. 꼭 필요한 최소한의 요소로 내면의 깊은 감성을 표현하는 담담한 수묵화의 골기가 살아 있다. 잎에 올린 먹의 농담 처리도 능수능란하고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는 응물상형의 묘사력도 탁월하다. 전문 화원의 능숙한 붓놀림이 눈에 선하다. 간간이 새나 나비, 꽃봉오리에 진채를 가볍게 툭 풀었는데 그것이 불상의 점안처럼 화면에 미묘한 생동감과 생명력을 불러일으킨다. 옅은 담묵과 짙은 농묵의 조화로운 농담으로 드러낼 것은 드러내고, 잠길 것은 잠기게 했다. 예사로운 붓질이 아니다. 매난국죽의 사군자를 이토록 부드럽고 생명력 있으며 정감 있게 표현한 벽화는 또 없을 것이다.

사군자, 수행자의 이상적 인격화

서쪽 벽면에 그린 민화풍의 화조도(화접도) 중에선 연꽃 표현과 포도도 벽화에 눈길이 간다. 연꽃은 불교의 꽃으로 연화화생이 작동하는 생명력의 근원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북송의 성리학자 주돈이의 〈애련설(愛蓮說)〉 이후 사군자와 더불어 도덕적 군자의 상징적 자연물로 감정 이입됐다. 주돈이는 〈애련설〉에서 모란, 국화, 연꽃을 비교하면서 자신은 꽃 중의 군자인 연꽃을 사랑한다고 적었다. "진나라 도연명은 국화를 사랑했고, 당대 이후로 세상 사람들은 모란을 매우 좋아했다. 그런데 나는 진흙 속에 자라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연꽃을 유독 사랑한다. 향기는 멀리 있을수록 더욱 맑고 우뚝한 자태로 청정히 서 있으며 멀리서 바라볼 수는 있으나 함부로 가지고 놀 수 없다. 생각하건대 국화는 꽃 가운데 은자이고 모란은 꽃 가운데 부귀한 자이지만 연꽃은 꽃 중의 군자[花中君子]이리라." 관룡사 약사전의 연꽃은 불교적 성격보다는 성리학적 군자상의 상징성에 더 방점이 찍혀 있다.

전통사찰의 법당장엄에서 간간이 포도 벽화를 볼 수 있다. 영광 불갑사 대웅전, 문경 김용사 응진전, 안동 봉정사 응진전, 남원 선원사 칠성각 등 예닐곱 곳에 현존한다.

포도 그림은 석류 그림과 함께 민간에서 다산과 자손 번창의 대표적인 상징 이미지다. 한 줄기에 숱한 씨앗, 열매가 맺히기 때문이다. 포도 그림의 핵심 구성은 덩굴과 풍성한 열매다. 덩굴에는 왕성한 생명력이 담겼고, 풍성한 열매는 씨앗, 곧 자손 번창의 염원이 담겨 있다. 약사전의 포도 그림에는 약사여래의 가피를 빌려 생명 잉태와 집안의 대를 영겁으로 이어나가려는 민간의 바람이 서렸다.

유심히 살펴보면 포도 그림 속에 흰색 토끼 한 마리가 보인다. 포도와 토끼는 다산의 은유로서 동의 반복과 다름없다. 자연의 형상에 담긴 형이상학적 상징을 통해 인간의 내면에 간직한 염원과 고귀한 정신세계를 비추고 있는 것이다.

선 수행과 예술에서의 사군자 수묵화는 서로 통하는 바다. 농묵으로 힘 있게 뻗쳐나간 일필휘지의 필선은 화두 참선을 통한 단박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선 수행의 기질과도 미학적 친연성을 가진다. 수묵 기법의 거침없는 필치의 사군자나 단순 간결한 묵매도 등은 순간적인 내면의 깨달음과 직관적 체험을 중시하는 선 수행과도 잘 부합한다. 사군자의 불교장엄 세계에의 수용은 고요한 관조와 사유를 통한 내면의 직관적 깨달음을 강조하는 선 수행승의 지향과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관룡사 약사전의 사군자 벽화 속에 선 수행자의 이상적 인격이 투영돼 있다. 약사전 벽화 속에 봄이 찾아와 꽃은 피고 나비가 날아들고 새가 지저귄다. 부처님 자비 속에 처처소소에 꽃이 만발하고 새가 지저귀니 곧 세상이 태평할 것이다.



노재학 작가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금색
전선간격
22㎝, 25㎝, 28㎝, 30㎝, 40㎝, 50㎝,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제등행렬용품
S형 건전지 초

LED태양광 솔라
(국산정품)

LED전구 국산인증
(정품)
고추구 12E 인지구 26E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 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 ·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기다리는 아픔

시, 불교를 만나다

㉚ 몸과 마음의 거리 : 황지우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사라지고 없지만, 예전에는 '코리안 타임'이라는 말이 있었다. 약속 시간에 30분 정도는 늦게 와도 너그럽게 봐주는 문화다. 그러다 보니 불만 섞인 소리가 나오곤 했다. 특히 단체로 움직일 때는 더욱 그랬다. 오래전 문화재 답사를 갔을 때의 일이다. 오전 여덟 시에 출발하기로 했는데, 아직 오지 않은 사람 때문에 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자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나온 어느 학인이 왜 출발하지 않느냐고 화를 내는 것이었다. 30분 늦게 온 사람에 비하면 1시간을 기다린 셈이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문제였다. 이 일로 인해 조금은 찜찜한 기분으로 답사를 떠나게 된 것이 못내 아쉬웠다.

물론 그 학인이 화를 낸 것은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음 상태를 분석해 보면,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그 학인의 마음속에는 8시에 출발한다는 내용이 입력돼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사람들이 오지 않아 출발하지 못하고 있다. 현실과 마음 사이에 넓은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다. 과거의 약속과 현재 상황이 일치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마음은 요동치기 시작한다. 기다림에 지친 사람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

"8시에 오기로 했으면 정각에 와야지. 왜 안 오느냐고!"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다. 황지우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를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는 마음이 오롯이 담긴 작품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오지 않고 있다. 자꾸만 시선이 문 쪽을 향하지만, 그녀는 들어오지 않는다. 이럴 때도 마음이 먼저 움직여 오지 않는 이를 향해 간다. 마음이 앞서면 몸도 따라가기 마련이다. 아마 수없이 의자에서 일어섰을 것이다.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나 해서 말이다.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앞서는 것일까?

황지우는 1980년대를 대표하는 시인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해체시를 이야기할 때면 늘 등장하는 인물이다. 해체시란 글자 그대로 기존의 시 형식을 해체, 또는 파괴하여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시 안에 특수문자나 도표 등이 등장하기도 한다. 시인이 주로 활동하던 80년대는 군사 독재 정권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시대였다. 황지우는 대학 시절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학생 운동을 하고 투옥되기도 했는데, 이런 경험이 쌓여서인지 그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독재에 저항하거나 이를 풍자하는 시를 썼다.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는 구속돼 대학원에서 제적당하기도 했다. 오늘 소개하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처럼 서정적인 작품도 많은 편이다.

시인은 1980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연혁(沿革)'이란 작품이 당선되면서 등단한다. 이후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면서도 대학에서 학문의 길을 걷게 된다. 그는 한신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극작과 교수를 지냈으며,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와 〈나는 너다〉, 〈게눈 속의 연꽃〉, 〈어느 날 나는 흐린 주점에 앉아 있을 거다〉 등의 시집과 시론집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호〉가 있으며, 〈오월의 신부〉라는 희곡집을 내기도 했다. 김수영문학상을 비롯해 현대문학상, 소월시문학상, 백석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오늘의 시 '너를 기다리는 동안'은 1991년 출간한 〈게눈 속의 연꽃〉에 실린 작품이다. 출판사는 "그의 시는 진흙탕 속에서 화엄의 꽃이 피듯이 현실의 세계와 화엄의 세계를 끊임없이 왕복하는 과정 속에 어느 순간 그 두 세계의 경계를 지우고 있는 것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출가해서 스님이 된 형의 영향 때문인지 화엄과 같은 불교적 색채도 그의 시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너를 기다리는 동안'에서 시인은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고 있을까? 직접 들어보기로 하자.

기다리며 애태우는 마음 담은 서정시
괴로움 초래 몸과 마음의 간극 보여
불자, 몸 · 마음 하나 되도록 정진해야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 내가 미리 가 / 너를 기다리는 동안 /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 너였다가 /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 다시 문이 닫힌다 / 사랑하는 이여 /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앞서가는 마음

이 시를 읽으면서 문득 〈어린 왕자〉에서 여우가 했던 말이 생각났다. 여우는 예고 없이 아무 때나 찾아오는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한다.

"매일 같은 시각에 오는 게 좋을 거야. 만일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4시가 가까워질수록 나는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마침내 4시가 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안절부절못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돼. 그런데 네가 아무 때나 온다면 언제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래서 예의가 중요한 거라고."

여우는 좋아하는 사람이 약속된 시각에 찾아오면, 그전부터 기다리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갑자기 찾아오는 깜짝 이벤트보다 약속을 정하면 기쁨이 훨씬 클 것이라는 뜻이다. 아들, 딸이 어머님께 언제 찾아뵌다고 전화하면 설레는 마음으로 자식에게 무엇을 먹일까 즐겁게 고민하는 것과 비슷하다. 〈어린 왕자〉를 다시 읽으면서 특히 공감이 많이 된 부분이다.

이처럼 좋아하는 사람이 정해진 시간에 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약속과 달리 상대가 오지 않는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왜 안 오는 것인지 궁금해서 몸이 가만있질 못한다. 부모라면 집 밖에 나가 차가 오는지 계속 기다릴 것이다. 통화마저 되지 않는다면, 그 걱정은 배가 된다. 누군가를 기다려본 사람이라면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시인 역시 사랑하는 사람이 오지 않아 애태우며 기다리고 있다. 혹시 오지 않을까 봐 마음이 몹시 불안하다.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며,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에도 가슴이 쿵쿵거린다. 나도 모르게 시선이 자꾸만 문을 향하고 있다. 시인의 말처럼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 너였다가 /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 다시 문이 닫힌다." 그녀이길 바라지만, 불행히도 그렇지 않다.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몸은 여기 있지만, 너무 천천히 오고 있는 그녀를 향해 마음이 그쪽으로 먼저 달려간다. 몸과 마음의 거리가 느껴지는 순간이다.

"눈 오는 날엔 /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는 게 아니라 / 마음과 마음끼리 만난다 / 그래서 눈 오는 날엔 / 사람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경우가 많다. // 눈 오는 날엔 그래서 / 마음이 아픈 사람이 많다."

이정하 시인의 시 '눈 오는 날'이다. 몸과 마음의 거리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아 소개한다. 눈 오는 날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그린 작품이다. 도저히 참기 힘들면, 몸이 가만있질 못하고 마음을 따라 그녀가 있는 곳으로 향하기도 한다. 사랑에 빠진 이들의 숙명이다. 마침, 눈도 내리고 있지 않은가. 우연인 척 가장해서 그녀가 사는 곳으로 가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눈 내리는 날이면 마음 아픈 사람이 많은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몸과 마음의 거리를 느끼면서 살아간다. 앞에서 소개한 버스가 출발하지 않아 화를 낸 경우도 마찬가지다. 몸은 차 안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출발하고 있었던 것이다. 언젠가 전법 차원에서 이 지역 부대에 근무하는 군인들을 불교대학에 초대해서 일요법회도 보고 맛있는 갈비를 사준 적이 있다. 법문 시간에 그들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몸은 법당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저 멀리 갈빗집에 가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조금 일찍 마치고 몸과 마음의 거리를 좁혀주었다.

몸과 마음의 거리가 멀면 우리들 삶은 괴로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거리를 줄이는 지혜가 필요하다. 염불이나 명상, 절 등은 이를 줄이기 위한 수행이다. 마음공부가 잘 되면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사랑에 빠진 경우는 예외다. 그건 마음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이니 말이다.

원로 불교학자 강건기 교수는 어느 특강에서 "몸 있는 곳에 마음 있게 하라"는 말을 남겼다. 몸과 마음이 분리된 삶은 괴로우므로 간극을 줄여야 행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몸과 마음이 하나 되도록 정진하는 것이 불자의 삶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일일시호일

신장 절반 손상된 이른둥이
"우리 아이를 도와주세요"

34주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
아이의 미래를 지켜주세요

양쪽 신장 절반 이상 손상…신장 이식 필요
장기 치료 필요 상황에 병원비 1500만 원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대행 스님

마음 한군데다 뭉쳐서 놓는 작업을 열심히 하라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5(남) 제가 선원에 나오기 전까지는 술도 좀 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좀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나오게 되면서 그런 것이 일체 끊어지고 '무조건 선원에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게 되는데 선원에 들어서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고요해져서 눈물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현재 가고 있는 마음의 점검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무작정 나왔습니다.

큰스님 하하하. 점검을 뭘로 할까요? 고요한 마음이니깐 된다, 안팎이 없는 고요한 마음이 되셔야 되겠죠? 집에 있으나 변소엘 가나 여기 절에를 오나, 하여튼 당신이 있는 곳곳마다 부처는 계시니깐요. 당신이 있기 때문에 부처는 있는 겁니다. 당신이 없다면 모두가 무효죠. 그러니까 당신을 끌고 다니는 당신 주인에게 모든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거기다가 맡겨 놓으면서, 모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용도에 따라서 닥치는 대로, 그저 가난하면 열심히 지극하게 벌이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악한 거든지 선한 거든지 모두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 탓으로 돌리면서 남을 원망하지 말고,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 것이 이 공부 하는 데는 적격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났으니까 내 탓이지 내가 이 세상에 나지 않았다면 뭐가 탓이 될 게 있습니까? 부닥침이 뭐가 있고? 그러니깐 잘했든 못했든 내 탓이죠. 그거를 네가 잘못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하고 따지게 된다면 이 선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몸뚱이가 떨어지기 전에 모든 도리를 알아서 증득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론으로만 알고 말로만 알고, 그저 강백으로서 설법을 여여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건 아닙니다. 내 몸 떨어지기 전에 열심히 하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몸 떨어지고 입 떨어지고 말 떨어지면 뭐 남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 열심히들 하십시오.

이 공부는 가난하다고 해서 못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못나서 못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모두가 육신 장애자보다도 정신 장애자가 많으니까, 그 정신 장애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인간으로서 자유스럽게 살자는 뜻입니다. 부처님도 내내 지금까지 그렇게 설하고 계시고요. 한 말도 한 예가 없고 한 생각도 한 적이 없고 또는 한 가지도 자기가 한 예가 없기 때문에 이날까지 하시는 겁니다. 끝 간 데 없이 말입니다. 어저께, 오늘, 내일이 없이, 중간도 없이 열심히 하세요.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서 잘해 나가신다니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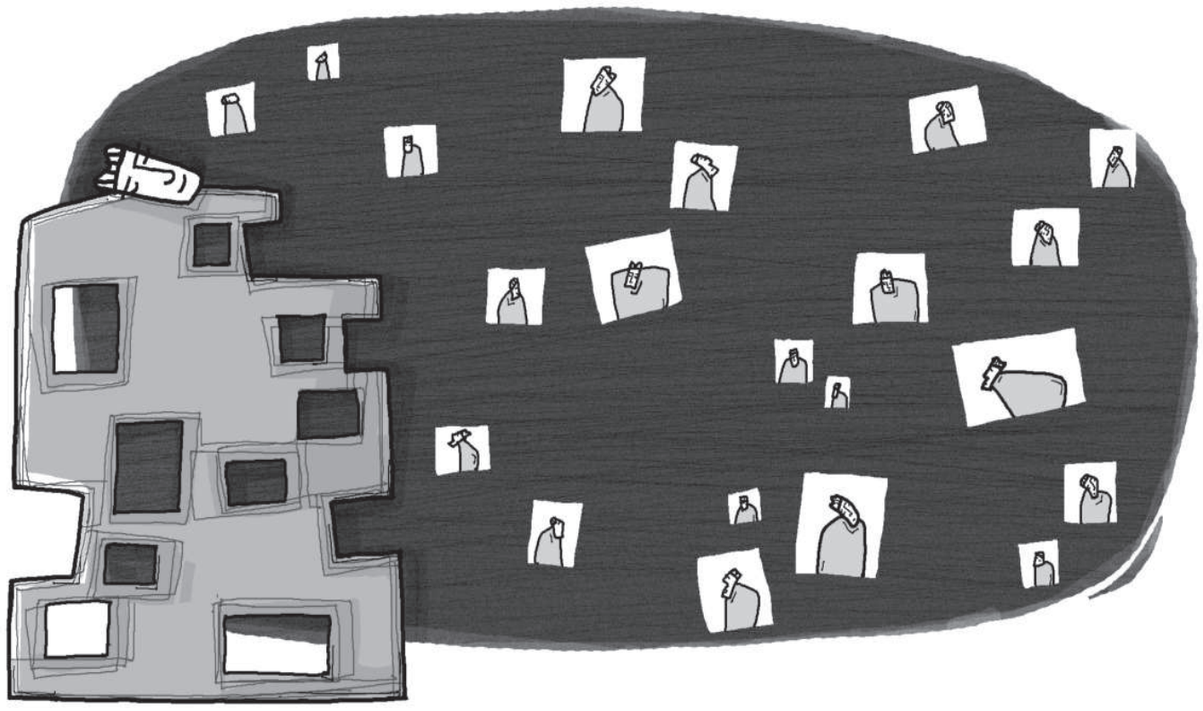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질문자5(남) 계속 정진하겠습니다.

질문자6(남) 제 내자가 본원과 대구지원에 한 3년 살다가 지금 그만 납골당에 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저승에 가서라도 산 세상과 같이, 대구·부산·서울 이런 데 모양으로 꼭 만날 수가 있을는지요. 말 한마디도 없이 갔기 때문에 스님께 한 말씀 여쭤 보려고 여기 올라왔습니다.

큰스님 인생은 모두가 만났으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만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한 사람을 만났으면 고정되게 그냥 똑같이 또 살고 영원히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영원한 만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캠핑 나왔다가 한 철 나는 겁니다. 그렇듯이 구름이 한데 합쳐졌다가 또 그 구름이 증발돼서 비로 내리고, 화해서 비로 내렸다가 또 증발돼서 구름이 되고, 또 비로 내리고 모든 일체 만 중생들이 다 너 나 할 것 없이 용도에 따라서 다 먹어서 부분이 되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른 쉽게 말해서, 구름이 한데 모였다 흩어지면 또 딴 구름하고 또 모입니다. 딴 구름하고 모이니까 착을 두지 마십시오. 한 철 같이 친구로서 이렇게 지냈을 뿐이지 거기다가 착을 두진 마십시오. 몸이 죽었다 하더라도 만약에 거사님의 마음속에, 한마음 속에 다 있는 거고 일체제불의 마음도 일체 조상의 마음도 일체 중생의 마음도 모두 내 한마음에 있다 생각하면 가깝게, 항시 끝 간 데 없이 가깝게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착을 두고 멀리 둘로 보지 마십시오.

질문자6(남) 대단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중략)

큰스님 질문 좀 하시라 그랬더니, 뭐 작으나 크나 질문은 질문입니다만, 저 보살님이 나와서 하신 말도 모든 게 근중한 겁니다. 다 버릴 게 없죠. '저렇게 되지도 않는 질문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되지도 않는 데서 되는 게 있거든요. 하하하. 모두 되지도 않는 데서 되는 것을 알게 되고, 되는 데서 안 되는 거를 또 알게 되고, 반복해서 돌아가다 보면은 '야, 안 되고 되는 게 없구나.' 이런 걸 또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일체 만물만생 돌아가는 걸 잘 보세요. 따져 본다면 한 가정뿐이 아니라 한 몸에서도, 지금 수십억의 중생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다스리는 내 마음이 이 모든 것을 둘로 보지 말고 다 다스려야, 이게 화해서 나투면서 털구멍을 통해서 들고 나면서 모든 안팎의 살림살이를 잘하고 갈 텐데 내 속에 들어 있는 악업 선업의 그 업식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냥 털구멍을 통하고 눈구멍을 통하고 귓구멍을 통해서 온갖 악한 거는 다 몰아오고, 액운은 다 몰아오고 좋은 거는 적고, 이렇게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스리는 마음에 바로 이 수십억의 의식들이 다 따라 줍니다. 다스리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에 기준을 둬서 다 따라 줍니다.

이거 거짓말로 알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항상 이렇게 말하죠. '숙명통' 하면은 컴퓨터와 같다고. 과거에 모든 업을 지은 것이 바로 현실에 인연에 따라서, 모두 내 몸속에 거듭거듭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것이 발로가 돼서 그냥 나오는데, 나오는 대로 거기다가 되맡겨 놓으면, 그 숙명통 컴퓨터에 앞서 입력이 돼서 자동적으로 나오던 게 그냥 다시 입력을 하니까 그게 그냥 없어져 버리고 말거든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불바퀴에 닿기만 하면 다 타 버린다고 하면 모두 모르기 때문에, 과거에 입력됐던 그 자체가 바로 내 몸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스님이 동짓날 팥죽을 쑤다가 팥죽 끓는 것을 보고 "요것도 문수, 요것도 문수, 요것도 문수." 했더랍니다. 그와 같이 내 몸뚱이 이 속이 팥죽 솥이라면, 그 팥죽 솥에서 팥죽이 끓지 딴 데서 들어오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깐 팥죽 방울이 자꾸 움죽거리니까 바로 법신이거든요. "요것도 법신, 요것도 법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 몸속에 있는 그 수십억의 의식들을 다 한마음으로 뭉쳐서 모든 걸 다스려서 거기다 놓고 돌아가신다면, 살림을 하신다면 모든 입력이 됐던 게 다 무너지면서, 오간지옥도 무너지면서,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몸뚱이 떨어지기 전에 모든 도리 증득해야 합니다

☞ 19면에서 계속

그 악업·선업 업식이 다 무너지면서, 이게 놓는 대로 없어집니다. 그리고 입력이 된 대로 또 나옵니다. 그럼 또 되놓고 되놓고, 이렇게 나오는 자리에다 되놓으십시오. 길을 가다가 엎드러지면 그 길을 딛고 일어나듯이, 이열치열이라는 속담의 말도 있듯이.

또 내가 항상 얘기하죠. 천이통 하면요, 무전통신기를 말합니다. 이게 '불교' 하는 것도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불이라면, 바로 교는 그렇게 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불교라고 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통하는 거나 보이는 데서 통하는 거나, 날아다니는 새들이 통하는 거나…. 모두 우리네가 잘못 생각을 하는 건데 '아이구, 저거는 말도 못 하고 알아듣지 못하게 저래.' 이러고 남을 원망한다고요. 여러분이 미국에 가면 미국 말을 못 해서, 내가 못 해서 통하지 못하는 거지 그 사람네들이 못 해서 통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깐 꽃이라든가 풀이라든가, 내가 못 듣는 생각은 안 하고, 그쪽에서 말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쪽이 못 합니까? 모두 통하고 사는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 말을 못 하고 한국의 뜻을 모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이 국토가 한 국토지 두 국토가 아닙니다.

그러니 천이통 해서 이게 통하는 거를 말하자면, 수없이 무전통신기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표현을 한다면. 지금 너무도 잘 아시죠? 천이통을 무전통신기로 표현해도 된다. 타심통을 탐지기로 표현해도 된다. 또는 천안통을 천체망원경으로 표현해도 된다. 신족통을 팩시밀리로 표현해도 된다. 우리네 이 살림살이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모두가 지금이나 그 때나 세상이 바꾸어지고 변하고 부서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름이 다를 뿐이었지 그 뜻은 항시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모든 것을 놓고 돌아간다면, 그렇게 그 입력됐던 데서 나오는 거를 다시 입력을 하면 앞서의 입력이 없어지면서 동시에 그렇게 돌아가게 된다 이 겁니다. 얼굴에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몸이 있고 뜻이 있고 이렇듯이, 모든 게 그렇게 부딪치고 돌아가는 그 자체가 한 몸에서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소리가 저 바깥에서 나면, 싸움을 하거나 이런다면 눈으로 보는 동시에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판단도 내립니다. 그러니 동시지 어디 따로따로 있겠습니까? 이름은 따로따로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 모두가, 일체가 다 같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온의 오신통이 그저 자꾸 같이 동시에 돌아가니까, 이 마음 한군데다 모든 것을 한데 뭉쳐놓으면 놓는 대로 통신이 되고 놓는 대로 작용이 되고 놓는 대로 다시 생산이 돼서 나옵니다. 그렇기에 맡겨 놓고 '거기서만이, 그놈이 있으면 할 것이고 그놈이 없으면 못 할 거고 그놈이, 모든 거는 영원한 친구 그놈이….' 그러기도 하고, 주인공이라고도 하고, 본래자성불이라고도 하고 뭐, 관세음보살이라고도 하고 뭐, 별 이름이 다 있죠.

여러분도 집에서 별 이름 다 가지고 있죠? 아버지라는 이름, 형님이라는 이름, 아들이라는 이름, 남편이라는 이름, 여러 가지 다 가지고 있죠? 어머니, 할머니 할 거 없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거 할 때, 할머니 노릇 할 때 나라고 하겠습니까, 딸 노릇 할 때 나라고 하겠습니까, 아들 노릇 할 때 나라고 하겠습니까? 남편 노릇 할 때…. 이거는 자동적으로 아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얘, 아무개야!" 하고 부르면 "예." 하고 아들 노릇 하고, "여보!" 그러면 "응, 왜 그래?" 그러고 남편 노릇 하고, "아버지!" 그러면 "얘, 언제 들어왔니?" 하면서 아버지 노릇도 잘하거든요. 이게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이 멋진, 자성의 이 멋진 묘법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것을 맡겨 놓을 수 있다면 모든 게 거기에서부터 두뇌로 통신이 돼서 사대로 통신이 된단 말입니다. 사대가 통신이 되면 온통 들고 나면서, 하나의 생각이 수십만 개로다가 입자가 돼서 들고 나면서 일들을 하거든요. 작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심과 유심이 다 같이 작용을 해야만이 불이 들어올 수 있다. 이게 작용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죠. 정신계의 50%와 물질계의 50%가 쌍방이 같이 작용을 해야만이 100% 불이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전력은 하나지마는 갖다가 잇는 데는 줄과 줄을 한데 이어야 불이 들어오죠? 그래서 인연의 법칙에 의해서 발전이 되고 또 창조력을 기르는 것이죠. 우리가 다 같이 작용하는 도리를 하나로 말하지만 그 하나도 작용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이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니까 없다고 한 것입니다. 평등공법을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몸뚱이가 있을 때 이 공부를 모두 열심히 하셔야 될 겁니다. 스님네들만 공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공부하는 마음은 둘이 아닙니다. 마음은 다 마찬가지죠. 절에 입산을 해서 있다 할지라도 속가에서 살림하는 거보다 더 낫지 못하면 마찬가지죠. 입산을 해 가지고도, 살림을 하는데 요거는 요렇게 해서 '내 살림, 내 거' 이렇게 한다면 모든 게 이 부처님 법에 그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저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같이 나누어 먹고, 들어오는 대로 나누어 입고, 서로서로 남의 원망을 하지 않고 모두 자기 탓으로 돌리면서 말 한마디라도 부드럽게 해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사람, 모든 걸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기 때문에 계율도 지킬 수 있고 질서도 지킬 수 있고, 무조건 사랑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살면서, 또는 입산을 해서 어느 도량에서 산다 하더라도, 형제들이나 한 가족을 차이를 두고 항상 '내가 이만큼 하니까. 너는 내 아래야.' 하고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내 아래가 바로 내 스승이란 걸 아셔야 합니다. 풀 한 포기도 내 스승이요, 내 아랫사람도 내 스승이요, 잘못하는 걸 봤을 때에 그 잘못하는 걸 보고도 스스로 느끼는 바가 있고 잘하는 걸 보고도 느끼는 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나 아님이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말을 하자면 일체 만생, 만 중생이라고 해도 되지마는 만물만생에 들고 나면서…. '들고 나며' 하는 것은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들고 나면서 찰나찰나 화하면서 나투는 부처님의 뜻은 불바퀴가 돌아가는 사이 없이 돌아가면서 나투는, 화해서 나투는 그것뿐입니다. 우리가 이러니 저러니 이게 잘하느니 저게 잘하느니 하고 이렇게 논의를 한다면 부처님의 발꼬리도 못 쫓아갑니다. 부처님의 모습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한 부처님의 모습도 계신 겁니다. 풀 한 포기가 살아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은 계신 거고, 지수화풍이 있는 것도 부처님이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셔서 이제는 말세가 됐다 이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이요, 여러분의 행동이 부처님의 법이요, 여러분의 그 모든 움죽거리는 그것이, 바로 화해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보현신입니다. 화신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또다시 요다음에 만나면 질문을 그런 걸로다가 버리지 마시고, 우리가 말로 그냥 떨어뜨린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말로 떨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컴퓨터를 제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사람이 움죽거려야 컴퓨터도 움죽거리는 반면에, 컴퓨터는 사람의 마음을 다 집어먹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능가할 수도 있죠.

그 마음의 뜻을, 부처님께서는 삼천 년 전부터 '마음 떠나서는 일체 만법을 행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설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법이라고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자비라는 것은, 가정에서도 무조건 내 탓으로 돌리고 모든 것을 무조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 그게 바로 자비입니다. 무조건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야 마음과 마음이 서로 불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내 아들이 잘못되지 않고 잘 나갈 수 있고, 내가 술 먹지 않고 또는 화투 치지 않고, 하하하, 또 나가서 잘못되지 않고, 가다가도 그냥 차에 잘못되거나 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뭐든지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 거지 누가 갖다 주고 뺏어 가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여러분, 한군데다가 뭉쳐서 놓는 작업을 열심히 하십시오. 일체 만법을 오는 대로, 용도에 따라서 모든 걸 닥치는 대로 거기 맡겨 놓는 것 말입니다. 그럼으로써 거기서 다시 생산이 돼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용광로에다가 전부 넣으면, 그냥 넣기만 하는 작업을 하면 생산이 되는 건 저절로 생산이 돼서 다시 나오죠? 연탄도 그냥 가루로다가 다 몰아서 넣으니까 연탄이 되어서 나오고, 연탄이 되어서도 차곡차곡 나가는데, 연탄을 만드는 데서는 다 같이 만들지만, 집집마다 나누어 가는 데는 다 각자 집으로 갑니다. 모습은 다르고 모양은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모두 다르지만 말입니다.

비가 내리면 일체 만 중생들이 다 그 물을 먹고 살죠. 그러면서도 물을 감사하게 생각도 안 합니다. 모두 식물이나 동물이나 모두 그 빗물을 아니 먹는 게 없는데도 그러니 그렇게 양식을 내려주는 것도 감사하다고 생각 한 번도 해 본 예가 없고, 또는 온기가 항상 꺼지지 않게 여러분 앞에 있는데도 감사한 줄 모르고, 불도 감사하게 쓸 줄 모르고, 바람 공기도 감사하게 생각지 못하고, 딛고 다니는 자기 흙도 감사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실정이라고 봅니다. 모든 게 나 아님이 없습니다. 인연에 따라서 전부 나 아님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독불장군처럼 나 혼자 내가 잘나서 산다고 한다면 먹지도 말고 입지도 말고, 뭐, 땅을 딛고 다니지도 말고 물도 먹지 말아야 하고 아예 그냥, 그렇게 해야죠, 뭐.

그러니까 그 뜻을 잘 아셔서 먼저 작업할 게 바로 그거라는 말입니다. 과거 씨는 현실의 싹이 돼서 그 싹에 열매가 열려서 그 열매 속에 씨가 들어 있는 줄 모르고 과거로, 바로 내가 나기 이전 그 과거로 돌아가서 찾으려고 한다면 절대로 그건 오산입니다. 그리고 나를 끌고 다니는 놈이 그 놈이라는 걸 알고 무조건 '그놈으로부터 나온 거니까 그놈으로부터 해결해라. 그놈으로부터 나 아닌 내가 있다는 걸 증명을 해 줄 수 있다.' 하고 일체 만법을 다 거기다가 놓는 작업으로써 생활해 가기를 바랍니다. 이만 그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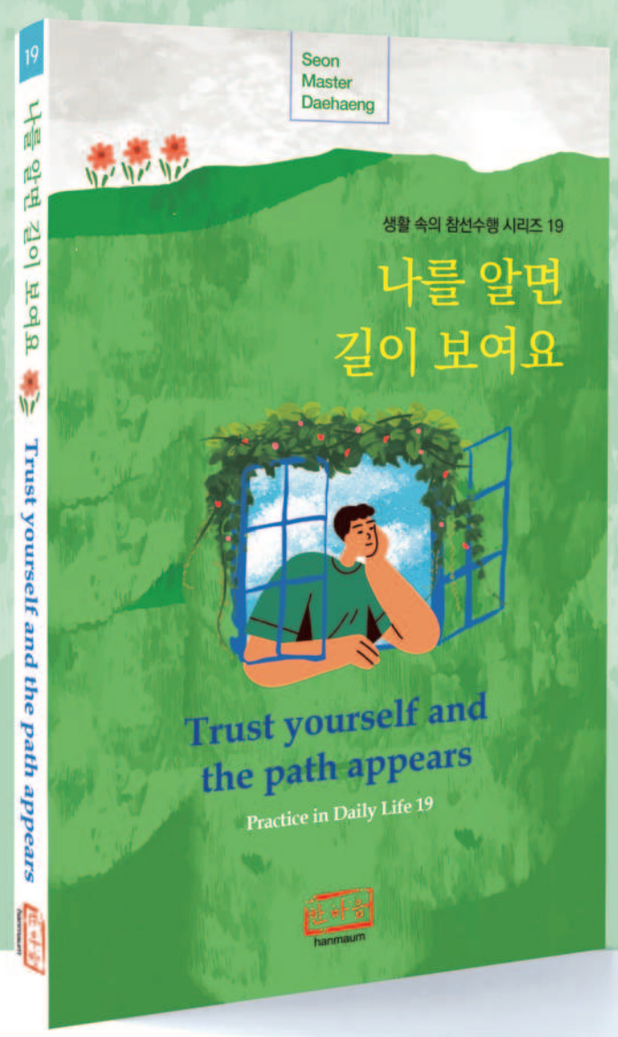
> 우리가 이러니 저러니
> 이게 잘하느니 저게 잘하느니 하고
> 이렇게 논의를 한다면
> 부처님의 발 꼬리도 못 쫓아갑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2년 4월 19일 정기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생활 속의 참선수행 시리즈 19 (한영합본)

나를 알면 길이 보여요

대행큰스님 법문



자기 삶을
당당하고 패기있게
이끌고 싶다면

답은 언제나 한 곳에
'내 마음 속'

인터넷 유명 서점과 대형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값 9,000원

열두 줄, 마음을 고르다

⑦ 덜어내러 갔다가 끌리는 마음을 보았다

자극에 기울어진 마음 알아차리기

전시장에 들어서는 순간, 말로 붙잡기 어려운 감각이 먼저 몸을 덮쳐왔습니다. 익숙한 사찰의 향과 현대적으로 기획된 향기 제품들의 내음이 묘하게 섞여 있었고, 쉴 새 없이 오가는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이따금 저 멀리서 들려오는 묵직한 목탁 소리와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안내의 말소리가 겹쳐 들려왔습니다. 종교와 무관한 젊은 세대들이 '오픈런'을 불사할 만큼 몰린다는 소문에 저 역시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찾은 서울국제불교박람회였습니다.

국악 명상 음악을 만들며 늘 소리의 여백과 온전한 멈춤의 실체를 고민해 온 저로서는 막연한 정숙함을 기대하고 그 문을 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입구에서 저를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은 잠잠할 것이라 기대했던 분위기 대신 그 수많은 움직임에 쉽게 끌려가고 있는 제 마음의 분주함이었습니다.

머물지 못하고 자꾸만 끌리는 걸음

사람들의 물결에 떠밀리듯 발걸음을 옮길수록, 제 시선은 쉴 새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웅장하고 정교하게 채색된 불교미술 작품 앞에서는 그 한 획을 긋고 한 층의 색을 쌓아 올리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을 견뎌냈을지 가늠해 보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그 여운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제 눈과 귀는 다시 다른 곳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편에서는 차를 다려 건네며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서두르던 표정을 느슨하게 풀며 말 없는 다정함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내 그 자리에 앉지 못했습니다. "저쪽도 가봐야 한다"는 누군가의 말에 이끌리듯, 또 다른 볼거리를 향해 머무르지 못하고 계속 움직이는 제 모습을 보면서 말입니다.

부처님의 얼굴을 따뜻하게 그려내는 작가와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말이면 불자보다 종교가 없는 일반인이 훨씬 더 많이 찾아온다는 그의 담담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어진 굿즈 부스에서는 불교의 언어와 이미지를 유쾌하게 풀어낸 상품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낯설게 느껴졌던 그 감각이 판단할 겨를도 없이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구경만 하려던 저는 어느새 계산대 앞에 서 있었고, 티셔츠와 마우스패드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양손 가득 물건을 든 순간 문득 멈춰 섰습니다. 덜어내러 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박람회서 마음 분주함과 욕망 마주해
흐트러진 연주의 손끝처럼 방향 잃어
끌려가는 나 알아차리면 반응 달라져

은 내 욕망의 방향을 따라 더 많은 것을 쥐려는 쪽으로 이미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의 손끝이 다른 줄을 건드릴 때

가야금을 다뤄 온 사람으로서, 그 순간 자연스레 손끝을 떠올렸습니다. 특히 25현 가야금처럼 줄이 많고 빠른 곡을 연주할 때, 의도하지 않은 줄을 스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손은 분명 한 음을 향해 갔는데, 주변의 다른 줄들이 함께 울리며 소리가 번지듯 흐트러지는 순간입니다. 중심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소리 속에서 손끝이 잠시 방향을 잃은 상태입니다.

그날의 제 마음도 꼭 그와 같았습니다. 한곳에 머물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더 많은 것들이 눈앞에 펼쳐질수록 제 마음의 손끝은 정박하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곳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자극 속에서 무엇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결국 내 마음의 손끝이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일에 달려 있었습니다.

멈춤을 원하면서도 자극을 찾는 모순

문득 떠오른 것은 제가 만든 '도파민'이라는 곡이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명상을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 다시 자극을 찾게 되는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가만히 있으려 할수록 다른 생각이 스며들고, 더 강렬한 무언가를 쥐고 싶어지는 끝없는 반복. 그날 박람회장에서의 제 모습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질 것이라 기대하고 문을 열었지만, 결국 더 많은 것을 쥐고 싶어 하며 바깥으로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공간을 빠져나오며 흔들리지 않는 상태란 주변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온갖 자극 앞에서도 쉽게 끌려가지 않는 중심에 가깝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수행은 소음을 피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한 발짝 바깥으로 나오자 다시 도심의 번잡함이 이어집니다.

우리는 멈추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다음 자극을 향해 계속 움직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은 이미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의 손끝은 멈추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자극을 향하고 있습니까.

가야금 명상곡 'Dopamine' 바로 가기



이현아 국악명상연구소장

동네약국 사용설명서

㉛ 올바른 오메가3 선택, 구조를 알자

"복용 목적·예산 맞춰 챙기세요"

오메가3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건강기능식품 중 하나다. 그동안 오메가3의 아류나 대체 식품들이 광고를 등에 업고 유행했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것을 떠올려 보자. '크릴오일'과 '하프실오일'이라는 것을 들어본 기억이 있는가?

크릴새우에서 추출했다는 크릴오일은 인지질 구조 덕분에 흡수율이 높고 중금속 걱정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오메가3의 강력한 대체 식품으로 떠올랐다.

2000년대 초반 '물범유'라는 이름으로 효도선물 1순위였던 하프실오일은 생선 기름보다 사람의 체질에 잘 맞는 DPA 성분이 들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약국이나 건강기능식품 매장 등 시중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없다. 마케팅에 휘둘린 일시적인 유행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예전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 고객들에게 사랑받아 온 오메가3는 그야말로 약국의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으로 자리 잡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죽하면 오메가3가 전문의약품으로도 개발되어 중성지방 수치를 조절하는 데 처방되고 있으니 말이다.

사실 그 유명한 오메가3에도 유행이 있다. 오메가3는 구조에 따라 TG 형태, EE 형태, rTG 형태로 나뉘며 저마다 유행을 탔는데, 막상 약국에서 설명을 들어도 도무지 뭐가 좋은지 알기가 쉽지 않다.

rTG 형태가 가장 가격대도 높고 흡수율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제일 좋은 것을 선택하기 마련인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긴다. '그렇게 좋은 구조가 개발됐다면, 왜 지금도 예전 형태의 제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걸까? 장점이 없다면 시장에서 도태되기 마련일 텐데….'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오늘은 오메가3의 구조와 그 특징에 대해 알아보자. 오메가3의 구조와 형태(TG, EE, rTG)를 복잡한 화학식 대신 우리가 사는 집에 대입해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다.

TG(트리글리세라이드) 형태는 시골 본가, EE(에틸에스터) 형태는 호텔 월세, rTG(재에스터화 트리글리세라이드) 형태는 리모델링한 신축 고급 아파트에 비유할 수 있다.

시골 본가(TG 형태)는 화려하고 번화하지는 않지만, 안정적이고 마음이 편안한 집이다. 자연 상태의 생선 기름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형



사진 출처=픽사베이

TG, 가성비 중시 · 속 예민한 이에 적당
EE, 소화력 좋고 고함량 찾는 분 추천
rTG, 심혈관 건강 · 염증 관리 위한 선택

태라 거부감 없이 무난하게 흡수되고 속도 편안하다. 가격도 비교적 착하다. 고함량이 굳이 필요 없고 가성비 좋은 적당한 오메가3를 찾는 분들, 특히 속이 예민한 분들에게 이만한 선택이 없다.

호텔 월세(EE 형태)는 넓고 쾌적하지만, 어딘가 내 집 같지 않은 곳이다. 이는 함량을 높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구조를 바꾼 형태를 말한다. 함량은 높지만 체내에서 한 번 더 소화효소로 분해된 다음 흡수되기 때문에 공복 흡수율이 낮고 속이 불편할 수 있다. 방은 넓고 좋지만, 어딘가 익숙하지 않아 마음이 편치 않은 호텔 방처럼 말이다. 이 형태의 제품은 소화력이 좋고 식후에 꼬박꼬박 오메가3를 잘 챙겨 먹을 수 있는, 가성비 좋은 고함량 제품을 찾는 젊고 위장이 튼튼한 분들에게 추천한다.

리모델링한 신축 고급 아파트(rTG 형태)는 동선을 고려하여 내 몸에 맞게 구조를 다시 짠 제품이다. 불순물을 줄이고 함량은 높이면서, 흡수율도 좋고 속도 비교적 편하다. "제일 좋은데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어?" 싶겠지만, 아무나 신축 아파트를 리모델링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다. 유일한 단점은 비싼 가격이다. 하지만 가격을 떠나 중성지방 관리가 필요하고 심혈관 건강이나 염증 관리에 좋은 제품을 찾는 분들에게는 결코 아깝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다.

사람마다 살고 싶은 집이 다르듯, 오메가3도 무조건 rTG 형태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 자신의 복용 목적과 예산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메가3 선택에 대한 팁을 주자면 오메가3는 생선 기름에서 추출한 물질이기 때문에 공기 중에 오래 노출됐을 때 산패되기 쉽다.

그러니 가능하면 2~3달 분량의 소포장 제품을 선택하고, 감기약처럼 한 알씩 PTP 방식으로 개별 포장된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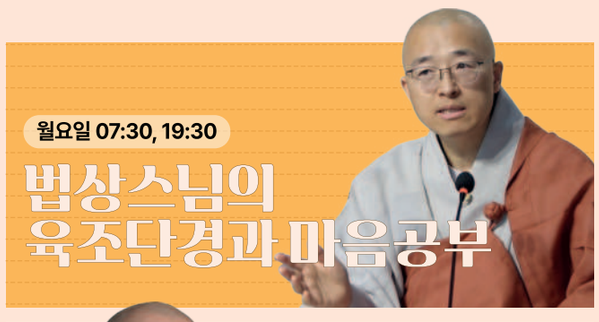
큰 플라스틱 통에 6개월이나 1년 치 대용량으로 판매하는 오메가3는 보관을 소홀히 할 경우 산패되기 쉽기 때문이다.

오메가3를 제대로 고르기 위해서는 약국에 직접 방문하는 것이 좋다. 오메가3를 섭취하고자 하는 이유를 잘 설명하고, 그에 맞는 제품을 약사에게 추천받도록 하자. 직접 약국에 가면 오메가3가 어떻게 포장돼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가장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종섭
울산희망약국 대표약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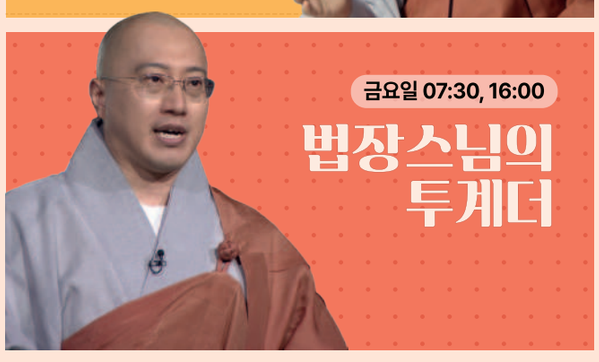
BTN 불교TV의 명강의 컬렉션
스테디셀러 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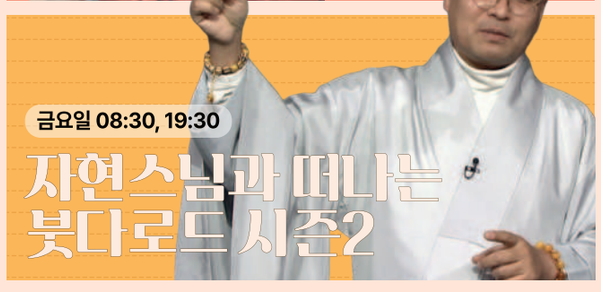












BTN 채널안내 | GENIE TV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캄보디아 뽀디봉 마을에서 온 편지 ⑦

가능성의 빛이 켜지다



2022년 4월, 학교에 처음 전기가 들어온 날 수레꾼이 기증한 컴퓨터와 프린터 앞에서 쏘리야 초등학교 교장이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초등학교를 지은 지 8년, 중학교를 세운 지 5년이 지난 2015년의 일이었습니다. 허허벌판에 마을이 생기고, 마을 아이들의 기초 교육을 위해 학교를 세웠지만 정작 학교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일이 급한 마을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생계를 이어갈 것인가'가 삶의 가장 절박한 문제였지만 수레꾼은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사람답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또한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은 학교를 지어 정부에 기증하는 방식으로 공립화에는 성공했지만, 가난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교사들에게 겨우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아이들이 교과서를 갖고 공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교사만 교과서를 들고 있고, 아이들은 공책에 연필로 받아쓰기를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수레꾼은 전교생에게 교과서를 구입해서 나누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레꾼이 나누어준 교과서를 집으로 갖고 가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까닭은 다음 학년의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자 교사들이 컴퓨터로 수업 자료를 만들고, 프린트물을 나눠주는 교육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컴퓨터가 있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전기의 부재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었습니다. 그때 쏘리야 초등학교 교장이 말했습니다. "가까운 도시에 나가면 태양광 판을 살 수 있습니다." 순간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한국의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후원을 요청했지만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던 때였기에 그 말은 하나의 돌파구처럼 들렸습니다. "얼마입니까?" "80달러면 한 세트를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뽀디봉 마을에 처음으로 태양광이 들어왔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인근 꼭찬끼리 초등학교 교무실까지 작은 빛이 켜졌습니다. 각 교무실에 중고 컴퓨터와 프린터도 한 대씩 놓았습니다. 비록 작고 희미한 빛이었지만, 당시에는 그 무엇보다도 밝고 큰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2022년, 마침내 마을과 학교에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날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수레꾼은 전기가 들어온 기념으로 캄보디아의 현실에 맞는 새 컴퓨터와 프린터를 각 학교 교무실에 한 세트씩 기증했고, 모든 교실에는 천장형 선풍기와 벽걸이 선풍기를 설치했습니다.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 수는 얼마나 됩니까?" 이에 제가 "초등학교에 500명, 중학교에 250명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면 정말 놀랍니다.

학교에 전기가 들어온다는 것은 단순히 불이 켜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능성의 빛이 켜지는 일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 하나를 붙잡고 숱한 어려움을 함께 견디며 걸어오던 수레꾼은 전기가 들어온 그날 비로소 마음속으로 품고 있던 기술·공예학교의 꿈을 현실로 키워갈 큰 힘을 얻었습니다.



오시환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대표

동국대 캠퍼스 전법일기 ④ 삶 자체가 수행인 미래 부처님들

부처님 길 따라 꽃피는 학생들

'퓨처핸접(Future hands up)'은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들이 모인 미래융합대학 불교동아리입니다. 제도반인 동아리 친구들은 학생이면서 동시에 직장인이기도 합니다. 여러 자리에서 부처님의 전도선언을 소개해 왔지만, 조금 특별한 구성원들과 함께 하게 되면서 그전과는 또 다른 울림을 받습니다. 모두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뜻과 내용이 온전한 법을 전하라는 가르침이 매번 새롭게 새겨집니다.

지금의 캠퍼스 전법은 이미 불자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불교를 처음 접하거나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들입니다. '불교동아리'라는 이름 아래 모였지만, 불교와의 거리는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불자로 자라 승려가 된 제가 그들을 만났습니다. 이 만남의 지속을 위해 제 모습은 고집스럽지 않고 두루 다양해야 했습니다.

평소에도 불교를 소개하는 수업을 진행해 왔는데, 극소수 불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종교가 없거나 멀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종강 이후 방학을 맞아서야 불자가 되겠다며 저를 찾아오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갑작스러운 뒤늦은 관심의 이유가 궁금했는데, 그중 하나는 부처님에 대한 그동안의 개념적 오해였습니다. 아직 불자가 아닌 친구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불교 초심자·타종교 학생 전법 동아리
불교 좋아지게 이끄는 일, 지도법사 몫
부처님 가르침으로 '삶 주인공' 이끌 터

그 이유를 함께 다시 바라보는 일, 그 역할이야말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전하기 위해 지도법사가 해야 할 일임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좋아서' 스스로 이미 불자가 된 경우가 아니라면, '불교가 좋도록' 해줘야 했습니다.

둘은 완전히 다른 사고의 과정이어서 먼저 동아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솔직한 속마음을 듣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기에 많은 과정과 마음이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친구들의 일상은 종교보다 더 급한 것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학업과 취업, 직장 생활과 이직, 그리고 그 안에서 생겨나는 불안과 걱정들. 그들은 여행을 가고 산책을 하며 영화를 보고 SNS를 하는 등으로 스스로를 달래고 그것을 취미라며 좋아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저는 조심스럽게 불교를 살포시 얹어만 주었습니다. 여행을 하면 근처 사찰을 찾아 공부하고 체험했습니다. 산책할 때는 걷기 명상을, 공부할 때는 기도와 참선을 했습니다. 관심 수요 조사를 통해 초 만들기 클래스를 하면 촛불 명상을 함께 했고, 음식을 만들면 불단에 공양하도록 동행했습니다.

천백억 화신으로 모든 곳 어느 때나 부처님께서 함께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 주셨고, 필요하면 지혜의 말씀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불교는 우리 동아리 부원들의 가족이거나 친구, 또는 가끔 찾는 멘토처럼 일상이 됐습니다.

여러 현장에서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삶'을 강조해 왔는데, 희유하게도 그것을 펼칠 수 있도록 학교에 전법의 장이 만들어졌고, 활동 명분과 방향성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동아리 부원 학생들은 주인공으로 살아가기 위해 부처님과 놀고 부처님과 공부하며 부처님과 상의합니다. 스스로 아껴주고 챙겨줄 수 있는 대학생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어 너무나 감사한 날들입니다. 더욱 그러할 수 있도록 부담스럽지 않게, 피곤하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오랜 세월 함께해 온 친구처럼 서로의 취미를 융회하며 조용히 정진해 나가려 합니다.



진관 스님
동국대학교 전법특임교수

스마트폰에 담은 사찰 꽃문 ⑬ 꽃공양

정수사는 오로지 '꽃문'을 보기 위해 찾아가는 절이기도 하다. 정수사 대웅보전(보물)은 사찰의 꽃살문을 말할 때 거론되는 대표적 건물 가운데 하나다. 앞면 3칸 옆면 4칸인데, 앞면 중 어간(가운데 칸)만 꽃살문이고 양옆은 격자 문살이다. 그래서 꽃살문이 더 돋보인다.

사찰 꽃살문은 문살을 짜맞춘 위에 꽃을 올린 형태가 대부분이다. 이에 비해 정수사 대웅보전 꽃살문은 (신라 금관처럼) 통판에 투조 기법으로 만들었다. 통나무 판의 4.5㎝ 두께가 만들어내는 입체감은 꽃살문 그 자체를 하나의 조각품처럼 느껴지게 한다. 네 짝 꽃살문 중 가운데 두 짝은 연꽃, 양옆은 모란이다. 화병에 꽂은 모습으로 층층이 꽃이 새겨져 있다.

정수사는 639년(신라 선덕왕 8)에 창건됐다 한다. 희정 스님이 마니산 참성단을 배관한 뒤 동쪽 기슭에 환히 열린 땅을 보고, 선정삼매를 정수(精修)할 곳이라며 절을 짓고 이름을 정수사(精修寺)라 했다. 현재의 대웅보전은 1426년(세종 8년)에 함허 스님이 중창했는데, 이때 건물 서쪽에서 맑은 물이 솟아나는 걸 보고 정수사(淨水寺)로 이름을 바꿨다 한다.

정수사 대웅보전 앞은 툇마루다. 앞에 서서 꽃살문을 보면 무릎을 꿇고 꽃을 바치는 듯한 느낌이 들게 된다. 꽃병 속의 물은 당연히 정수사의 '맑은 물'이다. 정수사 꽃살문은 '꽃공양'이자 절의 이름 유래를 담은 상징이기도 하다.

손영자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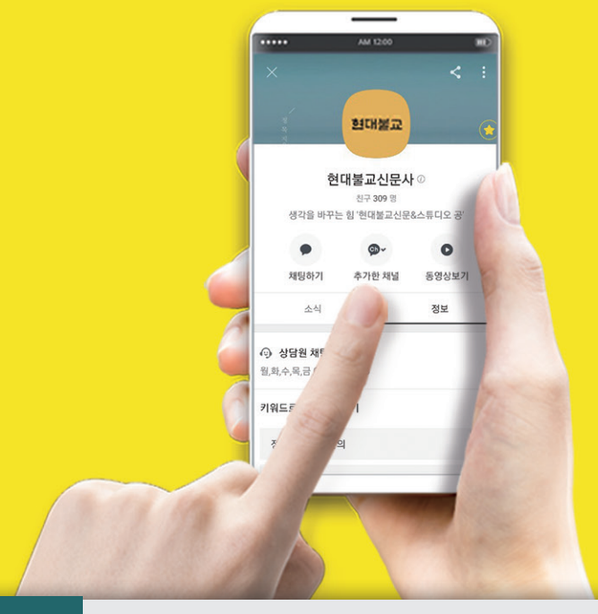


정수사 대웅보전.

구독 및 후원

이제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문자 · 카카오톡 접수 010-4648-8200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및 구독신청서 양식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후 원 금 액 : 매월 원 (매월 5,000원 이상)
▮접 수 방 법 : 자동이체, 무통장입금
▮자 동 이 체 :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농협은행 053-01-269075 □예 금 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무통장입금 후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납 부 방 법 : 자동이체(월 구독료 5천원)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이체 희망일 : □ 5일 □15일
▮입금 계좌번호 : □국민은행 245-25-0001-461 □농협은행 053-01-269050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흔들리는 세계, 윤회하는 마음

현불논단



효록 스님
다르마심리상담명상센터 대표

최근 중동 지역의 전쟁과 국제 정세의 긴장은 금융 시장의 큰 변동성을 가져오고 있다. 이런 변화는 우리의 일상과 마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루에도 몇 번이나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하고 작은 변화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린다. 불교에서 윤회는 흔히 죽음 이후 세계로 이해되지만 동시에 되풀이되는 마음의 경향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우리는 비슷한 생각을 반복하고 익숙한 감정과 유사한 관계 방식을 거듭한다. 갈망과 분노, 비교와 불안으로 이어지는 이런 흐름은 충분히 이해되지 않은 마음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있다.

육도윤회 도상은 근본설일체유부 율장 전승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전승에 따르면, 목건련은 깊은 명상 상태에서 인간의 의식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존재 상태를 체험적으로 관찰하고, 그것을 윤회라는 언어로 설명했다. 부처님은 사원 입구에 윤회의 바퀴를 그리도록 했다고 전해진다. 방문자들이 그림을 통해 삶의 원리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가르침의 장치였던 셈이다. 이 전승은 윤회가 사후 세계의 지도가 아니라, 삶을 성찰하도록 돕는 상징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사찰 입구의 윤회도는 지금 자신의 현실과 우리가 어떻게 반복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경전에서는 인간을 괴로움을 인식하고 그 원인을 탐구하며 그것을 멈추는 길을 찾을 수 있는 존재라고 설명한다. 인간이 특별한 이유는 고통을 느끼고 이해하며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불교에서 인신난득(人身難得)이라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되풀이되는 생각과 감정 경향도 윤회
마음의 움직임 이해하는 과정이 수행
알아차림이 반복 상태서 벗어나게 해

정신분석가 윌프레드 비온은 인간의 성장에 있어 K(knowledge)와 －K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K는 진실을 견디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의미한다. 이해는 고통을 즉시 사라지게 하지는 않지만, 반복을 멈출 가능성을 만든다. 반대로 －K는 진실을 마주하지 않으려는 심리적 경향을 의미한다. 사람은 종종 새로운 사실을 배우기보다 이미 익숙한 방식으로 반응한다. 익숙한 고통은 낯선 자유보다 안전하게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비슷한 감정과 관계의 흐름이 계속된다.

육도는 이러한 마음의 경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지옥은 극단적인 고통을, 아귀는 결핍과 갈망을, 축생은 본능적인 반응을, 아수라는 경쟁과 비교를, 천상은 만족 속에서 변화를 찾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인간은 이 모든 가능성 사이에 위치한다. 고통과 안정이 함께 존재하는 이 균형 속에서 비로소 성찰의 여지가 열린다.

불교 수행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여리작의(如理作意)이다. 이는 현상을 표면적으로 보지 않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원인과 조건의 맥락 속에서 차분히 살펴보는 마음이다. 수행은 특정한 상태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기보다 이미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과정에 가깝다. 우리는 윤회를 없애기 위해 애쓰기보다 윤회를 만들어내는 마음을 알아차리기 시작한다. 알아차림은 반복을 즉시 멈추게 하지는 않지만 반복과 동일시되는 상태에서 벗어나게 한다. 우리는 이미 여러 번 지옥과 아귀와 아수라를 경험했다. 그리고 때때로 인간의 자리로 돌아온다. 중요한 것은 그 상태를 알아차릴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서로를 부정하는 시대에 다시 경청

〈傾聽〉

세간과 출세간



이명호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드라망연구소장

지구촌 곳곳에서 무력 충돌이 지속되고 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아프리카 수단,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란에서 군사적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과거의 전쟁은 주로 영토나 자원, 정치적 굴복을 목적으로 했다. 반면 오늘 우리가 목격하는 일부 전쟁은 상대가 살아갈 조건 자체를 파괴하는 양상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병원과 학교, 주거지와 생존 기반이 공격 대상이 되고 민간인들도 없애야 할 대상으로 다뤄진다. 전쟁은 늘 있어 왔지만, 오늘의 전쟁은 점점 더 상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는 듯하다.

문제는 이처럼 상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현상이 전쟁터 바깥에서도 발견되며 더 넓게 퍼지고 있다는 점이다. 요즘 우리는 생각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아예 상대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자주 본다. 정치적 신념, 종교, 세대, 젠더(성), 성적 지향, 계층, 국적, 인종 등을 기준으로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고, 갈등이 깊어지면 그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말조차 섞지 않으려 한다. '그들과 우리는 다르다'를 넘어 '저 사람들은 우리 세계 바깥의 존재들'이라고 느끼고, 실제로 그렇게 대하는 분위기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이는 갈등이 심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기술 자체가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예전에도 진보와 보수, 노동자와 고용주, 여성과 남성 등이 달랐다. 그러나 지금의 문제는 그 차이에 있지 않다.

전쟁터 밖으로 퍼지는 존재 부정 현상
혐오와 증오 넘어 관계 단절과 배제로
끝까지 듣기, 평화·공존·상생의 출발점

오늘날 많은 갈등 상황은 상대를 설득·타협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대화할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생각이 다르면 듣지 않고 듣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으며 이해할 수 없으면 결국 함께 살아갈 이유도 찾지 못한다. 어쩌면 오늘 우리 사회를 잠식하는 것은 혐오와 증오만이 아니라, 상대와 관계 맺고자 하는 최소한의 마음 자체가 사라지는 현상인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해법보다는 '듣는 일'인지 모른다. 갈등의 극단에서 공존과 상생의 길을 찾았던 원효 스님의 지혜가 오늘날 다시 절실해지는 이유다. 무엇보다 먼저 들어야 한다. 듣기 싫은 말, 나와 생각이 다른 말을 서둘러 끊지 않고 주의 깊게 듣는 일. 그것이 화쟁의 첫걸음이다. 주의 깊게 듣는 일에는 적어도 세 가지 힘이 있다. 먼저 듣기는 나 자신의 아집(我執)을 내려놓게 한다. 내가 옳다고 믿는 생각도 다른 맥락 앞에서는 다시 질문될 수 있음을 알게 한다. 다음으로, 듣기는 상대를 적으로만 보지 않게 만든다. 동의하지 않더라도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맥락을 헤아리게 되는 순간 적대의 온도는 조금 낮아진다. 마지막으로, 듣기는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게 해준다. 다름을 인정하지 못해도, 적어도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자리만은 남겨두게 한다.

평화와 공존, 상생 같은 것들은 거창한 이론이나 프로젝트, 캠페인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끝까지 들어보겠다는 작은, 그러나 쉽지 않은 결심에서 시작된다. 서로를 지워버리려는 시대에 듣는 일은 어쩌면 평화로 가는 가장 현실적인 첫걸음일지 모른다.

社 說

신행의 공백, 불교의 위기

한국갤럽의 '한국인의 종교 1983~2025' 조사 결과는 한국불교가 직면한 현실을 다시 한번 냉정하게 드러낸다. 그중에서도 특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은 불자들의 신행 활동이 이웃 종교인들에 비해 현격히 저조하다는 사실이다.

조사에 따르면 불자 가운데 주 1회 이상 사찰을 찾는 비율은 3%에 불과하다. 경전을 주 1회 이상 읽는 비율은 6%, 매일 기도하는 비율은 7%에 그쳤다. 개신교와 천주교 신자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빠르게 신앙의 현장으로 복귀해 활동성을 회복한 것과 대조적이다.

그동안 이러한 현상에 대해 '산중 불교'의 지리적 한계나 '개인 수행' 중심의 특수성을 이유로 들어왔다. 그러나 낮은 기도율과 경전 독서율이 보여주듯, 사찰을 찾지 않더라도 일상에서 신행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생활 불교'가 구호에 머물러 있을 뿐 실제 삶 속에서 구현되고 있지 못한 현실이 통계로 확인된 셈이다. 또한 이는 불교가 '마음의 안식처'로는 인정받고 있지만, 개인의 고통을 해결하고 삶을 이끄는 '실천하는 종교'로는 자리 잡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신행 활동 비율 현저히 낮고 신도 고령화
호감 넘어 체험 · 생활 불교로 전환 시급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신도 구성의 심각한 불균형이다. 불자 가운데 60대 이상이 56%를 차지하는 반면, 20대는 3%, 30대는 6%에 머물렀다. 비종교인들이 가장 호감 가는 종교 1위로 불교를 꼽고 있음에도, 실제 신도 유입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젊은 세대에게 불교가 매력적인 '문화'를 넘어 삶에 필요한 '지혜'로 인식되지 못한다면 고령층 감소에 따른 신행 공동체 약화는 피할 수 없는 미래가 될 것이다.

이제 한국불교는 근본적인 성찰과 전환에 나서야 한다. 전문가들의 제언처럼 교리 중심의 일방적 전달에서 벗어나, 현대인들이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수행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 불교의 본질은 수행이며, 수행은 경험을 통해 체득된다. 명상과 마음챙김과 같은 수행법들을 현대적인 언어로 풀어내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청년 세대와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한 언어와 형식의 혁신도 시급하다. 불안과 경쟁,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보듬기 위해 그들의 언어로, 그들에게 맞는 수행법과 치유 콘텐츠를 보급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과 신뢰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현실에서 불교 역시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위기의 본질은 외부 환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불자 스스로 신행의 중심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수행 없는 신앙은 공허하며, 실천 없는 종교는 생명력을 잃는다.

지금 한국불교에 필요한 것은 외형의 확장이 아니라 내실의 회복이다. 한 사람의 불자가 제대로 수행하고, 그 수행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일 때 비로소 불교는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다. 신행의 공백이 점점 커지는 지금, 불교는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불교는 본래 삶 속에서 실천되는 가르침이다. 이제는 그 본질을 회복해야 할 때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기사제보 (02)2004-8257
광고문의 (02)2004-8204
구독문의 (02)2004-8212
인터넷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 010-4152-4376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경기남부지사 :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 010-5323-0834
구독료 1개월 1만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70년(2026) 4월 15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70년(2026) 4월 15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70년(2026) 4월 15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대성사
• 주 지 : 법정 (속명 : 황정길)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면 독산길 65-32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5일

대한불교조동종 총무원장 법하

걷는 순간이 곧 수행이다

발은 수행의 첫걸음, 땅과 연결된 걸음은 곧 마음의 고요입니다.

"모든 길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법구경』



재질 : 인조가죽

"마음이 청정하면 길도 청정하다."

어싱(접지) 슈즈 리센스 블랙
Earthing Shoes Re-sense

◆ 주요 특징
- 두 개의 끈 구멍, 단순함 속의 무소유
- 제로 드롭(3mm) 밑창, 땅과 하나 되는 균형
- 클래식 블랙, 흔들리지 않는 중심

◆ 특판가 : 65,000원

※ 사은품 : 2켤레 이상 구매시
'어싱 전용 양말' 증정



재질 : 인조가죽

"몸과 마음이 고요하면, 걸음은 곧 선정이다."

어싱(접지) 슈즈 와이드 베이지
Earthing Shoes Wide

◆ 주요 특징
- 발가락을 옥죄지 않는 와이드 설계
- 인조가죽의 따뜻한 휴식
- 어싱(Earthing) 설계, 몸과 땅의 합일

◆ 특판가 : 65,000원

※ 사은품 : 2켤레 이상 구매시
'어싱 전용 양말' 증정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